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7권 (제73회 ~ 제84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73회 — 현덕이 한중왕으로 승격하고, 운장이 양양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6
제74회 — 방령명이 관을 메고 결사적으로 싸우고, 관운장이 물을 방류하여 칠군을 수몰시키다	24
제75회 — 관운장이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고, 여몽이 흰 옷을 입고 강을 건너다	41
제76회 — 서공명이 면수에서 크게 싸우고, 관운장이 맥성으로 패주하다	56
제77회 — 옥천산에서 관공이 성스럽게 나타나고, 낙양성에서 조조가 신의 위엄에 감동하다	72
제78회 — 풍질을 다스리던 신의가 죽고, 유언을 전하니 간웅의 운명이 다하다	89
제79회 — 형이 동생을 압박하여 조식이 시를 짓고, 조카가 숙부를 함정에 빠뜨려 유봉이 법을 받다	104
제80회 — 조비가 황제를 폐하고 한나라(염류)를 찬탈하며, 한왕이 정통을 이어 대통을 잇다	118
제81회 — 형의 원수를 급히 갚으려다 장비가 해를 입고, 동생의 한을 풀고자 선주가 군사를 일으키다	134
제82회 — 손권이 위나라에 항복하여 구석을 받고, 선주가 오나라를 정벌하여 육군에게 상을 내리다	150

제83회 — 효정에서 선주가 원수를 갚고, 강구에서 서생이 대장군이 되다	166
제84회 — 육손이 칠백 리를 불태우고, 공명이 교묘하게 팔진도를 펼 치다	187

제73회 — 현덕이 한중왕으로 승격하고, 운장이 양양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玄德進位漢中王 雲長攻拔襄陽郡

한편, 조조가 사곡까지 퇴각하자 제갈량은 그가 반드시 한중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제갈량은 마초 등 여러 장수에게 군사를 십여 갈래로 나누어 보내, 수시로 조조의 군대를 습격하고 약탈하게 했다. 이 때문에 조조는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게다가 위연이 쏜 화살까지 맞게 되자, 조조는 서둘러 군사를 돌려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삼군 장병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앞장선 부대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양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이는 마초의 복병이 뒤쫓아온 것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혼비백산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쉬지 말고 급히 행군하라 명하여 밤낮없이 달린 끝에, 경조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한편, 유비는 유봉, 맹달, 왕평에게 명령을 내려 상용의 여러 군을 공격하게 했다. 신담 등은 조조가 이미 한중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항복해 왔다. 유비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세력을 다지자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고, 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다. 장수들 또한 모두 유비를 황제로 받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감히 직접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제갈량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법정 등을 데리고 유비를 찾아가 말했다. "지금 조조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는 처지입니다. 주공의 인의는 이미 천하에 널리 알려졌고, 이제 두 지역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늘의 뜻에 부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명분과 도리가 바로 서서 나라의 도둑인 조조를 토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시급하니 어서 길일을 택하시길 청합니다."

유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군사의 말은 틀렸소. 내가 비록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 하나, 엄연히 신하인데 이런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한나라에 반역하는 꼴이 아니겠소?"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하가 분열되어 영웅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한 세력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천하의 재능 있는 선비들이 생사를 걸고 주군을 모시는 것은,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 공명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군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신다면, 자칫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유비가 다시 말했다. "내가 감히 높은 자리에 올라 참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해 봅시다."

그러자 장수들이 일제히 외쳤다. "주군께서 계속 거절만 하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평생 의리를 근본으로 삼으시기에, 쉽게 존호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주와 양양, 그리고 두 곳의 촉 땅을 차지하고 계시니, 우선 한중왕이라 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나, 천자의 명백한 조서도 없이 왕이라 칭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은 형편에 따라 임시로 대처해야 할 때이지, 지나치게 원칙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성씨가 다른 자들도 모두 임금이 되려 하는데, 하물며 형님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 아닙니까! 한중왕은 커녕 황제라 칭한다 해도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유비가 꾸짖었다. "너는 그만 좀 해라!"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주공께서는 우선 상황에 맞춰 한중왕의 자리에 먼저 오르신 뒤에, 나중에 천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유비는 몇 번이나 사양하며 미루었으나, 결국 제갈량과 법정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건안 24년 가을 7월, 유비는 면양에 가로세로 아홉 리 규모의 제단을 쌓고 다섯 방향에 깃발과 의장대를 배치했다. 신료들은

모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줄을 섰다. 허정과 법정이 유비를 제단 위로 모셨고, 유비는 관과 인장을 갖춰 쓰고 남쪽을 향해 앉았다. 문무백관이 절을 하며 축하를 올리자 유비는 한중왕으로 즉위했다. 아들 유선은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허정은 태부로, 법정은 상서령으로 임명되었다. 제갈량은 군사로서 군사와 나라의 중대한 일을 총괄하게 되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은 오호대장군으로 봉해졌고, 위연은 한중태수로 임명되었다. 그 외의 인물들은 각자의 공훈에 따라 작위를 받았다.

유비가 한중왕이 된 후, 곧바로 표문을 작성하여 사람을 시켜 허도로 보냈다. 표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신 유비는 신하로서 갖추 수 있는 재능을 다하고 장수의 임무를 맡아 삼군을 총괄하며 밖에서 정사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난을 소탕하고 왕실을 바로잡아 안정시키지 못한 채, 폐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오래도록 쇠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천하가 화합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니, 신은 밤낮으로 근심하며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탁이 난을 일으킨 이래로, 흉악한 무리들이 천하를 종횡무진하며 백성들을 도륙하고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폐하의 성스러운 덕이 위엄 있게 임하고 신하들이 이에 응하여, 어떤 이는 충의를 다해 토벌에 나섰고 어떤 이는 하늘의 벌을 받아 폭도들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점차 혼란이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조조만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채 국권을 침탈하며 제멋대로 난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은 예전에 거기 장군(車騎將軍) 동승과 함께 조조를 토벌하려 도모하였으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여 동승이 함정에 빠지고 해를 입었습니다. 신 또한 이리 저리 떠돌며 의지할 근거지를 잃어 충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결국 조조가 흉악한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황후는 살해당하고 황자들은 독살당했습니다. 비록 동맹을 맺고 힘을 보태려 마음먹었으나, 나약하고 무력하여 수년간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신은 늘 나라의 은혜를 저버릴까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탄식하고 매일같이 경계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과 여러 신료が 생각하기에, 옛날 우서(虞書)에 이르기를 구족을 두텁게 친하고 여러 백성을 밝게 교화하며 격려하라 하였으니, 이는 제왕들이 대대로 이어온 도리로서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나라는 하·은 두 왕조를 거울삼아 여러 종친(희성 제후)을 봉건하여 세웠는데, 이는 실로 진(晉)나라와 정(鄭)나라가 곁에서 보좌한 힘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한나라 고조께서 용처럼 일어나 왕실을 높이고 아우를 존중하며 아홉 나라의 기틀을 크게 열고, 마침내 여씨 일가를 쳐서 대중의 안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조는 정직하고 올바른 이를 미워하고 추악한 무리를 가까이하며, 마음속에 흥계를 품고 찬탈하려는 기세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실은 미약해지고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니, 옛 법도를 살피고 임시방편의 권위를 빌려 다음과 같이 청하나이다. 신을 높여 대사마이자 한중왕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나라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어 한 지방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아직 힘을 다해 공을 세우지는 못하고 오히려 과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 죄를 짓고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의리를 내세워 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이 물러나 생각해보니, 아직 적들을 소탕하지 못해 국난이 끝나지 않았고, 종묘와 사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이는 진정 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날입니다. 만약 권도에 따라 형편에 맞게 변통하여 성스러운 조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신은 설령 물과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라도 결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인장과 관인을 받들어 나라의 위엄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러러 뵈옵건대, 작위가 높고 은혜가 두터우시니, 굽어살피건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심은 깊고 책임은 막중하여, 마치 깊은 골짜기에 처한 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어찌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을 독려하고 의로운 무리들을 이끌어,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흉악한 역적들을 토벌함으로써 사직을 평안케 하겠습니다. 삼가 표문을 올려 보고하나이다."

표문이 허도에 도착하자, 조조는 업군에서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돛자리나 찢던 애송이가 감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나! 내 반드시 저놈을 멸하리라!'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려 나라의 모든 병력을 일으켜, 양천(兩川, 동천과 서천) 땅으로 출정해 한중왕과 승부를 겨루기로 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간언했다. '대왕께서는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직접 수레를 타고 멀리 원정을 떠나 몸을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활을 쏘고 화살을 날릴 필요도 없이 유비가 촉 땅에서 스스

로 재앙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유비의 군사력이 쇠하고 힘이 다하기를 기다렸다가, 장수 한 명만 보내 정벌하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를 살펴보니 바로 사마의였다. 조조는 기뻐하며 물었다. '사마의, 그대의 고견은 무엇인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강동의 손권은 누이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냈다가 다시 몰래 빼앗아 왔고, 유비는 또 형주를 점령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양쪽 모두 서로를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씨 좋은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서신을 전하며 설득하십시오. 손권이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빼앗게 만들면, 유비는 반드시 형주를 구하기 위해 양천의 병력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한천을 치신다면, 유비는 앞뒤를 돌볼 겨를이 없어 필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만충을 사신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동으로 달려가 손권에게 가도록 명령했다. 손권은 만충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모사들과 의논을 시작했다. 장소가 나서서 말했다. "위나라와 오나라는 본래 원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갈량의 말을 듣고 두 나라가 연이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뿐입니다. 이제 만충이 직접 찾아왔으니 분명 화친하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우를 갖추어 맞이하십시오." 손권은 그 말을 따라 여러 모사에게 명하여 만충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 만났었다. 예를 마친 후, 손권은 만충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다. 만충이 조조의 서신을 올리며 말했다. "오나라와 위나라는 예로부터 원한이 없었으나, 모두 유비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위왕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장군과 함께 형주를 공격하기로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위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한천 근처까지 진격하면, 앞뒤에서 유

비를 협공할 수 있습니다. 유비를 격파한 뒤에는 영토를 나누어 가질 것이며,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권은 서신을 다 읽은 뒤 만충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그를 숙소로 보내 편히 쉬게 했다.

손권이 여러 모사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고옹이 말했다. "비록 말뿐인 제안이라 해도 그 속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만충을 돌려보내 조조와 약속을 맺어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하고, 동시에 사람을 강 건너로 보내 관우의 동태를 살핀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자 제갈근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관우가 형주에 온 뒤 유비가 그에게 아내를 맞게 하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아직 어려서 아직 혼인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직접 가서 주공의 세자에게 혼담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관우가 허락한다면 관우와 힘을 합쳐 조조를 깨뜨릴 계책을 세울 것이요, 만약 관우가 거절한다면 그때 조조를 도와 형주를 취하겠습니다."

손권은 이 계책을 받아들여 먼저 만충을 허도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제갈근을 사신으로 삼아 형주로 보냈다. 제갈근이 성안에 들어가 관우를 만나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관우가 물었다. "제갈근, 그대가 여기까지 온 뜻이 무엇인가?"

제갈근이 대답했다. "두 집안의 인연을 맺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저희 주군께서는 매우 총명한 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장군께도 딸이 있다고 들었기에 특별히 혼사를 청하러 왔습니다. 두 집안이 화친을

맺어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니, 부디 깊이 생각해주시시오."

관우는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다. "내 호랑이 같은 딸을 어찌 저런 개 같은 자식에게 시집보내겠는가! 네 동생의 체면을 봐서 참는 것이지, 아니었다면 당장 네 목을 베었을 것이다! 다시는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고는 즉시 좌우 부하들을 불러 제갈근을 쫓아버렸다.

제갈근은 머리를 감싸 쥐고 쥐새끼처럼 황급히 도망쳐 손권에게 돌아왔다. 그는 감히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손권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 그러고는 즉시 장소 등 관원들을 불러 모아 형주를 차지할 방책을 논의했다. 보치가 말했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한나라의 천하를 찬탈하려 했으나,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신을 보내 오나라더러 군사를 일으켜 촉을 삼키게 하려 하니, 이는 오나라에 화를 떠넘기려는 속셈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 역시 형주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치가 이어 말했다. '지금 조인이 양양과 번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장강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할 수도 없으니 육로를 통해 형주를 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 취하지 않고 주군께 먼저 군사를 움직이라 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사신을 허도로 보내 조조를 만나게 하십시오. 조인에게 육로로 먼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게 한다면, 관우는 반드시 형주의 병력을 빼내어 번성을 공격하려 갈 것입니다. 그때 관우가 움직이면 주군께서는 장수 한 명을 보내 몰래 형주를 취하십시오.'

시오. 그러면 단번에 형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권은 그의 계책을 따랐다. 즉시 사신을 보내 강을 건너 조조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이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신을 먼저 돌려보낸 뒤, 곧바로 만충을 번성으로 보내 조인을 돕는 참모로 삼아 군사 작전을 논의하게 했다. 동시에 동오에 격문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수로로 지원하며 형주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한중왕 유비는 위연에게 군마를 총괄하여 동천(東川)을 지키게 한 뒤, 모든 관리와 함께 성도로 돌아갔다. 유비는 관리들을 시켜 궁궐을 짓게 하고, 성도에서 백수에 이르기까지 사백여 곳에 관사와 역참을 세웠다. 또한 식량과 군량을 넉넉히 비축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 증원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첩자가 조조가 동오와 결탁하여 형주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탐지하여 촉나라에 급히 보고했다. 한중왕 유비는 서둘러 제갈량에게 이 일을 알리며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분명 이런 계책을 세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라에는 모사가 워낙 많으니, 조조가 조인을 먼저 움직여 군사를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제갈량이 대답했다. '관우에게 사신을 보내 관직을 전달하고, 먼저 군사를 일으켜 번성을 공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군을 겁에 질리게 만든다면, 적의 결탁은 자연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중왕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전부사마 비시를 사신으로 삼아 임명장을 들고 형주로 보내게 했다. 관우가 성 밖으로 나가 비시를 맞이하여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공적인 예식을 모두 마친 뒤 관우가 물었다.

"한중왕께서 나에게 어떤 작위를 내리셨는가?"

비시가 대답했다.

"오호대장군의 첫째 자리입니다."

관우가 다시 물었다.

"그 다섯 명의 장수는 누구인가?"

비시가 말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입니다."

그러자 관우가 노하며 말했다.

"장비는 내 동생이고, 마초는 대대로 이름난 가문의 자제이며, 조운은 오랫동안 우리 형님을 모셔온 내 동생과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나와 나란히 직위를 받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황충은 대체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와 같은 반열에 들려 한단 말인가! 대장부가 어찌 늙은 병사와 한패가 될 수 있겠는가!"

관우는 결국 관직의 인장을 받기를 거부했다. 비시가 웃으며 말했다.

"장군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옛날 소하와 조참은 유방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나, 한신은 초나라의 패잔병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 소하와 조참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소하와 조참이 이를 원망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중왕께서 비록 오호대장군이라는 봉호를 내리셨으나, 장군

님과 같은 형제와 같은 의리를 나누며 한 몸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장군님이 곧 한중왕이요, 한중왕이 곧 장군님이니 어찌 다른 이들과 같겠습니까? 장군님께서 한중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으셨으니 마땅히 그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화복을 같이해야 합니다. 관직의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관우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 밑에 계신 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으니, 자칫 큰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인장을 받아 들었다. 한편, 비시는 막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관우에게 군사를 거느려 번성을 취하라고 일렀다. 관우는 명을 받들자마자 곧장 부사인과 미방 두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 한쪽으로는 군대를 이끌고 형주 성 밖에서 진을 치게 했으며, 다른 한쪽으로는 성 안에서 연회를 베풀어 비시를 극진히 대접했다. 술자리가 이경(밤 10시 무렵)까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성 밖 진영에서 불이 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관우가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성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부사인과 미방이 술을 마시다 장막 뒤에 남겨둔 불씨가 화포에 옮겨붙은 것이었다. 불길은 온 진영을 뒤흔들며 군기와 무기, 식량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불을 끄느라 애를 쓴 끝에, 사경(새벽 2시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관우가 성으로 돌아와 부사인과 미방을 불러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 둘에게 선봉을 맡겼거늘, 출정하기도 전에 군기와 군량미를 태워 버리고 화포가 터져 본대의 군사와 말까지 죽게 만들다니! 이토록 일을 그르쳐 놓고 너희를 어디에 쓰겠느냐!' 그러고는 당장 그들을 처형하라

고 명령했다. 그러자 비시가 나서서 말했다. '아직 출정 전인데 대장을 먼저 베는 것은 군사에 좋지 않습니다. 잠시 죄를 면해주십시오.' 관우는 화가 풀리지 않아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호통쳤다. '내가 비시의 면면을 봐서 참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너희 둘의 목을 베었을 것이다!' 관우는 무사들을 불러 각기 마흔 대씩 매질하게 하고, 선봉의 인장과 띠를 빼앗았다. 그리고 미방에게는 남군을 지키게 하고, 부사인에게는 공안을 지키게 하며 덧붙였다. '내가 승리하여 돌아오는 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두 죄를 모두 물어 엄벌할 것이다!' 두 사람은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채 대답하며 물러갔다. 관우는 곧바로 요화를 선봉으로, 관평을 부장으로 삼아 자신이 중군을 총괄하고 마량과 이적을 참모로 삼아 함께 정벌길에 올랐다. 한편, 예전에 호화의 아들 호반이 형주로 와서 관우에게 항복한 적이 있었다. 관우는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정을 생각하여 그를 매우 아꼈다. 관우는 호반에게 비시를 따라 촉나라로 가서 한중왕이 즉위하는 모습을 보라고 명했다. 비시는 관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호반을 데리고 촉나라로 돌아갔다.

한편, 관우는 그날 장수로서의 위엄을 상징하는 대기(大旗)에 제사를 지낸 뒤 장막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처럼 커다란 검은 돼지 한 마리가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관우의 왼쪽 발을 덩석 깨물었다. 관우는 크게 노하여 급히 칼을 뽑아 휘둘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비단을 찢는 듯 날카로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으나, 왼쪽 발에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의아하게 여긴 관우가 관평을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관평이 대답했다. '돼지에게도 용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용이 발에 붙었다는 것은 승승장구하여 솟구쳐

오른다는 뜻이니, 의심하거나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우가 장막 아래에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이 꿈의 징조를 말하자, 어떤 이는 길조라 하고 어떤 이는 흉조라 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관우가 말했다. '대장부가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죽는다 한들 무엇이 아쉽겠는가!' 말을 마칠 무렵, 촉나라의 사신이 도착하여 한중왕의 명을 전했다. 관우를 전장군에 임명하고, 절월(假節鉞)의 권한을 내려 형주와 양양 9군을 도독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관우가 명을 받자 장수들이 모두 절하며 축하하며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돼지가 용이 된다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그제야 관우는 의심을 거두고, 군사를 일으켜 양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따라 진격했다.

조인이 성안에 있을 때, 갑자기 관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몰려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인은 크게 놀라 성을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부장 적원이 말했다. "지금 위나라 왕께서 장군께 동오와 협력하여 형주를 취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저들이 스스로 찾아오니 죽으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하여 피하려 하십니까?"

참모 만충이 간언했다. "저는 평소 관우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략도 갖춘 인물임을 잘 알고 있으니, 가볍게 적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용맹한 장수 하후존이 말했다. "그것은 선비들의 말일 뿐입니다.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고, 적이 오면 군사로 맞힌다'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 군이 쉬면서 적을 상대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은 그의 말을 따라 만충에게 번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관우를 맞으러 나갔다. 관우는 조조의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관평과 요화 두 장수를 불러 계책을 전한 뒤 길을 떠났다. 이윽고 관우의 군대와 조조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마주 보며 대치했다.

료화가 말을 타고 나가 싸움을 걸자 적원이 마중을 나갔다. 두 장수가 얼마간 싸우더니, 료화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말을 돌려 달아났다. 적원이 그 뒤를 쫓아 추격하자 형주 군사들은 20리나 밀려났다. 다음 날,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다. 이번에는 하후존과 적원이 함께 마중을 나갔으나 형주 군사들에게 다시 패하고 말았다. 형주 군사들이 20여 리를 더 추격하던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조인이 급히 전방 군사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명령했으나, 뒤에서는 관평과 료화가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쳐 조조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조인은 이것이 함정임을 깨닫고, 우선 한 부대를 이끌고 양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성에서 몇 리 떨어진 곳에 이르자, 앞쪽에서 화려한 깃발이 휘날리며 관우가 말을 멈춰 세우고 칼을 가로막으며 길을 차단했다. 조인은 간담이 서늘해져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양양으로 가는 샅길을 찾아 달아났다. 관우는 굳이 쫓아가지 않았다. 잠시 후 하후존의 군사가 도착하여 관우를 발견하고는 크게 분노하여 달려들었으나, 단 한 합 만에 관우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적원 역시 달아나려 했으나 관평에게 따라잡혀 칼에 베였다. 형주 군사들은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하니, 조조의 군사 태반이 양강에서 죽임을 당했다. 조인은 결국 번성으로 물러나 수비에 들어갔다.

관우는 양양을 탈환한 뒤, 군대를 격려하고 백성을 보살폈다. 이때 수행 사마인 왕보가 말했다. '장군께서 북소리 한 번에 양양을 함락시키셨으니 조조의 군사들이 겁에 질려 달아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나라의 여몽이 육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늘 형주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만약 저들이 군사를 몰아 곧장 형주로 쳐들어온다면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나 역시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대가 이 일을 맡아 처리하라. 강줄기를 따라 위아래로 20리나 30리 간격마다 높은 언덕을 골라 봉화대를 세우도록 하라. 각 봉화대에는 50명의 군사를 배치해 지키게 하라. 만약 오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온다면 밤에는 밝은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격퇴하겠다.' 왕보가 다시 말했다. '미방과 부사인에게 두 요충지를 지키게 했으나, 그들이 온 힘을 다할지 걱정됩니다. 형주를 총괄할 인물을 한 명 더 얻어야겠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이미 치중인 반준을 보내 지키게 했으니 무엇을 걱정하는가?' 왕보가 말했다. '반준은 평소 의심이 많고 이익을 탐하는 자라 믿고 맡기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군 전방의 도독 양료관인 조루를 대신 보내십시오. 조루는 충성스럽고 청렴한 사람이라 그를 쓰신다면 결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우가 말했다. '나는 평소 반준의 성품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임무를 맡겼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 조루가 지금 양료관을 맡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 그대는 의심을 거두고 어서 가서 봉화대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 왕보는 못내 아쉬워하며 물러갔다. 관우는 관평에게 양강을 건널 배를 준비하게 하여 번성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게 했다.

한편, 조인이 두 장수를 잃고 번성으로 물러나 지키며 만충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군사가 패하고 장수를 잃었으며, 양양마저 빼앗겼으니 이제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만충이 대답했다. “관우는 용맹할 뿐만 아니라 지략도 뛰어난 장수이니, 결코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관우가 강을 건너와 번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인은 크게 놀랐다. 만충이 다시 말했다. “그저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부장 여상이 기세 좋게 나서며 말했다. “내게 병사 수천 명을 주십시오. 반드시 양강 안쪽까지 가서 적을 맞이하겠습니다.” 만충이 말렸다. “안 됩니다.” 여상이 화를 내며 외쳤다. “그대 같은 문관들의 말만 듣고 그저 지키기만 해서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단 말ियो? 병법에 이르기를 ‘군사가 강을 절반쯤 건넌 때를 노려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소? 지금 관우가 양강을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어찌 공격하지 않는단 말ियो? 만약 적이 성 밑까지 들어닥쳐 해자 앞까지 다가오면 그때는 급히 막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요.” 조인은 즉시 병사 이천 명을 주어 여상을 번성 밖으로 내보내 맞서게 했다. 여상이 강가에 이르니, 앞쪽에서 화려한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서 관우가 칼을 옆으로 차고 말을 타고 나타났다. 여상이 맞서 싸우려 했으나, 뒤에 있던 군사들은 관우의 위엄에 놀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먼저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상이 소리치며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관우가 거침없이 몰아치며 공격하자 조조의 군사는 대패하였고, 기병과 보병의 태반이 쓰러졌다. 패잔병들이 번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자, 조인은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안으로 달려가 조조에게 서신을 올리며 말했다. “관우가 양양을 격

파하고 지금 번성을 매우 급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장을 보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조가 부하 중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가서 번성의 포위를 풀어라." 그 사람이 대답하며 나가니,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우금이었다. 우금이 말했다. "제가 선봉을 맡을 장수 한 명을 구하여 함께 가겠습니다." 조조가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가 감히 선봉을 맡겠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기운차게 나서며 외쳤다. "제가 개나 말처럼 미천한 힘이라도 다해, 반드시 관우를 생포하여 주군 앞에 바치겠습니다!" 조조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동오가 틈을 노리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북위가 먼저 병력을 보태는구나.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74회 — 방령명이 관을 메고 결사적으로 싸우고, 관운장이 물을 방류하여 칠군을 수몰시키다

龐令明擡櫓決死戰 關雲長放水淹七軍

한편, 조조는 우금에게 7군을 주어 번성을 구원하게 하려 했다. 조조가 장수들에게 누가 선봉을 맡겠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즉시 나서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조조가 살펴보니 바로 방덕이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관우의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켜 아직 적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방덕을 만나니 참으로 강력한 적수를 만났구나." 조조는 우금을 정남장군으로, 방덕을 정서도선봉으로 임명하고 7군을 크게 일으켜 번성으로 향하게 했다. 이 7군은 모두 북방 출신의 건장한 병사들이었다. 우금의 휘하에는 동형과 동초라는 두 장교가 있었는데, 그날 각 부대의 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우금을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이때 동형이 말했다. "지금 장군께서 7군의 정예병을 이끌고 번성의 위기를 구하러 가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방덕을 선봉으로 세우시니,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우금이 놀라 그

이유를 묻자 동형이 대답했다. "방덕은 원래 마초의 부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위나라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의 옛 주군인 마초는 지금 촉에서 '오호상장'의 직위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친형인 방유 또한 서천에서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선봉으로 세우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으니, 장군께서 어찌하여 위왕께 이 사실을 보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는 즉시 밤을 도와 관아로 들어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그 사정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곧바로 방덕을 불러 계단 아래로 내려오게 한 뒤 선봉의 인장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방덕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소인이 대왕을 위해 힘을 보태려 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써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나는 본래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요. 다만 지금 마초가 서천에 있고, 그대의 형인 방유 또한 서천에서 유비의 보좌를 하고 있지 않소? 내가 설령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소?"

방덕은 그 말을 듣고 모자를 벗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간곡히 말했다. "소인은 한중에서 대왕께 항복한 이후, 매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간과 뇌를 땅에 쏟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의심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형님과 함께 살았는데, 형수님이 매우 어리석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제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죽였습니다. 그 일로 형님은 저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형제간의 은혜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또한 옛 주군인 마초는 용맹하기만 하고 지략이 없어 군대를 잃고 나라를 망친 뒤 홀로 서천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와 마초는 각기 다른 주군을 모시고 있으니 옛 의리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소인이 대왕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감히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부디 대왕께서 살피 주십시오.”

조조는 방덕을 부축해 일으키며 달래듯 말했다. “나는 평소 그대의 충성심과 의리를 잘 알고 있소. 방금 한 말은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을 뿐이오. 그대는 부디 힘써 공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대가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결코 그대를 저버리지 않겠소.”

방덕은 집으로 돌아가 목수에게 명하여 나무 관 하나를 만들게 했다. 이튿날, 그는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대청에 그 관을 놓아두었다. 친우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장군께서 출정하시는데 어찌 이런 불길한 물건을 가져다 놓으셨습니까?" 방덕은 잔을 들어 친우들에게 말했다. "나는 위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반드시 죽음으로써 보답하리라. 이제 번성으로 가서 관우와 결전을 벌일 것인데,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요, 설령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요. 그러니 미리 이 관을 준비하여,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감탄했다. 이어 방덕은 아내 이씨와 아들 방회를 불러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선봉에 서니, 마땅히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켜야 하오. 만약 내가 죽거

든, 부디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내 아들은 범상치 않은 관상을 타고났으니, 자라서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요." 아내와 자식이 통곡하며 배웅하자, 방덕은 관을 부축한 채 길을 떠났다. 출정하기 직전, 방덕은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내가 이제 관우와 사투를 벌이러 가는데, 만약 내가 관우에게 죽임을 당하면 너희는 서둘러 내 시신을 가져다가 이 관에 넣어라. 만약 내가 관우를 죽인다면, 그 머리를 베어 이 관에 넣고 위왕께 바칠 것이다." 부하 장수 오백 명은 모두 외쳤다. "장군께서 이토록 충성스럽고 용맹하시니, 저희가 어찌 온 힘을 다해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조는 기뻐하며 말했다. "방덕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이 정도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그러자 가후가 말했다. "방덕이 혈기만 믿고 관우와 결사전을 벌이려 하니, 신은 그것이 우려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 방덕에게 엄명을 전하게 했다. "관우는 지혜와 용맹을 모두 갖춘 자이니, 절대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승산이 있으면 공격하되, 승산이 없다면 마땅히 신중히 수비해야 한다." 방덕은 명을 듣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대왕께서 어찌하여 관우를 그토록 높게 평가하시는가? 내가 이번 싸움으로 관우의 명성을 30년은 깎아내릴 것이다." 우금이 말했다. "위왕의 말씀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덕은 기세 좋게 군사를 몰아 번성으로 진격하여, 징과 북을 울리며 위세를 떨쳤다.

한편, 관우는 장막 안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정찰병이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조조가 우금을 장수로 삼아 정예병 7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선봉장인 방덕은 군대 앞에서 나무 관을 메고 다니며, 장군과 반드시 생사를 걸고 싸우겠다고 오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성에서 겨우 30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우는 안색이 급변하며 아름다운 수염을 휘날렸다. 관우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천하의 영웅들 중 내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방덕 저 애송이가 어찌 감히 나를 업신여긴단 말이냐! 관평아, 너는 번성을 공격하거라. 나는 직접 가서 저 무지몽매한 자를 베어 내 분풀이를 하겠다!"

그러자 관평이 말했다.

"아버지, 태산 같은 무계를 가진 분께서 어찌 길가의 돌덩이와 높이를 겨루려 하십니까. 부디 저를 보내 방덕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관우가 대답했다.

"네가 먼저 한번 가보아라. 나도 곧 뒤따라가서 너를 돕겠다."

관평이 장막을 나서서 칼을 들고 말에 올라 병사들을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다. 두 진영이 마주 선 가운데, 위나라 진영의 검은 깃발에는 '남안 방덕'이라는 네 글자가 흰색으로 크게 쓰여 있었다. 방덕은 푸른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강철 칼을 든 채 백마를 타고 진영 앞에서 있

있으며, 그 뒤로는 오백 명의 군사가 바짝 따르고 있었다. 또한 몇 명의 보병이 어깨로 나무 관을 메고 뒤따라 나왔다.

관평이 방덕을 향해 크게 꾸짖었다. "주인을 배신한 도적놈아!"

방덕이 부하에게 물었다. "저 자는 누구냐?" 어떤 이가 대답했다. "저분은 관우의 양자인 관평입니다."

그러자 방덕이 소리쳤다. "나는 위나라 왕의 명을 받들어 네 아버지의 목을 베러 왔다! 너 같은 애송이는 죽이지 않을 테니, 어서 네 아버지를 불러오너라!"

관평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방덕을 공격했다. 방덕 역시 칼을 가로지르며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서른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각자 잠시 물러났다.

관우에게 이미 상황을 보고한 사람이 있었다. 관우는 크게 노하여 료화에게 번성을 공격하라 명하고, 자신은 직접 방덕을 맞으러 나섰다. 관평이 먼저 나서서 방덕과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자 관우가 즉시 칼을 옆으로 차고 말을 몰아 나가며 크게 외쳤다.

“나 관우가 여기 있다! 방덕은 어찌하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제야 나타났느냐!”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덕도 말을 몰아 나오며 말했다.

“나는 위나라 왕의 명을 받들어 네 목을 취하러 왔다! 네가 믿지 못할까 봐 관을 미리 준비해 왔으니, 죽는 것이 두렵거든 어서 말에서 내려 행복하라!”

관우가 크게 꾸짖었다.

“네놈 같은 애송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깝게도 내 청룡도가 너 같은 도둑놈을 बे게 생겼구나!”

관우는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방덕을 덮쳤고, 방덕 또한 칼을 휘둘러 맞섰다. 두 장수가 백여 합을 넘게 싸우자 기세가 더욱 드높아졌다. 양측 군사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위나라 군대는 방덕이 다칠까 두려워 급히 징을 울려 군사를 물리고, 관우의 아들 관평은 아버지가 연로하신 것을 걱정하여 역시 급히 징을 울렸다. 두 장수는 각자 물러났다.

방덕이 진영으로 돌아와 장수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관우를 영웅이라 칭송하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믿겠구나.”

방덕이 말을 하는 도중에 우금이 도착했다. 두 사람이 만나자 우금이 말했다.

“장군께서 관우와 백여 합을 싸우고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들었소. 어찌하여 일단 군사를 물려 그를 피하지 않으셨소?”

방덕이 분연히 대답했다.

“위나라 왕께서 장군을 대장으로 임명하셨거늘, 어찌 그리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내일 관우와 생사를 걸고 싸울 것이니,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금은 감히 더 말리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편, 관우가 진영으로 돌아와 관평에게 말했다. "방덕의 도법이 아주 능숙하니, 참으로 나의 적수라 할 만하구나." 관평이 대답했다. "사람들 말에 '갓 태어난 송아지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령 저 자를 베신다 해도 그저 서강의 일개 병졸일 뿐이지만, 혹여 실수라도 하신다면 큰아버지의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관우가 말했다. "내가 저 자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원한을 풀겠느냐?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는 말하지 말거라!" 다음 날, 관우가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방덕 역시 군사를 이끌고 맞이하러 나왔다. 양쪽 진영이 마주 서자 두 장수가 동시에 달려 나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곧장 맞붙었다. 쏜 합 넘게 싸우던 중, 방덕이 말을 돌리며 도를 끌고 달아나는 척했다. 관우가 그 뒤를 쫓았고, 관평도 혹시 모를 실수를 우려해 뒤를 따랐다. 관우가 뒤에서 크게 꾸짖었다. "방덕 이 도적놈아, 끌고 달아나는 계책을 쓰려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알고 보니 방덕은 도를 끌고 가는 척만 했을 뿐, 사실은 도를 안장에 걸어 고정해 두고 몰래 활을 꺼내 화살을 메고 있었다. 관평이 눈치 빠르게 방덕이 활을 당기는 것을 보고 크게 외쳤다. "도적 장수가 비겁하게 화살을 쏘려 한다!" 관우가 급히 눈을 떠 확인하려 했으나, 활시위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화살이 이미 날아오고 있었

다. 미처 피하지 못한 화살은 관우의 왼팔에 정통으로 박혔다. 관평이 즉시 말로 달려와 아버지를 구출해 진영으로 돌아왔다.

방덕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데, 갑자기 본진에서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방덕은 후방에 변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히 말을 돌려 돌아갔다. 알고 보니 우금이 방덕이 관우에게 화살을 맞히는 것을 보고, 방덕이 큰 공을 세워 자신의 위신이 깎일까 두려워 군사를 물리고 징을 울린 것이었다. 방덕은 말을 돌려 왜 갑자기 군사를 거두느냐고 물었다. 우금이 말했다. "위왕께서 경고하시기를, 관우는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자라 한다. 비록 화살에 맞았으나 혹시 함정일지 모르니, 일단 군사를 거두어 물러나야 한다." 방덕이 말했다. "군사를 거두지 않았다면 제가 벌써 저 자를 베었을 것입니다." 우금이 대답했다. "서두른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 천천히 도모해야 한다." 방덕은 우금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쉬움에 가슴을 쳤다.

한편, 관우는 진영으로 돌아와 화살촉을 뽑아냈다. 다행히 화살이 깊이 박히지는 않아 금창약을 바르고 조치를 취했다. 관우는 방덕에게 화살을 맞은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 반드시 이 화살로 입은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 장수들이 대답했다. "장군, 우선 며칠간 안정을 취하며 몸을 추스르십시오. 그 후에 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방덕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관우는 즉시 출전하려 했으나 장수들이 만류했다. 방덕은 부하들

을 시켜 옥설을 퍼부으며 도발했다. 관평은 길목을 지키며 장수들에게 관우에게 더는 방덕의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일렀다.

방덕이 열흘 넘게 싸움을 걸었으나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자, 방덕은 우금과 상의하며 말했다. "관우의 화살 상처가 덧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차라리 이 기회를 틈타 7군을 이끌고 단숨에 진영으로 쳐들어간다면, 번성의 포위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금은 방덕이 공을 세울까 두려워하며, 그저 조조의 경계령을 핑계 삼아 군사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방덕이 몇 번이나 군사를 움직이자고 재촉했으나 우금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우금은 7군을 이끌고 산길을 돌아 번성 북쪽 10리 지점까지 이동하여 산 아래에 진을 쳤다. 그러고는 우금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큰길을 가로막아, 방덕이 계곡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방덕이 공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편, 관평은 관우의 화살 상처가 다 나은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그때 갑자기 우금이 일곱 군단을 이끌고 번성 북쪽으로 이동해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관평은 즉시 관우에게 보고했다. 관우는 곧바로 말을 타고 기병 몇 명을 거느린 채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그곳을 살폈다. 번성의 성벽 위에는 깃발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군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번성 북쪽 십 리 떨어진 산골짜기에는 군마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양강의 물살 또한 매우 급하게 흐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관우가 길 안내를 맡은 관리에게 물었다. "번성 북쪽 십 리 산골짜기의 지명이 무엇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쟁구천이라 합니다." 그러자 관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금은 반드시 내 손에 잡히겠구나!" 군사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관우가 말했다. "'물고기'가 '그물 입구'에 들어갔으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장수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관우는 일단 본진으로 돌아왔다.

마침 8월 가을이라 며칠 동안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다. 관우는 사람을 시켜 배와 뗏목을 준비하게 하고 물놀이 도구들을 챙기도록 했다. 관평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육지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물놀이 도구가 필요합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금의 일곱 군단은 넓고 평탄한 곳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쟁구천의 험하고 좁은 곳에 모여 있다. 지금 가을비가 연달아 내리고 있으니 양강의 물이 반드시 불어날 것이다. 나는 이미 사람을 보내 곳곳의 물길을 막아두었으니, 물이 터져 나올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배를 타고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 번성과 쟁구천의 병사들은 모두 물고기와 자라 신세가 될 것이다." 관평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위나라 군대는 쟁구천에 진을 쳤으나 며칠째 큰비가 그치지 않았다. 장수 성하가 우금을 찾아가 말했다. "대군이 강 입구에 진을 쳤는데 지세가 너무 낮습니다. 흙산이 있긴 하나 진영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을비가 계속 내리면 군사들이 매우 고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형주 군사들이 높은 언덕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수구에서 전투용 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강물이 넘치면 우리 군이 위험해질 것이니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금이 꾸짖으며 말했다. "네놈이 감히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느냐! 한 번만 더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목을 칠 것이다!" 성하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으나, 곧장 방덕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방덕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우 장군께서 군사를 옮기려 하지 않으시니, 내일 내가 직접 군사를 옮겨 다른 곳에 진을 치겠소."

계획을 막 세웠을 때, 그날 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방덕이 막사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만 마리의 말이 달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왔다. 방덕이 깜짝 놀라 급히 막사를 나와 말에 올라타 살펴보니, 사방팔방에서 갑자기 큰 물줄기가 밀려오고 있었다. 7군이 혼란에 빠져 도망치는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군사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평지였던 곳은 어느새 물이 한 길 넘게 차올랐다. 우금과 방덕, 그리고 여러 장수는 급히 작은 산으로 올라가 물을 피했다.

날이 밝자 관우와 장수들이 깃발과 북을 울리며 커다란 배를 타고 나타났다. 우금은 사방이 막혀 도망갈 길이 없고 곁에 남은 이도 겨우 쉰 예수 명뿐이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관우는 그들에게 갑옷과 의복을 모두 벗게 한 뒤 배로 압송하게 하고, 곧이어 방덕을 잡으러 나섰다.

한편, 방덕은 동형, 동초, 성하와 함께 보병 500명을 거느리고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방덕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러 나갔다. 관우가 배를 사방으로 배치해 포위하자,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어 위나라 병사 태반을 사살했다. 상황이 위태로워진 것을 본 동형

과 동초가 방덕에게 말했다. "군사들이 대부분 쓰러지고 사방이 막혔으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방덕이 크게 노하며 외쳤다. "나는 위나라 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남에게 굴복하겠느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동형과 동초를 직접 베어버리며 엄하게 꾸짖었다. "다시 항복을 입에 담는 자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의 본모기를 따를 것이다!" 이 말에 군사들은 모두 힘을 다해 적을 막아냈다. 전투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고, 싸움이 계속될수록 기세는 더욱 드높아졌다. 관우가 사방에서 급히 공격을 재촉하자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방덕은 군사들에게 단병(짧은 무기)을 들고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방덕이 성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용맹한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기개 있는 장사는 절개를 꺾으며 살길을 찾지 않는 법이라 들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너는 부디 힘을 다해 싸워라." 성하가 그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섰으나, 관우가 쏜 화살에 맞아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다른 군사들은 모두 항복했으나, 오직 방덕 혼자만이 끝까지 싸웠다. 이때 형주에서 온 수십 명의 병사가 작은 배를 타고 제방 가까이 다가오자, 방덕은 칼을 치켜들고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순식간에 열댓 명을 베어 넘겼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구걸하며 달아났다. 방덕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를 저으며 번성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상류 쪽에서 한 장수가 커다란 뗏목을 저어 오더니 작은 배를 들이받아 뒤집어버렸고, 방덕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배 위의 장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방덕을 생포해 배 위로 끌어올렸는데, 지켜보던 이들은 그를 잡은 장수가 주창임을 알게 되었다. 주창은 본래 수영에 능한 데다 형주에서 수년간 머물며 물길에 매우 익숙했고, 힘까지 장사였기에 방덕을 잡을 수 있었다. 우

금이 이끌던 7군은 모두 물속에서 죽거나, 수영을 할 줄 아는 자들도 도망갈 길이 없음을 깨닫고 모두 항복했다. 훗날 누군가 이 광경을 보고 시를 읊었다. "한밤중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양강과 번성 일대는 거대한 못이 되었구나. 관우의 신묘한 계책을 누가 따를 수 있으랴, 화하 땅의 위엄 있는 이름 만고에 전하리라!"

관우는 높은 언덕으로 돌아와 막사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칼을 든 병사들이 우금을 끌고 왔다. 우금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며 간청했다.

관우가 말했다.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대항하느냐?"

우금이 대답했다. "윗분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를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죽음으로써 죄를 갚겠습니다."

관우가 수염을 쓸어 넘기며 웃으며 말했다. "너를 죽이는 것은 개나 돼지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괜히 내 칼날만 더럽히겠구나!"

관우는 병사들에게 우금을 묶어 형주 감옥에 가두게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로 처분하겠다"라고 명했다. 우금을 끌고 간 뒤, 관우는 다시 방덕을 끌고 오게 했다. 방덕은 눈을 부릅뜨고 노기 등등한 모습으로 서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관우가 말했다. "네 형은 지금 한중에 있고, 네 옛 주군인 마초 또한 서천에서 큰 장수로 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느냐?"

방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차라리 칼 아래에서 죽을지언정, 너에게 항복할 수는 없다!"라며 실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관우도 크게 화가 나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방덕을 끌어내 처형하게 했다. 방덕은 기꺼이 목을 내놓고 형을 받았다. 관우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관우는 아직 물세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전함에 올라 크고 작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번성을 공격하러 나갔다.

한편, 번성 주변은 거센 파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렁였고 물살은 갈수록 거세졌다. 성벽은 점점 물에 잠겨 무너져 내렸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흙과 벽돌을 날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조인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겁에 질려 허둥지둥 조인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조인이 말했다. "오늘의 위기는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적군이 도착하기 전에 배를 준비해 밤을 틈타 도망가자. 비록 성은 잃더라도 몸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인이 막 배를 준비해 떠나려 할 때, 만총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산과 강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이 어찌 오래 머물겠습니까? 열흘도 안 되어 물은 저절로 빠질 것입니다. 관우가 아직 성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다른 장수를 겁(郈) 땅에 보내 두었습니다. 그가 감히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군사가 뒤를 공격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성을 버리고 떠난다면, 황하 이남의 땅은 더 이상 국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이 성을 굳건히 지켜 나라의 보루로 삼아 주십시오." 조인이 손을 모아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만총, 자네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네." 조인은 곧바로 백마를 타고 성

위로 올라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맹세하게 했다. "나는 위왕의 명을 받아 이 성을 지키고 있다.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자가 있다면 즉시 참할 것이다!" 장수들이 일제히 외쳤다. "저희도 죽기로 성을 지키겠습니다!" 조인은 크게 기뻐하며 성 위에 수백 대의 활과 노를 설치했다. 군사들은 밤낮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어에 힘썼으며, 마을의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돌을 날라 성벽을 보수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물살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다.

관우가 위나라 장수 우금 등을 사로잡은 뒤,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키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 관우의 차자인 관흥이 부친을 뵈기 위해 진영으로 찾아왔다. 관우는 관흥에게 여러 장수가 세운 공적이 적힌 문서를 챙겨 성도로 가서 한중왕을 만나게 한 뒤, 각자의 승진을 청하라고 일렀다. 관흥은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성도로 떠났다.

한편, 관우는 군사 절반을 나누어 겹(郿) 땅까지 진격시켰다. 그리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방에서 번성을 몰아쳤다. 그날 관우가 번성의 북문에 이르자, 즉시 말채찍을 휘두르며 적을 향해 외쳤다. "이 비겁한 쥐새끼 같은 놈들아! 어서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말을 내뱉는 순간, 성루 위에 있던 조인이 관우를 보았다. 관우는 가슴을 가리는 갑옷만 걸친 채 초록색 도포를 어깨 너머로 느슨하게 걸치고 있었다. 조인은 급히 오백 명의 궁수들을 불러 모아 일제히 화살을 쏘게 했다. 관우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피하려 했으나, 그만 오른쪽 팔에 화살한 대를 맞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물속에서 칠군이 혼비백산할

때, 성 안에서 날아온 화살 한 대에 관우가 상처를 입었으니, 과연 관우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5회 — 관운장이 뼈를 깎아 독을 치료하고, 여몽이 흰 옷을 입고 강을 건넌다

關雲長刮骨療毒 呂子明白衣渡江

한편, 조인이 관우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돌격해 나왔다. 하지만 관평이 기세 좋게 몰아붙여 조인을 물리치고 관우를 구해 진영으로 돌아왔다. 관우의 팔에 박힌 화살을 뽑아보니, 화살촉에 독이 묻어 있어 이미 독이 뼈까지 스며든 상태였다. 오른쪽 팔은 푸르게 부어올라 움직일 수도 없었다.

관평이 다급히 장수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아버지의 팔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잠시 형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관평은 장수들을 데리고 관우가 있는 막사로 들어갔다. 관우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장수들이 대답했다. "장군님의 오른쪽 팔이 상하신 것을 보고, 적과 맞설 때 혹여 큰 화를 입으실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시 군사를 물리고 형주로 돌아가 치료를 받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노하며 말했다. "내가 번성을 취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 번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곧장 진격하여 허도까지 쳐들어가 조조를 소탕하고 한나라 황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어찌 작은 상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감히 우리 군의 사기를 꺾으려 드는 것이냐!"

관평과 장수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물러났다.

장수들은 관우가 퇴각을 거부하고 상처도 낫지 않자, 사방으로 명의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동에서 작은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진영 앞까지 찾아왔다. 하급 관리가 관평을 불러 그를 소개했다. 관평이 그를 살펴보니, 넓은 옷을 입고 팔에는 약 상자를 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패국 초군 사람이며 성은 화, 이름은 타, 자는 원화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었다. "관 장군께서 천하의 영웅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독화살에 맞으셨다고 하여 치료해 드리러 왔습니다."

관평이 물었다. "혹시 예전에 동오의 주태를 치료해 주셨던 분이십니까?" 화타가 대답했다. "그렇소." 관평이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과 함께 화타를 관우의 막사로 안내했다. 당시 관우는 팔의 통증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랑과 바둑을 두던 중이었다. 의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관우는 즉시 그를 불러 예우를 갖추어 앉힌 뒤 차를 대접했다. 차를 다 마시자 화타가 팔을 살펴봐 달

라고 청했다. 관우가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을 내밀자 화타가 말했다. "이것은 노궁(쇠뇌) 화살에 맞은 것인데, 화살촉에 묻은 오두의 독이 뼈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 팔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관우가 물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화타가 대답했다. "제게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두려워하실까 걱정될 뿐입니다."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담담하게 여기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화타가 다시 말했다. "조용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큰 고리를 박아야 합니다. 장군께서 팔을 그 고리에 끼우고 줄로 묶으신 뒤, 머리에 이불을 덮으셔야 합니다. 제가 날카로운 칼로 살을 가르고 뼈까지 파헤쳐 뼈에 붙은 독을 긁어낸 다음, 약을 바르고 실로 상처를 꿰매야 합니다. 그래야 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겁을 내실까 봐 걱정입니다."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 쉬운 일이라면 어찌 기둥과 고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러고는 술상을 차려 화타를 대접하게 했다.

관우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마량과 바둑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팔을 뻗어 화타에게 수술을 받게 했다. 화타가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자, 부하 하나가 커다란 대야를 관우의 팔 아래 받쳐 들고 흐르는 피를 담을 준비를 했다. 화타가 말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후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그대는 마음껏 치료하게나. 내가 어찌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통증을 두려워하겠는가?"

화타가 칼을 넣어 살을 가르고 뼈가 보일 때까지 파고들었는데, 뼈 위에는 이미 독기가 푸르게 서려 있었다. 화타가 칼로 뼈를 긁어내자 서걱서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사 안팎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관우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바둑을 두느라 고통스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잠시 후 피가 가득 고였다. 화타가 독기를 말끔히 긁어낸 뒤 약을 바르고 실로 상처를 꿰매었다.

관우는 크게 웃으며 일어나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 팔을 움직여 보니 예전처럼 자유롭고 전혀 아프지 않구나. 선생은 참으로 신의로다!" 화타가 감탄하며 말했다. "의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군후께서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신인과 같으십니다!" 훗날 사람들은 관우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병을 고치려면 내과와 외과를 나누어야 하거늘, 세상에 이토록 절묘한 기술은 드물구나. 그 위엄은 따라갈 자가 없으니 오직 관우뿐이요, 그 신묘한 손길은 화타를 능가하도다."

관우의 화살 상처가 낫자, 그는 잔치를 베풀어 화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화타가 말했다. "화살 상처는 비록 다 나았으나, 앞으로도 각별히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어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 일 정도 지나면 예전처럼 깨끗이 회복될 것입니다." 관우가 금 백 냥을 주며 사례하려 하자 화타가 말했다. "저는 관우 장군님의 높은 의로움을 듣고 오직 치료해 드리기 위해 왔을 뿐이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화타는 단호히 거절하며 상처 부위에 바를 약 한 첩을 남겨두고는 작별을 고하며 떠났다.

한편,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베니 그 위세가 대단하여 화하 땅 전체가 깜짝 놀랐다. 정찰병이 이 소식을 허도에 보고하자 조조는 크게 놀라며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나는 평소 관우의 지혜와 용맹이 세상을 덮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형주를 차지하고 있으니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린 격이다. 우금은 사로잡히고 방덕은 죽었으니 위나라 군대의 기세가 꺾였다. 만약 그가 군사를 이끌고 허도까지 쳐들어온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나는 천도를 해서라도 그를 피하고 싶구나."

그러자 사마의가 간언했다.

"안 됩니다. 우금 등이 사로잡힌 것은 물에 잠겨 싸워보지도 못한 탓이지, 싸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국가의 대계에는 본래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 손권과 유비의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관우가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 손권이 분명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사신을 동오에 보내 이해득실을 잘 설명하십시오. 손권이 몰래 군사를 일으켜 관우의 뒤를 치게 하고, 허도의 일이 평정되는 날 강남의 땅을 떼어 손권에게 봉한다면 번성의 위기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주부 장제도 거들었다.

"사마의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즉시 사신을 동오로 보내면 될 일이지, 천도를 하여 백성들을 동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천도를 포기했다. 그리고는 장수들을 보며 탄식하며 말했다.

"우금은 나를 모신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 어찌 방덕만도 못하단 말이나! 이제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 동오에 서신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큰 장수를 보내 관우의 기세를 막아야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 있던 한 장수가 대답하며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가 살펴보니 바로 서황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정병 5만 명을 뽑아 서황을 장수로, 여건을 부장으로 삼아 출정시켰다. 군대는 정해진 날에 출발하여 양릉파에 이르러 주둔한 뒤, 동남쪽에서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진격하기로 했다.

한편, 손권은 조조의 편지를 받아 읽고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즉시 답장을 써서 사자를 보내 먼저 돌려보낸 뒤, 문무백관을 모아 모의했다. 장소가 말했다. "최근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베어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조조는 그 기세를 피하려고 수도를 옮기려 합니다. 지금 번성이 위급하여 구원 요청을 보내왔으나, 일이 마무리된 뒤에 상황이 뒤바뀔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손권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여몽이 작은 배를 타고 육구에서 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보고했다. 손권이 그를 불러 물으니 여몽이 말했다. "지금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번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그가 멀리 나간 틈

을 타 형주를 습격해야 합니다." 손권이 물었다. "나는 북쪽의 서주를 취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여몽이 대답했다. "지금 조조는 하북에 멀리 나가 있어 동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서주는 지키는 병사가 많지 않아 가서 점령하기는 쉬우나, 그 땅은 지세가 육전에는 유리해도 수전에는 불리합니다. 설령 얻는다 해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형주를 취해 장강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더 좋은 방책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도 본래 형주를 취하려 했으나, 방금 한 말은 그대를 시험해 본 것이오. 그대는 어서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오. 나도 곧 뒤따라 군사를 일으키겠소." 여몽은 손권에게 인사를 올리고 육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일찍이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강을 따라 20리 혹은 30리마다 높은 언덕 위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형주의 군사들이 정돈된 상태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여몽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급히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방금 손권 앞에서 형주를 취하자고 권했는데, 이제 어찌 처신해야 한단 말인가?" 한참을 궁리해도 방도가 없자, 결국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으며 사람을 시켜 손권에게 보고하게 했다. 손권은 여몽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이때 육손이 나아가 말했다. "여몽의 병은 거짓일 뿐, 진짜 병이 아닙니다." 손권이 말했다. "육손이 그 거짓을 알았다면, 직접 가서 살펴보아라."

육손은 명을 받들어 그날 밤 육구채에 도착해 여몽을 만났으나, 여몽의 얼굴에는 과연 병색이 전혀 없었다. 육손이 말했다. "제가 손권의 명을 받들어, 여몽 장군께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문안하러 왔습니다." 여몽이 대답했다. "몸이 잠시 좋지 않을 뿐인데, 어찌 이리 수고스럽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손이 다시 물었다. "손권께서 장군에게 중책을 맡기셨는데, 어찌하여 때를 놓치고 가만히 앉아 마음만 줄이고 계시는 겁니까?" 여몽은 육손을 뵈히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육손이 다시 말했다. "제게 작은 방책이 하나 있는데, 장군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여몽은 좌우의 부하들을 물러나게 한 뒤 물었다. "육손의 방책이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부디 빨리 가르침을 주십시오."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여몽 장군의 병이란, 형주의 군사들을 정비하고 강을 따라 봉화대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강가를 지키는 관리들이 봉화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형주의 군사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몽은 깜짝 놀라며 감사를 표했다. "육손의 말이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군요. 어서 그 좋은 계책을 들려주십시오." 육손이 말했다. "관우는 스스로 영웅이라 믿으며 천하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직 장군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이번 기회를 틈타 병을 핑계로 직책을 사양하고 육구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우를 아첨하며 칭송하게 하여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관우는 반드시 형주의 병력을 모두 빼내어 번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 형주에 대비가 없다면, 단 한 부대의 군사만으로 기습적인 계책을 써서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형주는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몽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구려!"

이로 인해 여몽은 병을 핑계로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며 사직서를 올렸다. 육손이 손권을 찾아가 앞서 말한 계책을 상세히 보고하자, 손권은 여몽을 불러 건업으로 돌아가 요양하게 했다. 여몽이 건업에 도착해

손권을 알현하자 손권이 물었다. "육구의 임무는 예전에 주유가 노숙을 추천하여 대신하게 했고, 그 뒤에 노숙이 다시 자네를 추천하여 대신하게 했네. 이제 자네도 명망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추천하여 자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네." 여몽이 대답했다. "만약 명망이 높은 사람을 쓴다면 관우가 반드시 경계할 것입니다. 육손은 생각이 깊고 멀리 내다보지만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 관우가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육손을 즉시 제 직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임명한다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바로 육손을 편장군 우도독으로 임명하여 여몽을 대신해 육구를 지키게 했다. 육손이 사양하며 말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부족하여 큰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여몽이 자네를 보증하니 결코 틀림없을 것이네. 사양하지 말게." 육손은 이에 임명장을 받고 인장을 받아 그날 밤 바로 육구로 향했다. 그는 말과 보병, 수군 등 삼군을 모두 인계한 뒤, 곧바로 편지를 한 통 써서 명마와 진귀한 비단, 술과 예물 등의 물품을 갖추어 사신을 보내 번성에 있는 관우에게 전달하게 했다.

당시 관우는 독화살 상처를 치료하느라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강동의 육구 수비 장수인 여몽이 병이 위독하여 손권이 그를 불러 들여 요양하게 했습니다. 대신 육손을 장수로 임명하여 여몽을 대신해 육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육손이 사람을 보내 편지와 선물을 가져왔으니, 특별히 뵙기를 청합니다."

관우가 사절을 불러들인 뒤,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손권은 식견이 짧아 저런 어린아이를 장수로 쓰다니!"

사절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육 장군께서 편지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장군께 축하를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양측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부디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관우가 편지를 뜯어 살펴보니, 글의 내용이 매우 겸손하고 정중했다. 편지를 다 읽은 관우는 하늘을 보고 크게 웃으며 좌우에 명하여 예물을 거두어 사절에게 돌려보내게 했다. 사절이 돌아가 육손에게 보고하니, 육손이 말했다.

"관우가 기뻐하며, 더 이상 강동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며 몰래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다. 과연 관우가 형주의 병력 태반을 빼내어 번성으로 보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육손은 화살 맞은 상처만 다 나으면 즉시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육손은 이 세세한 사정을 파악한 뒤 곧바로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밤낮없이 보고했다.

손권이 여몽을 불러 불러와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관우가 정말로 형주의 군사를 빼내어 번성을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가 계책을 써서 형주를 기습해 차지할 수 있겠소. 그대가 내 동생 손교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소?"

손교의 자는 숙명으로, 손권의 숙부인 손정의 차남이다.

여몽이 대답했다. "주군께서 저를 쓸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저 혼자 가시면 되고, 만약 손교를 쓸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손교 혼자 보내시면 됩니다. 예전에 주유와 정보가 함께 좌우 도독을 맡았던 일을 들어 보지 못하셨습니까? 비록 일은 주유가 결정했으나, 정보는 구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주유의 아래에 머물며 사이가 그리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주유의 재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재능은 주유에 미치지 못하는데, 손교의 친분은 정보보다 훨씬 두터우니 두 사람이 함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곧장 여몽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강동의 모든 군마를 총괄하게 했다. 또한 손교에게는 후방에서 군량을 보급하며 지원하라는 명을 내렸다. 여몽은 명을 받들어 감사를 표한 뒤, 군사 3만 명과 빠른 배 80여 척을 준비했다. 그는 물에 익숙한 자들을 골라 상인으로 위장시킨 뒤 모두 흰 옷을 입히고, 배 위에서는 노를 젓게 하되 배 안에는 정예 병사들을 몰래 숨겨 두었다. 이어 한당, 장흥, 주연, 반장, 주태, 서성, 정봉 등 일곱 명의 장수를 차례로 출정시켰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손권을 따라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여몽은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관우의 뒤를 공격할 테니 군사를 전진시키라고 전하는 동시에, 육손에게도 미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출발시켜 빠른 배를 타고 심양강으로 향하게 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나아가 마침내 강 북쪽 기슭에 도착했다. 강변 봉화대에서 지키던 군사들이 이들을 불러 세워 캐묻자, 오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장사꾼인데, 강 가운데서 바람을 만나는 바람에 잠시 이곳에 피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재물을 건넸

다. 군사들이 이 말을 믿고 허락하자, 그들은 강변에 배를 댈 수 있었다.

밤이 깊어 이경(밤 10시경)쯤 되었을 때, 정예병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들은 봉화대에 올라가 관군을 묶어 넘긴 뒤, 암호로 신호를 한 번 보냈다. 그러자 80여 척의 정예병을 실은 배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강변의 초소에 있던 군사들을 모두 잡아 배 안으로 실어 날랐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이 기세를 몰아 군사들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곧장 형주로 향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형주에 거의 다다르자 여몽은 강변 초소에서 사로잡은 관군들을 좋은 말로 달래며 저마다 두둑한 상을 내린 뒤, 이들을 시켜 속임수로 성문을 열게 하고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게 했다. 군사들이 명을 받자 여몽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한밤중이 되어 성문 아래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들은 형주의 군사들인 줄 알고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 순간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성문 안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성 안으로 들이닥쳐 형주를 습격해 함락시켰다.

여몽은 즉시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 "만약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백성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또한 기존의 관리들에게는 원래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관우의 가족들은 따로 집을 마련해 모시게 하고, 잡다한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렸다.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어느 날 큰비가 내리자, 여몽은 말을 타고 소수의 기병을 거느리며 네 곳의 성문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병사가 민간의 대나무 삿갓을 가져와 갑옷 위에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몽이 호통을 치며 좌우 부하들에게 그를 붙잡아 심문하게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여몽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여몽이 말했다. "네가 비록 나와 고향은 같으나, 이미 나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겼으니 마땅히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자 그 병사가 울며 말했다. "비에 관군의 갑옷이 젖을까 두려워 잠시 덮어둔 것이지, 사사로이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장군께서 고향 사람이라는 정을 생각하여 선처해 주십시오." 여몽이 말했다. "네가 갑옷을 덮으려 했다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민간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써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여몽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참수를 하여 본보기로 보여준 뒤, 시신을 거두어 울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이때부터 삼군의 군기가 엄정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손권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착했다. 여몽이 성 밖으로 나가 손권을 맞이하여 관청으로 안내했다. 손권은 위로를 마친 뒤, 반준을 치중으로 임명하여 형주를 다스리게 하고, 옥중에 갇혀 있던 우금을 풀어주어 조조에게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또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사들에게는 상을 내리며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손권이 여몽에게 말했다. "이제 형주를 얻었으니, 공안의 부사인과 남군의 미방, 이 두 곳은 어떻게 수복할 것인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활을 당기거나 화살을 쏠 필요 없습니다. 저의 이 짧은 혀를 놀려 공안의 부사인을 설득해 항복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우변이었다. 손권이 물었다. "우

번, 부사인을 항복시킬 어떤 좋은 계책이 있는가?" 우번이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사인과 매우 두터운 친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익과 손해를 들어 설득한다면 그는 반드시 항복할 것입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우번에게 군사 오백 명을 붙여 곧장 공안으로 가게 했다.

한편, 부사인은 형주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성문을 닫아걸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때 우번이 도착했는데, 성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편지를 화살에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 보냈다. 군사들이 그 화살을 주워 부사인에게 바쳤다. 부사인이 편지를 풀어보니 항복을 권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부사인은 예전에 관우가 떠날 때 자신에게 품었던 원망을 떠올리며,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즉시 성문을 활짝 열고 우번을 성 안으로 맞이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뒤 옛정을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번이 오나라의 군주 손권은 도량이 넓고 인재를 아끼며 예우를 다하는 분이라고 말하자, 부사인은 크게 기뻐하며 우번과 함께 인장과 관직을 가지고 형주로 가서 항복했다. 손권은 이를 매우 기뻐하며 부사인을 다시 공안을 지키도록 명했다. 이때 여몽이 손권에게 은밀히 말했다. "지금 관우를 잡지 못했으니, 부사인을 공안에 오래 머물게 하면 반드시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남군으로 보내 미방을 불러 항복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권은 즉시 부사인을 불러 말했다. "미방은 그대와 친분이 두터우니, 그를 설득해 항복하게 하시오. 내가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소." 부사인은 기꺼이 그 명을 받들고는 곧장 열 명 남짓한 기병을 이끌고 남군으로 가서 미방을 투항시키려 떠났다. 바

로 이리하다. 오늘 공안은 지킬 뜻이 없으니, 예전 왕보의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었구나. 이번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밝혀진다.

제76회 — 서공명이 면수에서 크게 싸우고, 관운장이 맥성으로 패주하다

徐公明大戰沔水 關雲長敗走麥城

한편, 미방은 형주를 이미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그때 공안의 수장인 부사인이 급히 찾아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미방은 서둘러 그를 성 안으로 맞아들여 무슨 일인지 물었다. 부사인이 말했다. 「제가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위태롭고 힘이 모자라 더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동오에 항복했으니, 장군께서도 하루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방이 대답했다. 「우리는 한중왕(유비)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차마 배신할 수 있겠소?」 그러자 부사인이 말했다. 「관우가 떠날 때 우리 두 사람을 몹시 원망했습니다. 만약 그가 승리하여 돌아온다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도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미방이 다시 말했다. 「나와 형제들은 오랫동안 한중왕을 모셔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겠소?」 미방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관우가 사신을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

와 그를 대청으로 불러들였다. 사신이 말했다. 「관우 장군님의 군대에 식량이 부족하여, 특별히 남군과 공안 두 곳에 십만 석의 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두 장군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식량을 전달해 주십시오. 만약 늦어진다면 즉시 참형에 처할 것입니다.」 미방은 크게 놀라 부사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형주는 이미 동오에 넘어갔는데, 이 식량을 어떻게 전달한단 말ियो?」 부사인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할 것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부사인은 칼을 뽑아 대청에서 사신을 베어 버렸다. 미방이 경악하며 물었다. 「공, 어찌 이러시오?」 부사인이 답했다. 「관우의 저 의도는 분명 우리 두 사람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손을 놓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장군께서 지금 당장 동오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우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여몽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까지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미방은 깜짝 놀라 부사인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항복했다. 여몽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손권에게 인도했고, 손권은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 여몽은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군사들에게 큰 포상을 내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한편, 조조는 허도에서 여러 책사와 함께 형주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오에서 사신을 보내 서신을 전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사신을 불러들이자, 사신은 서신을 올렸다. 조조가 이를 펼쳐 읽어보니, 서신에는 동오의 군대가 형주를 습격할 것이니 조조가 관우를 협공해 달라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관우가 대비하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조조가 책사들과 이 일을 의논하자, 주부 동소가 말했다. "지금 번성이 포위되어 군사들이 구원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시켜 이 서신을 번성 안으로 쏘아 넣어 군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관우에게 동오가 형주를 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관우는 형주를 잃을까 두려워 반드시 서둘러 군사를 물릴 것입니다. 그때 서황을 시켜 기세를 몰아 몰아치게 한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이 계책을 따랐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서황에게 속히 공격하라고 재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낙양 남쪽의 남양릉비로 가서 조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둔했다.

한편, 서황이 막 장막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위나라 왕의 사신이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서황이 사신을 맞이하며 물으니 사신이 말했다. "지금 위나라 왕께서 군사를 이끌고 이미 낙양을 지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서둘러 관우를 공격하여 번성의 곤경을 풀어 주십시오." 서황이 말을 이어가던 중,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관평은 언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고, 료화는 사충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앞뒤로 열두 개의 진영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황은 즉시 부장인 서상과 여건에게 자신을 사칭하여 서황의 깃발을 들고 언성으로 가서 관평과 싸우게 했다. 그러고는 서황 자신이 정예병 오백 명을 직접 이끌고 면수를 따라 언성의 뒤편을 습격하러 나아갔다.

한편, 관평은 서황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나가 맞서 싸웠다. 양 진영이 마주 서자 관평이 말을 몰고 나가 서상과 맞붙었는데, 채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서상이 크게

패해 달아났다. 이어 여건이 출전했으나 대여섯 합 만에 역시 패하여 도망쳤다. 관평이 승세를 몰아 이십여 리를 추격하던 그때, 갑자기 성 안에 불이 났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관평은 적의 계략임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몰아 언성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마침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서황은 말 위에서 깃발 아래 서서 크게 외쳤다. 「관평 조카님,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네 형주 땅은 이미 동오에게 빼앗겼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이곳에서 미친 듯이 날뛰느냐!」 관평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서황을 직접 공격했다. 서황과 서니 합을 겨루는 사이 삼군이 함성을 지르더니 언성에서 거대한 불길의 치솟았다. 관평은 싸움에 미련을 둘 겨를 없이 길을 내어 사충채로 급히 달아났다. 료화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형주가 이미 여몽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군사들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관평이 말했다. 「그것은 분명 헛소문일 것이다. 만약 군사들이 다시 이 말을 입에 올린다면 엄히 다스려 베어버리겠다.」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정북쪽의 제일둔이 서황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관평이 말했다. 「만약 제일둔을 잃게 된다면 다른 진영들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모두 면수에 의지하고 있어 적병이 감히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제일둔을 구하러 가겠다.」 료화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지시했다. 「너희는 진영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만약 적이 나타나면 즉시 횃불을 올려 알려라.」 부하 장수가 대답했다. 「사충채는 울타리가 열 겹이나 쳐져 있어 날아가는 새조차 들어올 수 없으니, 적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관평과 료화는 사충채의

정예병을 모두 이끌고 제일둔에 주둔한 곳으로 달려갔다. 관평이 위나라 군대가 낮은 산 위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료화에게 말했다. 「서황이 병사를 배치했으나 지형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으니, 오늘 밤 병사를 이끌고 기습하여 진영을 습격할 수 있겠소.」 료화가 말했다. 「장군께서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앞장서 가신다면, 제가 이곳 본진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관평이 병사들을 이끌고 위나라 진영으로 들이닥쳤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관평은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서둘러 퇴각하려 했으나, 왼쪽에서는 서상이, 오른쪽에서는 여건이 양쪽에서 협공해왔다. 관평은 크게 패하여 진영으로 돌아갔고, 위나라 군사들은 이 기세를 몰아 사방에서 추격하며 포위해 들어왔다. 관평과 료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첫 번째 진지를 버린 채 사총채로 급히 몸을 피했다. 그런데 멀리서 이미 채에 불이 난 것이 보였다. 급히 채 앞에 도착해 보니 온통 위나라 군사들의 깃발뿐이었다. 관평 일행은 퇴각하며 서둘러 번성으로 이어지는 큰길로 도망쳤다. 그때 앞길을 한 무리의 군사가 가로막았는데,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서황이었다. 관평과 료화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겨우 길을 뚫고 대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관우를 뵈고 말했다. "지금 서황이 언성 등을 빼앗았으며, 조조 또한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세 갈래로 나누어 번성을 구원하러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주가 이미 여몽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자 관우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그것은 적들이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퍼뜨리는 거짓 소문일 뿐이다! 동오의 여몽은 병이 위중하여 어린 육손이 대신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서황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관우는 즉시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관평이 곁에서 간곡히 말했다. "아버지,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으셨으니 적과 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서황과는 구면인 데다 그 실력을 잘 알고 있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그를 베어 위나라 장수들에게 경고를 보여주겠다"라고 답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채 말에 올라 힘차게 나아갔다. 위나라 군사들은 그 기세에 놀려 모두 겁에 질렸다.

관우는 말을 멈추고 물었다. "서황은 어디에 있는가?" 위나라 진영의 깃발이 열리는 곳에서 서황이 말을 타고 나와 몸을 굽히며 인사했다. "당신을 뵈고 나서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당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벌써 희끗희끗해지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을 모시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위엄이 천하에 떨친다는 소식을 듣고 옛 친구로서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뵈게 되니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풀리는 듯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기에 다른 이들과는 다르거늘, 어찌하여 지금 내 아들을 그토록 몰아붙이는 것이요?" 서황은 장수들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관우의 머리를 베어 오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 관우가 놀라며 물었다. "서황,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서황이 대답했다. "오늘은 국가의 대사를 수행하는 자리이니, 감히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서황이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관우를 향해 달려 들었다. 관우도 크게 노하여 칼을 휘두르며 맞섰고, 여든 합 넘게 싸웠다. 관우의 무예가 비록 독보적이었으나, 결국 오른쪽 팔에 힘이 부쳤다. 관평은 관우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다급히 징을 울렸다. 관우가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알고 보니 변성의 조인이 조조의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서황과 합류하여 양쪽에서 협공을 가해온 것이었다. 형주 군사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다. 관우는 말을 타고 장수들을 이끌어 양강 상류 쪽으로 급히 달아났다. 뒤에서는 위나라 군사들이 추격해왔다. 관우가 서둘러 양강을 건너 양양을 향해 달리는데,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형주가 이미 여몽에게 빼앗겼고, 가족들도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관우는 크게 놀라 양양으로 가지 못하고 병사를 이끌고 공안으로 향했다. 그때 정찰병이 다시 보고했다. 「공안의 부사인이 이미 동오에 항복했습니다!」 관우가 격노하고 있을 때, 식량을 나르던 사람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공안의 부사인이 남군으로 가서 사신을 죽이고, 미방까지 띄어 동오에 항복하게 했습니다!」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상처가 터지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장수들이 달려와 그를 깨우자, 관우는 사마왕보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오늘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이어 관우가 물었다. 「강을 따라 위아래에서 어찌하여 봉화를 올리지 못했는가?」 탐마가 대답했다. 「여몽이 수군들을 시켜 모두 흰 옷을 입혀 상인처럼 위장해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 속에 정예병을 숨겨두었다가 먼저 봉화대를

지키던 병사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봉화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관우는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내가 간사한 적의 계략에 빠졌구나!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뵈겠는가!」 이때 군량을 책임지는 조루가 말했다.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성도에 구원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로를 통해 형주를 되찾아야 합니다.» 관우는 그 말에 따라 마량과 이적에게 서신 세 통을 들려 밤을 도와 성도로 급히 구원을 요청하게 했고, 동시에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되찾으러 나섰다. 관우는 직접 선봉대를 이끌고 앞장섰으며, 료화와 관평을 남겨 뒤를 따르게 했다.

한편, 번성의 포위가 풀리자 조인은 장수들을 이끌고 조조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청했다. 조조가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조조는 삼군에 큰 상을 내린 뒤, 직접 사충 채까지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형주의 군사들이 겹겹이 참호와 가시 울타리를 쳐서 견고하게 막고 있었는데, 서황이 그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결국 큰 공을 세웠다. 내가 병법을 펼친 지 삼십여 년이 되었지만, 적의 포위망을 이토록 거침 없이 뚫고 들어간 적은 없었다. 서황은 참으로 용기와 지략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장수들은 모두 감탄하며 따랐다. 조조는 군대를 돌려 마비에 주둔했다. 서황의 군대가 도착하자 조조는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서황의 군대는 모두 대열을 맞추어 질서 정연하게 행군하고 있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서 장군은 참으로 주아부의 풍모를 갖추었구나!" 조조는 서황을 평남 장군으로 봉하고 하후상과 함께 양양을 지키게 하여 관우의 기세를 꺾

도록 했다. 조조는 형주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기에 마비에 군사를 머물게 하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한편, 관우는 형주로 가는 길에서 앞뒤로 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관우가 조루에게 말했다. 「지금 앞에는 동오의 군사가 있고 뒤에는 위나라의 군사가 있으니, 내가 그 사이에 끼어 구원병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 어찌해야 하겠는가?」 조루가 대답했다. 「예전에 여몽이 육구에 있을 때 장군께 서신을 보내 조조를 함께 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조를 도와 우리를 기습했으니 이는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우선 이곳에 군사를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 여몽에게 서신을 써서 이를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봅시다.」 관우가 그의 말을 따랐다. 관우는 즉시 서신을 작성하여 사신을 형주로 보냈다.

한편, 여몽은 형주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형주의 모든 군에 명하노니, 관우를 따라 출정했던 장수와 병사들의 가족은 오나라 군사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매달 식량을 지급하라. 또한 병이 있는 자가 있으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라." 장수와 병사들의 가족들은 그 은혜에 감동하여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관우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여몽은 성 밖으로 나가 사신을 맞이하여 성 안으로 모시고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다. 사신이 여몽에게 서신을 올리자, 서신을 다 읽은 여몽이 사신에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관우 장군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친분일 뿐이며, 오늘의 일은 윗분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소. 번거롭겠지만 사신께서 돌아가 장군께 내 뜻을 잘 전해 주시

오." 그러고는 연회를 베풀어 사신을 대접한 뒤, 관사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배웅했다.

이후 출정했던 장수들의 가족들이 모두 소식을 물으러 왔다. 어떤 이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입소문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모두 집안이 평안하고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신이 여몽과 작별하자 여몽은 직접 성 밖까지 배웅했다. 사신이 관우에게 돌아가 여몽이 한 말과 함께, 형주 성안의 관우의 가족과 여러 장수의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며 식량 공급도 부족함이 없다는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관우는 크게 노하며 말했다. "이것은 간사한 도적의 계책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도적을 죽이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를 죽여 이 원한을 갚으리라!" 그러고는 사신을 꾸짖어 물러나게 했다. 사신이 진영을 나가자 장수들이 모두 몰려와 집안일을 물었다. 사신이 각 가정의 안녕과 여몽의 극진한 보살핌에 대해 말해주고 서신을 각 장수에게 전달하자, 장수들은 기뻐하며 모두 싸울 의지를 잃고 말았다.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점령하러 나아갔으나, 군대가 이동하는 도중에 많은 장졸이 겁을 먹고 형주로 도망쳐 돌아갔다. 관우는 이 상황에 더욱 분노하며 군대를 재촉해 전진했다. 그때 갑자기 땅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장흠이었다. 장흠은 말을 몰아 창을 겨누며 크게 외쳤다.

"운장,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는가!"

관우가 꾸짖었다.

"나는 한나라의 장수다. 어찌 적에게 항복하겠느냐!"

관우는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곧장 장흥을 공격했다. 채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장흥은 패하여 달아났다. 관우가 칼을 들고 이십여 리를 추격하며 쫓아가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왼쪽 산골짜기에서는 한당이 군사를 이끌고 튀어나왔고, 오른쪽 산골짜기에서는 주태가 군대를 몰고 나타났다. 장흥마저 말을 돌려 다시 싸움에 합류하니, 세 갈래 군사가 관우를 협공하기 시작했다. 관우는 급히 군사를 돌려 후퇴했다.

수없이 먼 길을 도망치던 중, 남산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는 흰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깃발에는 '형주 토인'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외쳤다.

"이곳 사람들은 어서 항복하라!"

관우는 크게 분노하여 언덕에 올라 그들을 베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산골짜기 안에서 또 다른 두 군사가 튀어나왔다. 왼쪽에서는 정봉이, 오른쪽에서는 서성이 나타나 장흥의 군사와 합세하여 세 갈래로 몰려왔다.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북소리,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관우는 적진 한복판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다. 관우의 부하 장졸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황혼 무렵에 이르자, 관우가 멀리 사방의 산들을 바라보니 형주 군사들이 온 산에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 형제라 부르고 자식과 어른을 찾으며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군심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소리가 나는 대로 모두 흩어져 버렸고, 관우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걸을 지키는 부하들은 겨우 300여 명뿐이었다. 한밤중 삼경에 이르렀을 때, 정동쪽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려왔다. 바로 관평과 료화가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 관우를 구해낸 것이었다. 관평이 말했다. 「군심이 이미 어지러워졌습니다. 반드시 성을 확보해 잠시 머물며 구원병을 기다려야 합니다. 맥성이 비록 작기는 하나, 진을 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관우는 그 말에 따라 남은 군사들을 재촉하여 맥성으로 향했다. 성에 도착한 그는 병사들을 나누어 네 성문을 엄중히 지키게 하고,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조루가 말했다. 「이곳은 상용과 가깝습니다. 지금 유봉과 맹달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니, 서둘러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쪽 군마의 지원을 받아 버틸 수 있다면, 유비의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군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던 중, 갑자기 동오의 군사가 도착하여 성을 사방에서 포위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관우가 물었다. "누가 포위망을 뚫고 나가 상용에 구원 요청을 하러 가겠느냐?" 료화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관평이 말했다. "제가 당신을 호위하며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관우는 즉시 서신을 써서 료화의 품속에 숨겨준 뒤, 배불리 먹고 말에 올라 성문을 열고 나갔다. 마침 동오의 장수 정봉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관평이 힘껏 돌격하며 싸운 끝에 정봉은 패하여 달아났다. 료화는 그 기세를 몰아 포위망을 뚫고 상용으로 향했다. 관평은 성으로 돌아가 굳게 성문을 지키며 버텼다.

한편, 유봉과 맹달이 상용을 차지하자 태수 신탐이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 이에 한중왕 유비는 유봉을 부장군으로 임명하여 맹달과 함

께 상용을 지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우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이 한창 의논하던 중, 갑자기 료화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유봉이 그를 들여보내라 명하자 료화가 말했다.

"관우 장군께서 싸움에 패하여 맥성에서 곤경에 처하셨습니다. 포위망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촉나라의 구원군이 당장 도착하기는 어려우니, 제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와 이곳에 구원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두 장군께서는 부디 속히 상용의 군사를 일으켜 이 위기를 구해 주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관우 장군께서는 반드시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유봉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우선 좀 쉬십시오.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사신은 관사에 이르러 잠시 쉬며 군사를 보낼 때를 기다렸다. 한편, 유봉이 맹달에게 말했다. "숙부님께서 곤경에 처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좋겠습니까?" 맹달이 대답했다. "동오의 군사는 정예이고 장수들도 용맹합니다. 게다가 형주 아홉 군이 이미 저들에게 넘어갔으니, 남은 곳이라곤 구슬만한 땅인 맥성뿐입니다. 또한 조조가 직접 사오십만 대군을 이끌고 마비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우리 산성의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저 두 나라의 강병을 상대하겠습니까? 절대로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봉이 말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우께서 저의 숙부님이신데, 어쩌 가만히 앉아서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맹달이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관우를 숙부라 여기시지만, 관우께서 장군을 조카로 여기실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듣기로 한중왕께서 처음 장군을 양자로 삼으셨을 때, 관우께서 이미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중왕께서 왕위에 오른 뒤 후사를 세우려 할 때 제갈량에게 물으니, 제갈량이 ‘그것은 집안일이니 관우와 장비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왕이 사람을 형주로 보내 관우에게 물었더니, 관우는 ‘장군은 양자일 뿐이니 감히 후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한중왕께 장군을 상용 산성에 멀리 머물게 하여 뒷날의 화근을 없애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장군께서 어찌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찌 오늘에 와서 숙부와 조카라는 의리에 매달려 위험을 무릅쓰고 경솔하게 움직이려 하십니까?’ 유봉이 말했다. “그대 말이 옳기는 하나, 그렇다면 어떤 핑계로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맹달이 말했다. “그저 상용은 이제 막 귀속되어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감히 함부로 군사를 움직였다가 지키고 있는 성마저 잃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십시오.” 유봉은 맹달의 말을 따랐다. 다음 날 유봉은 료화를 불러 말했다. “이곳 상용은 이제 막 귀속된 곳이라, 군사를 나누어 구하러 갈 수가 없겠소.” 료화가 크게 놀라 머리를 땅에 짚으며 말했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관우님께서서는 이제 끝장입니다!” 맹달이 말했다. “내가 지금 가본다 한들, 물 한 잔으로 타고르는 땀감 더미를 어찌 끄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어서 돌아가서 촉나라의 군사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료화가 통곡하며 간청했으나, 유봉과 맹달은 소매를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료화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한중왕에게 알려 구원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가 크게 옥설을 내뱉으며 성도를 향해 달려갔다.

한편, 관우는 맥성에서 상용의 군대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수하 병사는 고작 오륙백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성 안에는 식량마저 떨어져 형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때 성 아래에 한 사람이 나타나 화살을 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장군을 뵙고 전할 말이 있다고 알렸다. 관우가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유를 묻자, 그는 바로 제갈근이었다. 예의를 갖추고 차를 마시며 인사를 나눈 뒤 제갈근이 말했다. 「지금 손권의 명을 받들어 장군께 권유하러 왔습니다. 옛말에 '시세를 아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 했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다스리던 한나라의 아홉 군은 이미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외로운 성 하나뿐인데, 안에는 식량이 없고 밖에는 구원병도 없으니 위태로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손권에게 귀순하여 다시 형주와 양양을 지키신다면 가솔들의 안위는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관우는 안색을 바꾸어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해량(解良) 출신의 일개 무부일 뿐이나, 주군께서 나를 손발처럼 아껴주셨는데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적국에 붙겠는가? 성이 함락된다면 죽음뿐이다. 옥은 깨질지언정 그 결백함은 변하지 않으며, 대나무는 불에 탈지언정 그 마디는 꺾이지 않는 법이다. 내 몸은 비록 죽더라도 이름만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더 말하지 말고 어서 성 밖으로 나가라. 나는 손권과 결사전을 벌이겠다!」 제갈근이 다시 말했다. 「손권은 장군과 친선 관계를 맺어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치고 한나라 황실을 함께 받치고자 할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이토록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평이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서며 제갈근을 베려 했다. 그러자 관우가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저의 동생인 제갈량이 촉나라에서 그대의 형님을 돕고 있으니, 만약 지금 저를 죽인다면 형제 사이의 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요." 이에 관우는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제갈근을 성 밖으로 쫓아내게 했다.

제갈근은 얼굴 가득 수치심을 머금은 채 말을 타고 성을 나갔다. 그는 손권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관우의 마음은 철석 같아서 도저히 설득할 수 없습니다." 손권이 탄식하며 말했다. "참으로 충직한 신하로구나! 저런 사람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때 여범이 말했다. "제가 저 사람의 길흉을 점쳐보겠습니다." 손권이 즉시 점을 치게 했다.

여범이 산가지로 점을 쳐서 형상을 만드니 '지수사(地水師)' 패가 나왔고, 현무가 응하여 나타났으니 이는 적이 멀리 달아날 것임을 뜻했다. 손권이 여몽에게 물었다. "점괘에는 적이 멀리 달아난다고 하는데, 경은 어떤 계책으로 그를 사로잡겠는가?" 여몽이 웃으며 대답했다. "점괘가 마침 저의 계책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관우가 비록 하늘을 찌를 듯한 날개를 가졌다고 하나, 제 그물망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용이 구렁텅이에 빠져 새우의 장난감이 되고, 봉황이 새장 속에 갇혀 작은 새에게 조롱을 받는 격이었다.

결국 여몽의 계책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7회 — 옥천산에서 관공이 성스럽게 나타나고, 낙양성에서 조조가 신의 위엄 에 감동하다

玉泉山關公顯聖 洛陽城曹操感神

한편, 손권이 여몽에게 계책을 구했다. 여몽이 말했다.

"제가 헤아려 보건대, 관우는 병력이 적어 반드시 큰길로 도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맥성 바로 북쪽에 험하고 좁은 길이 있으니, 분명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연에게 정예병 5,000명을 이끌고 맥성 북쪽 20리 지점에 매복하게 하십시오. 적군이 도착하더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며 몰살해야 합니다. 적군에게는 싸울 의지가 없을 것이니 분명 임저 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또한 판장에게 정예병 500명을 이끌고 임저의 외진 산길에 매복하게 한다면,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장수들을 보내 성문의 각 문을 공격하게 하되, 북문만 비워두어 적이 그곳으로 도망치도록 유도하십시오."

손권은 이 계책을 듣고 여범에게 점을 쳐보게 했다. 점괘가 나오자 여범이 보고했다.

"이 점괘는 적이 북서쪽으로 도망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해시(亥時, 오후 9시~11시)가 되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주연과 판장에게 정예병을 나누어 주어, 각자의 군령에 따라 매복지로 떠나게 했다.

한편, 관우는 맥성에 고립되어 남은 병력을 세어보니 기병과 보병을 합쳐 겨우 300여 명뿐이었고, 식량과 군량마저 모두 떨어졌다. 그날 밤 성 밖에서는 오나라 군사들이 각 부대의 이름을 부르며 소집하더니, 성을 넘어 떠나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구원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관우는 속수무책인 심정으로 왕보에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구려! 오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왕보가 울며 대답했다. "오늘 같은 일은 설령 강태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조루가 거들었다. "상용의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은 유봉과 맹달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고립된 성을 버리고 서천으로 달려가 군사를 다시 정비한 뒤, 나중에 형주를 되찾을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요."

관우는 곧장 성벽에 올라 밖을 살폈다. 북문 밖의 적군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성 안의 주민들에게 물었다. "이 길로 북쪽으로 가면 지세가 어떠한가?" 주민이 대답했다. "이 길은 모두 험하고 좁은 산길

인데, 서천으로 통할 수는 있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이 길로 가야겠다." 그러자 왕보가 간언했다. "좁은 길에는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큰길로 가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매복이 있다 한들 내가 무엇이 두렵겠소!"

관우는 즉시 명령을 내려 기병과 보병 관군들에게 복장을 엄격히 갖추고 성을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왕보가 울며 말했다. "주군, 길을 떠나시는 동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저와 부하 100여 명은 이 성을 사수하며 죽을 것입니다. 성이 무너질지언정 항복하지는 않을 테니, 오직 주군께서 하루빨리 돌아와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관우 또한 함께 울며 작별을 고했다. 결국 주창을 남겨 왕보와 함께 맥성을 지키게 했다. 관우는 관평, 조루와 함께 남은 병사 200여 명을 이끌고 북문을 돌파해 나갔다. 관우는 칼을 휘두르며 앞장서 나아갔다. 초경(첫 번째 경, 밤 7~9시)이 지난 뒤 20여 리쯤 달렸을까, 산골짜기에서 북과 징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며 큰 함성이 땅을 흔들었다. 그 선두에 선 장수 주연이 말을 몰아 창을 내지르며 외쳤다. "관우는 도망치기를 멈추시오! 어서 항복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소!" 관우가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우려 하자, 주연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관우는 그 기세를 몰아 추격하며 죽었다. 그때 북과 징 소리가 울리더니 사방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관우는 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임저의 좁은 길을 향해 도망쳤다. 주연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 공격해 왔다. 관우를 따르던 병사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4~5리쯤 더 달렸을 때, 앞쪽에서 다시 함성이 울리고 불빛이 크게 치솟더니 판장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관우가 크게 노해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으나,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판장이 패해 달아났다. 관우는 싸움을 이어갈 여유가 없어 급히 산길을 향해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관평이 달려와 조루가 난군 속에서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우는 슬픔과 당혹감을 이기지 못했으나, 곧 관평에게 후방을 맡기고 자신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함께 가는 이는 이제 10여 명뿐이었다. 결석에 이르니 양옆이 산이었고, 산기슭에는 갈대와 잡풀이 우거져 나무가 뒤섞여 있었다. 때는 이미 새벽 5경(새벽 3~5시)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한창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양쪽 산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갈고리와 밧줄을 일제히 던져 관우가 타고 있던 말을 먼저 쓰러뜨렸다. 관우가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판장의 부하인 마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관평은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하러 왔으나, 뒤이어 판장과 주연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해 관평을 사방으로 포위했다. 관평은 홀로 맞서 싸웠으나 힘이 다해 결국 붙잡혔다. 날이 밝자 관우 부자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을 막사 안으로 불러 모았다.

잠시 후, 마충이 관우를 에워싸고 앞으로 끌고 왔다. 손권이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장군의 높은 덕망을 흠모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려 하십니까? 장군은 예전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자부하더니,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나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장군은 이제라도 손권에게 항복하시겠습니까?”

관우가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 푸른 눈의 어린놈아, 보랏빛 수염을 기른 쥐새끼 같은 놈 같으니! 나는 유비 황숙과 복숭아나무 아

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 왕실을 받치기로 맹세했거늘, 어찌 너같이 한나라를 배반한 도적놈과 어울리겠느냐! 내가 지금 간사한 계책에 빠졌을 뿐이니, 죽기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말을 보탬 필요 없다!”

손권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관우는 세상에 드문 호걸이라 내가 깊이 아끼고 있다. 이제 예우를 갖추어 대접하며 항복을 권유하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부 좌함이 말했다. “안 됩니다. 예전에 조조가 이 사람을 얻었을 때, 후작에 봉하고 작위를 내리며 삼 일에 한 번은 작은 잔치를, 오 일에 한 번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말을 탈 때는 금을 주고 내릴 때는 은을 내릴 정도로 극진히 대접했으나, 결국 그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관우가 관문을 돌파하고 장수들을 베며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히려 압박을 받아, 거의 수도를 옮겨서라도 그 기세를 피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군께서 이미 그를 잡으셨으니, 즉시 처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손권이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 말이 옳다.” 그러고는 즉시 관우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관우 부자는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 때는 건안 24년 겨울 12월이었다. 관우의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읊었다.

“한나라 말기 무적의 재능을 지녔으니, 관우는 홀로 무리 중에서도 빛났구나. 신령스러운 위엄은 무예를 떨치고, 선비 같은 우아함은 문

장까지 알게 하네. 하늘의 해처럼 마음은 거울같이 맑고, 춘추(春秋)의 의리는 구름에 닿을 듯 높았도다. 만고에 밝게 빛나리니, 삼국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으리라.”

또한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해진다.

"인결은 옛날의 해량과 같으니, 선비와 백성들이 한나라의 관우를 우러러 숭배하네. 복숭아나무 밑에서 형제 맺은 그날의 인연은, 천 년 세월 동안 황제와 왕의 예우를 받으리라. 풍뢰를 품은 기세는 대적할 자가 없고, 해와 달에 드리운 뜻은 광채를 발하네. 지금도 그 사당의 모습 천하에 가득하니, 고목과 찬 까마귀만이 몇 번의 석양을 맞이하누나."

관우가 죽자, 그가 타고 있던 적토마를 마충이 잡아 손권에게 바쳤다. 손권은 마충에게 그 말을 타고 가라고 상을 내렸다. 그러나 그 말은 며칠 동안 풀과 여물을 먹지 않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한편, 맥성에 있던 왕보는 온몸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주창에게 물었다. "어젯밤 꿈에 주군께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소. 급히 여쭙려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버렸구려.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겠소."

말을 마칠 때쯤, 갑자기 오나라 군사가 성 아래에 도착하여 관우 부자의 머리를 내놓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외쳤다. 왕보와 주창이 크게 놀라 급히 성벽에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관우 부자의 머리였다. 왕보는 비명을 크게 한 번 지르고는 성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주창은

스스로 목을 베어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맥성 또한 동오의 땅이 되었다.

한편, 관우의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 어느 곳에 이르게 되니, 바로 형문주 당양현에 있는 옥천산이라는 산이었다. 그 산에는 보정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승이 살고 있었다. 본래 사수관 진국사에서 장로로 있었으나, 천하를 유람하다가 이곳의 산세와 물이 수려한 것을 보고 초가집을 지어 머물며 매일 좌선하며 도를 닦고 있었다. 곁에는 어린 수행자 한 명뿐이라, 탁발하여 얻은 밥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맑고 달빛이 밝은 삼경 무렵이었다. 보정이 암자 안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머리를 돌려다오!” 보정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허공에 한 사람이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든 채 나타났다. 그 좌우로는 얼굴이 하얀 장수와 얼굴이 검고 수염이 덥수룩한 장수가 수행하듯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구름을 누르고 내려와 옥천산 정상에 내려앉았다. 보정은 그가 관우임을 알아보고, 손에 든 먼지털이로 암자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관우, 그대는 여기 있는가?”

관우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자, 말에서 내려 바람을 타고 암자 앞으로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모아 깎듯이 인사를 하며 물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법호를 듣고 싶습니다.”

보정 스님이 대답했다. "노승은 보정이라 하오. 예전에 사수관 앞 진국사에서 귀공과 만난 적이 있는데, 어찌 오늘에 와서 잊을 수 있겠소?"

관우가 말했다. "예전에 스님께 구원을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재앙을 만나 죽었으니, 부디 가르침을 주어 미혹된 길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정 스님이 말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니 더는 논하지 마시오. 원인과 결과는 서로 어긋남이 없는 법이오. 지금 장군은 여몽에게 해를 입어 '내 머리를 돌려달라'고 크게 외치고 있으나, 그렇다면 안량과 문추, 그리고 오관육장의 머리는 또 누구에게 되찾아 달라고 외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관우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귀의하여 떠났다. 그 후로 관우는 종종 옥천산에 나타나 성스러운 모습으로 백성을 보살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덕에 감동하여 산 정상에 사당을 세우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냈다. 후세 사람들이 그 사당에 다음과 같은 대련을 남겼다.

"붉은 얼굴로 붉은 마음을 품고, 적토마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그 기세에 적제(赤帝)조차 잊지 않으리. 푸른 등불 아래 푸른 역사를 살피고,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은밀한 곳에서도 푸른 하늘에 부끄러움 없으리."

한편, 손권은 관우를 죽인 뒤 형주 땅을 모두 차지했다. 그는 삼군에 상을 내려 격려하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어 승리를 축하

했다. 손권은 여몽을 상석에 앉히고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형주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손쉽게 얻었으니 이는 모두 자명의 공이다." 여몽이 몇 번이고 사양하며 겸손하게 대답하자 손권이 다시 말했다. "옛날 주유는 용맹과 지략이 남달라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쳤으나 불행히 일찍 세상을 떠났고, 노숙이 그 뒤를 이었다. 노숙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제왕의 큰 책략을 언급했으니 이는 첫 번째 통쾌한 일이었다. 또한 조조가 동쪽으로 내려올 때 모두가 나에게 항복하라고 권했지만, 노숙은 홀로 나에게 주유를 불러 역습하라고 권했으니 이는 두 번째 통쾌한 일이었다. 다만 나에게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주라고 권한 것만은 그의 유일한 실수였다. 이제 자명이 계책을 세워 단숨에 형주를 차지했으니, 노숙이나 주유보다 훨씬 훌륭하다."

말을 마친 손권이 직접 술을 따라 여몽에게 내렸다. 여몽이 술잔을 받아 마시려던 찰나, 갑자기 술잔을 땅에 내팽개치더니 한 손으로 손권을 움켜잡고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다. "이 푸른 눈의 어린놈아! 보랏빛 수염을 기른 쥐새끼 같은 놈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장수들이 크게 놀라 급히 구하려 하자, 여몽은 손권을 밀쳐 넘어뜨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손권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릅뜬 채 크게 외쳤다. "내가 황건적을 토벌한 이래로 천하를 누빈 지 삼십여 년이다. 그런데 이제 네놈이 간사한 계책으로 나를 해치려 하니, 내가 살아서는 네놈의 살점을 씹어 먹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는 반드시 여몽 도적놈의 혼을 뒤쫓으리라! 나는 한수정후 관운장이다!"

손권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장수들을 이끌고 모두 엎드려 절했다. 그런데 여몽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더니 일곱 구멍에서 피를 흘리

며 죽고 말았다. 이를 본 장수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손권은 여몽의 시신을 관에 넣어 정중히 장사 지내며 남군 태수와 찬릉후의 작위를 내렸고, 그의 아들 여패가 그 작위를 이어받게 했다. 손권은 이때부터 관우의 일에 대해 깊이 느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갑자기 장소가 건업에서 급히 달려왔다. 손권이 그를 불러 상황을 물으니, 장소가 말했다.

"지금 주공께서 관우 부자를 해치셨으니, 강동에 닥칠 재앙이 머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유비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유비는 두 지역을 차지한 병력에 제갈량의 지략, 그리고 장비, 황충, 마초, 조운 같은 용맹한 장수들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비가 관우 부자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복수를 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오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손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장소가 말했다.

"주공,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천의 군사가 동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형주를 바위처럼 평온하게 지킬 방법입니다."

손권이 어떤 계책인지 묻자 장소가 대답했다.

"지금 조조는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중원을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비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급하니 반드시 조조와 화친을 맺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유비와 조조가 힘을 합쳐 몰려온다면 동오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먼저 사람을 보내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십시오. 유비에게 관우의 죽음이 조조의 사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유비는 반드시 조조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천의 군사는 동오가 아니라 위나라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패를 지켜보며 이득을 취하면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손권은 그 말에 따라 사자를 보내, 나무 상자에 관우의 머리를 담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조에게 보냈다. 마침 조조가 모비에서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가던 중, 동오에서 관우의 머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관우가 죽었구나! 이제 나는 밤마다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때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말했다. "이것은 동오가 재앙을 떠넘기려는 계책입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주부 사마의였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사마의가 대답했다. "옛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동오가 관우를 해쳤으니, 유비가 복수를 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우의 머리를 대왕께 바쳐 유비가 대왕께 화풀이를 하게 만듦으로써,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하는 대신 위나라를 공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이지요." 조조가 말했다. "중달의 말이 옳다. 나는 어떤 책략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하겠느냐?" 사마의가 말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왕께서 관우의 머리에 맞춰 향나무로 몸을 깎아 만들게 하신 뒤, 대신의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내십시오. 유비가 이 사실을 알면 반

드시 손권을 깊이 원망하여 온 힘을 다해 남쪽으로 정벌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승부를 살펴보면, 촉한이 이기면 오나라를 공격할 것이요, 오나라가 이기면 촉한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더라도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따랐다. 곧바로 오나라 사절을 불러 나무 상자를 내놓게 했다. 조조가 상자를 열어보니 관우의 얼굴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관우 공, 그동안 별고 없으셨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우의 입이 벌어지고 눈이 움직이며 수염과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조조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들어 구하자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조조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관 장군은 참으로 하늘의 신이로다!" 오나라 사절은 관우의 영혼이 나타나 손권이 여몽을 시켜 저지른 일을 꾸짖었다는 사실까지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더욱 두려워하여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침향나무를 깎아 몸을 만든 뒤 왕후의 예로 낙양 남문 밖에 장사 지냈다. 크고 작은 관리들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고 조조가 직접 절을 올렸으며, 그를 형왕(荊王)으로 추증하고 관리를 보내 묘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서 오나라 사절을 강동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중왕 유비가 서천에서 돌아와 성도에 이르렀을 때, 법정이 아뢰었다. "주상께서 먼저 맞이하셨던 부인께서 돌아가시고, 손부인 또한 남쪽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왕비를 맞아들여 내정을 돌보셔야 합니다." 유비는 법정의 말을 따랐다.

법정이 다시 아뢰었다. "오의에게 아름답고 현명한 누이동생이 있습니다. 일찍이 관상 잘 보는 이에게 물었더니, 이 여인은 나중에 반드시 크게 귀해질 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유언의 아들인 유모에게 시집가기로 약속했으나, 유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이분을 왕비로 맞이하심이 어떠하옵니까?"

유비가 말했다. "유모는 나와 같은 종친이니,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자 법정이 말했다. "친소 관계를 따지자면, 진나라 문공이 회영을 맞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비는 결국 법정의 뜻을 받아들여 오씨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그 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은 유영이고 자는 공수이며, 차남은 유리이고 자는 봉효이다.

한편, 동쪽과 서쪽의 두 지역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유하여 농사가 매우 잘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형주에서 사람이 찾아와, 동오에서 관우에게 혼인을 청했으나 관우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형주가 위험하구나! 사람을 보내 관우를 교대시켜 돌아오게 해야겠다." 막 의논을 하던 중에 형주에서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관흥이 도착하여 강물로 칠군(七軍)을 수몰시킨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러자 또 파발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관우가 강가에 많은 보루를 쌓고 방비를 매우 엄중히 하여 결코 빈틈이 없다고 전했다. 그제야 유비는 마음을 놓았다.

어느 날 갑자기 유비는 온몸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여 앉아 있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편치 않았다. 밤이 되자 잠조차 이룰 수 없었던 유비는 내실에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정신이 혼미해져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방 안에 갑자기 찬 바람이 한바탕 몰아치더니 등불이 꺼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유비가 고개를 들어 보니 한 사람이 등불 아래 서 있었다. 유비가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 깊은 밤에 내 방까지 들어왔는가?"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유비가 의아하게 여겨 직접 일어나 살펴보니, 관우가 등불 그림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몸을 숨기고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아우님, 그간 별 일 없었는가! 이 깊은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필시 큰일이 있음에 틀림없네. 나와 자네는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피하는 것인가?" 그러자 관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형님, 부디 군사를 일으켜 이 아우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찬 바람이 세차게 일더니 관우가 사라졌다. 유비가 깜짝 놀라 깨어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 때는 마침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릴 무렵이었다. 유비는 몹시 의아해하며 급히 앞뜰로 나가 사람을 시켜 제갈량을 불러오게 했다. 제갈량이 들어와 유비를 뵈자, 유비는 꿈에서 본 경고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것은 주군께서 관우를 너무나 그리워하신 나머지 꾸신 꿈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의심하십니까?" 유비가 몇 번이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자, 제갈량이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래어 마음을 풀어주었다.

제갈량이 말을 마치고 중문 밖으로 나가자, 마침 허정이 마중을 나왔다. 허정이 말했다. "방금 군사님의 부저로 급히 기밀을 보고하러 가

던 길이었는데, 군사님께서 궁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무슨 기밀입니까?"

허정이 대답했다. "방금 밖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동오의 여몽이 이미 형주를 습격하여 관우가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님께 몰래 보고하러 왔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에 천문을 살피니, 장성의 기운이 형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관우에게 반드시 화가 닥칠 줄 알았습니다. 다만 주상께서 근심하실까 두려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각 안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제갈량의 소매를 붙잡으며 외쳤다. "이토록 흉한 소식을 듣고도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시오!"

제갈량이 돌아보니 바로 유비였다.

제갈량과 허정이 함께 아뢰었다. "방금 들은 말은 모두 떠도는 소문일 뿐이니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주상께서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유비가 말했다. "나는 관우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소. 그에게 만약 잘못이 생긴다면, 내가 어찌 홀로 살아있을 수 있겠소!"

제갈량이 허정을 달래며 권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근시가 달려와 "마량과 이적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유비는 급히 그들을 불러

상황을 물었다. 두 사람은 형주를 잃었으며, 관우가 싸움에서 패해 구원을 요청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을 채 읽기도 전에 이번에는 형주에서 온 료화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유비가 급히 그를 불러들이자, 료화는 땅에 엎드려 울며 절하고는 유봉과 맹달이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고했다.

유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만약 정녕 그렇다면, 내 동생은 이제 끝이로구나!"

제갈량이 말했다. "유봉과 맹달이 이토록 무례하게 행동했으니, 죽음으로 죄를 다스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제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형주의 급한 상황을 구하겠습니다."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관우를 잃었는데, 나 혼자 어찌 살아 있겠는가! 나도 내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관우를 구하러 가겠노라!"

유비는 즉시 사람을 보내 낭중의 장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다른 사람을 보내 군사와 말을 모으게 했다. 그러나 날이 밝기도 전에 연달아 몇 차례 보고가 들어왔다. 관우가 밤에 임저를 빠져나가다 오나라 장수들에게 붙잡혔으며, 의리를 지키다 굴복하지 않고 부자가 함께 죽어 신령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유비는 이 말을 듣자마자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과연, 옛날 함께 죽기로 맹세했던 형제를 두고, 어찌 오늘 홀로 살아남아 슬퍼하라!

과연 유비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8회 — 풍질을 다스리던 신의가 죽 고, 유언을 전하니 간웅의 운명이 다하다

治風疾神醫身死 傳遺命奸雄數終

한편, 한중왕 유비는 관우 부자(관우와 그 아들 관평)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땅에 쓰러져 통곡했다. 문무백관이 급히 구하러 달려들어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유비를 안쪽 전각으로 부축해 들었다. 제갈량이 곁에서 권했다. "주상께서는 슬픔을 조금 거두소서. 예부터 '삶과 죽음은 하늘의 명'이라 했습니다. 관우가 평소 강직하면서도 자만했던 탓에 오늘 이런 화를 당한 것이니, 주상께서는 우선 몸을 보살피시며 천천히 복수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관우, 장비 두 동생과 북송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노라. 이제 관우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흥이 통곡하며 달려왔다. 유비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다시 땅에 쓰러져 울었다. 신하들이 달려들어 겨우 깨웠다. 유비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정신없이 울어댔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오로지 통곡

하기만 했다. 눈물로 옷깃이 젖어 얼룩진 모습이 마치 피가 묻은 것 같았다. 제갈량과 여러 신하가 거듭 만류하며 달랬으나, 유비는 "나는 동오와는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듣자하니 동오에서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바쳤는데, 조조가 왕과 제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물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제갈량이 답했다. "동오가 화를 조조에게 돌리려 하자, 조조가 그 계략을 알아채고 관우를 정중히 장사 지내줌으로써 주상께서 오나라를 원망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유비가 외쳤다. "나는 지금 당장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에 죄를 물음으로써 이 한을 풀 것이다!" 제갈량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지금 오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게 만들려 하고, 위나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나라를 치게 만들려 합니다. 양쪽 모두 흉계를 품고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상께서는 우선 군사를 움직이지 마시고 관우의 장례를 치르는 데 집중하소서. 그러다 오나라와 위나라의 사이가 틀어지면, 그때를 틈타 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하들이 거듭 간곡히 권하자 그제야 유비는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사천 지역의 크고 작은 장수와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모두 상복을 입게 했다. 한중왕 유비는 직접 남문으로 나가 혼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며, 종일토록 통곡하며 슬퍼했다.

한편, 낙양에 있던 조조는 관우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밤마다 눈만 감으면 관우의 모습이 나타나 괴롭혔다. 조조는 몹시 두려워하며 여러 신하에게 이 사실을 물었다. 신하들이 말했다. "낙양 행궁의 옛 전각들은 요사스러운 기운이 많으니, 새로 전각을 지어 그곳에서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도 전각을 하나 세워 '건시전'이라 이름 붙이고자 하나, 솜씨 좋은 장인이 없어 걱정이구나." 이때 가후가

말했다. "낙양에 소월이라는 뛰어난 장인이 있는데, 그 재주가 매우 정교합니다." 조조가 즉시 소월을 불러들여 전각의 도면을 그리게 했다. 소월이 아홉 칸 규모의 대전과 앞뒤의 회랑, 누각 등을 그려 바치자, 조조가 이를 보고 말했다. "네 그림이 내 뜻에 아주 잘 맞구나. 다만 건물을 지을 만한 튼튼한 재목이 없을까 걱정이다." 소월이 대답했다.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약룡담이라는 못이 있고, 그 앞에 약룡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옆에는 높이가 10여 장이나 되는 커다란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이라면 건시전의 대들보로 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 오게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보고하기를 톱으로 썰어도 갈라지지 않고 도끼로 찍어도 들어가지 않아 도저히 벨 수 없다고 하였다. 조조는 믿지 않고 직접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약룡사 앞까지 가서 말에서 내렸다. 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보니, 마치 화려한 덮개처럼 우뚝 솟아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듯했으며 가지가 굽은 곳 하나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조조가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자 마을 노인 몇 명이 다가와 간언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된 나무로, 평소 신령이 그 위에 머문다고 하니 베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가 평생 천하를 유람하며 마흔 해 넘게 지내는 동안, 높은 이는 천자요 낮은 이는 백성이라 할 것 없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어떤 요사스러운 신이 감히 내 뜻을 거스른단 말이나!" 말을 마친 조조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 직접 나무를 내리쳤다. 그러자 쟁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온몸에 튀었다. 조조는 깜짝 놀라 칼을 내던지고 말에 올라타 궁 안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두경(밤 10시~자정 사이)이 되자,

조조는 잠자리가 불안하여 전각 안에 앉아 탁자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든 검은 옷의 사내가 나타나 조조의 눈앞까지 다가오더니, 조조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나는 배나무의 신이다! 네가 건시전을 지으려는 것은 찬탈을 꾀하는 반역질이면서, 감히 나의 신령스러운 나무를 베려 하느냐! 네 수명이 다한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조조가 크게 놀라 급히 외쳤다. "무사들은 어디 있느냐!" 검은 옷의 사내가 칼을 들고 조조를 베려 하자, 조조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조조는 급히 명을 내려 명의를 찾아다녔으나, 어떤 치료로도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이를 본 관리들은 모두 근심에 빠졌다.

화흠이 나아가 고했다. "대왕께서는 신의라 불리는 화타를 아십니까?"

조조가 물었다. "강동의 의원 주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이름은 들어보았으나 그 의술이 어떠한지는 모르겠구나."

화흠이 대답했다. "화타의 자는 원화이며, 패국 초군 사람입니다. 그 의술이 오묘하여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환자가 생기면 약을 쓰기도 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기도 하는데,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곤 합니다. 만약 오장육부에 병이 들어 약이 듣지 않을 때는 마페탕을 마시게 하여 환자를 마치 술에 취해 죽은 것처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배를 갈라 약탕으로 장부를 씻어내는데, 환자는 통증

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씻어낸 뒤에 약실로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두면, 한 달 혹은 이십 일 만에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 신묘함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화타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타가 살펴보다니 '음식을 먹지 못하는 병이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화타가 마늘즙 세 되를 가져오게 하여 마시게 했더니, 길이 두세 자나 되는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그 제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릉 태수 진등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음식을 먹지 못하자 화타에게 치료를 청했습니다. 화타가 약을 마시게 했더니 벌레 세 되가 나왔는데, 모두 머리와 꼬리가 움직이는 붉은 벌레였습니다. 진등이 그 이유를 묻자 화타가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독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병은 나았으나 삼 년 뒤에 반드시 재발할 것이니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진등은 삼 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썹 사이에 종기가 생겨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려워 하자 화타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화타가 '안에 날아다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화타가 칼로 절개하자 노란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갔고, 환자는 즉시 나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에게 발가락을 물린 뒤 살이 두 덩이 돌아났는데,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타가 '아픈 곳에는 침 열 개가 들어있고, 가려운 곳에는 흑백 바둑알 두 개가 들어있

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았으나, 화타가 칼로 절개해 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편작이나 창공 같은 명의입니다. 지금 금성에 머물고 있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밤낮없이 화타를 불러들여 맥을 짚고 병세를 살피게 했다. 화타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머리에 통증이 심하신데, 이는 풍증이 일어난 탓입니다. 병의 근원이 머릿속에 있어 풍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약만 드셔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제게 방법이 하나 있으니, 먼저 마폐탕을 마신 뒤에 날카로운 도끼로 머리를 갈라 그 안의 풍기를 꺼내야만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하며 외쳤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냐!"

화타가 대답했다. "대왕께서도 예전에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 오른팔을 다쳤을 때, 제가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해도 관우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던 일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병은 그보다 가벼운 것인데 어찌 이리 의심이 많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팔의 통증은 뼈를 깎을 수 있다지만, 머리를 어찌 도끼로 가른단 말이나! 너는 필시 관우와 친분이 두터워, 이 기회를 틈타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로구나!"

조조는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해 화타를 옥에 가두고 그 내막을 심문하게 했다. 가후가 간언했다. "이토록 훌륭한 의원은 세상에 드무니, 함부로 폐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이 자는 기회를 틈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니, 이는 (예전에 나를 독살하려던) 길평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고는 급히 화타를 다시 잡아 심문하도록 명령했다.

화타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오 씨 성을 가진 한 옥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오 압옥'이라 불렀다. 이 사람은 매일 술과 음식을 가져다 화타를 정성껏 보살폈다. 화타는 그의 은혜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운명인데, 아쉽게도 《청낭서》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려. 그대의 두터운 정성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내가 책을 한 권 쓸 테니 그대가 사람을 보내 우리 집에 있는 《청낭서》를 가져다주시오. 그것을 그대에게 주어 나의 의술을 잇게 하고 싶소."

오 압옥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만약 이 책을 얻게 된다면, 이 관직을 버리고 천하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선생의 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화타는 즉시 책을 써서 오 압옥에게 건네주었다. 오 압옥은 금성까지 가서 화타의 아내를 만나 《청낭서》를 받아온 뒤, 다시 옥으로 돌아와 화타에게 전달했다. 내용을 다 확인한 화타는 곧바로 그 책을 오

압옥에게 선물로 주었다. 오 압옥은 그 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소중히 숨겨두었다.

열흘쯤 지나 화타가 결국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자, 오 압옥은 관을 사서 장례를 모두 마친 뒤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서 《청낭서》를 가져와 의술을 익히고 싶었으나,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그 책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 압옥은 깜짝 놀라 급히 책을 뺏으려 했지만, 책은 이미 거의 다 타버리고 고작 한두 장만이 남은 상태였다.

오 압옥이 크게 화를 내며 아내를 꾸짖자, 아내가 말했다.

"설령 화타처럼 신묘한 의술을 배운다 한들, 결국 저 차디찬 감옥에서 죽게 될 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오 압옥은 탄식하며 더는 나무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낭서》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였고,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불타다 남은 한두 장에 적힌 거세한 수탉이나 돼지를 다루는 사소한 비법뿐이었다. 후대의 한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화타의 신선한 의술은 장상(長桑)에 비견될 만큼 놀라워, 마치 신령한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했네. 슬프도다, 사람은 죽고 책마저 끊겼으니, 후세 사람들은 다시는 《청낭서》를 볼 수 없으리라."

한편, 조조는 화타가 죽은 뒤 병세가 더욱 깊어졌고, 오나라와 촉나라의 정세 때문에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한창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

까이 모시는 신하가 동오에서 사신을 보내 서신을 올렸다고 급히 보고했다. 조조가 서신을 가져다 펼쳐 보니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신 손권은 천명이 이미 폐하께 돌아갔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하루빨리 정식으로 대위에 오르시고, 장수를 보내 유비를 토벌하여 두 지방을 평정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신이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땅을 바치며 항복하겠습니다."

조조는 그 내용을 다 보고는 크게 웃으며 신하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나를 화로 불 위에 올려놓으려 하는구나!" 그러자 시중 진군 등이 아뢰었다. "한나라의 국운은 이미 오래전에 쇠약해졌습니다. 전하의 공덕은 높고도 높아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손권이 신하를 자처하며 항복해 왔으니, 이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하는 것이요, 천하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징조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의 뜻을 받드시고, 하루빨리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나라를 위해 일한 지 이미 오래되어 백성들에게 공을 세우기는 했으나, 왕의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명예와 작위는 극치에 달했다.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욕심을 품겠는가? 만약 하늘의 명운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나라의 문왕과 같은 군주가 되겠다." 사마의가 말했다. "이제 손권이 신하를 자처하며 귀순하였으니, 왕께서 관직과 작위를 내려 그가 유비를 막도록 부리셔야 합니다." 조조가 그 말을 따랐다. 조조는 손권을 표문을 올려 표창하여 표기장군 남창후로 봉하고 형주목을 겸하게 했다. 그리고 즉시 사절을 보내 임명장과 칙서를 들고 동오로 보냈다.

조조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말 세 마리가 한 구유에 모여 여물을 먹는 것을 보았다. 아침이 되자 조조가 가후에게 물었다. "내가 예전에 말 세 마리가 한 구유에서 먹는 꿈을 꾸어, 마등 부자가 화를 일으킬까 의심한 적이 있었소. 그런데 마등은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어젯밤 꿈에 다시 말 세 마리가 한 구유에서 먹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यो?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말해 보시오." 가후가 대답했다. "그것은 복과 말이 함께 들어오는 길조입니다. 복과 말이 조조님께 돌아가는 형상이니, 어찌 의심하시겠습니까?"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훗날 어떤 이가 시를 지어 이렇게 읊었다.

"말 세 마리가 한 구유에서 먹으니 의심스러운 법도 한데, 그것이 이미 진나라의 기틀을 심은 줄은 몰랐구나. 조조는 헛되이 간웅의 책략만 가졌을 뿐, 조정에 사마씨가 나타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날 밤 조조가 침소에서 잠을 자는데, 삼경쯤 되자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조조는 일어나 책상에 엎드려 쉬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각 안에서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조조가 놀라 살펴보니, 복황후와 동귀인, 두 황자와 복완, 동승 등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슬픈 구름 속에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서늘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조가 급히 칼을 뽑아 허공을 향해 휘두르자, 갑자기 굉음이 울리더니 전각의 남서쪽 모퉁이가 무너져 내렸다. 조조는 너무 놀라 땅에 쓰러졌고, 곁을 지키던 신하들이 그를 구해 다른 궁으로 옮겨 병을 돌보게 했다. 다음 날 밤에도 전각 밖에서는 남녀의 울음소리가 끊

이지 않았다. 날이 밝자 조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내가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온 지 삼십여 년 동안, 괴이한 일을 믿어본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신하들이 아뢰기를, "대왕께서 도사를 불러 제사를 지내며 재앙을 물리쳐야 합니다"라고 했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했다. 나의 천명이 이미 다하였는데, 어찌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결국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조조는 기운이 가슴 위로 치밀어 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져자 급히 하후돈을 불러 의논하려 했다. 하후돈이 전각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먹구름 속에서 복황후와 동귀인, 두 황자와 복완, 동승 등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후돈은 크게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밖으로 옮긴 뒤부터 병이 깊어졌다.

조조는 조홍, 진군, 가후, 사마의 등을 불러 침상 곁으로 모으고 뒷일을 당부했다. 조홍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왕께서는 부디 몸을 잘 보살피십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쾌차하실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천하를 누비며 삼십여 년을 보냈으나, 수많은 영웅이 멸망하고 오직 강동의 손권과 서촉의 유비만이 남았을 뿐 아직 다스리지 못했다. 내가 이제 병세가 위중하여 다시는 그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 특별히 집안일을 부탁하고자 한다. 나의 장남 조앙은 유씨 소생이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완성에서 죽었다. 지금 변씨가 낳은 네 아들은 조비, 조창, 조식, 조웅이다. 내가 평생 아끼던 셋째 조식은 겉치레만 화려하고 진실함이 부족하며 술을 즐기고 방탕하여 후계자로 세울 수 없다. 둘째 조창은 용맹하나 지략이 없고, 넷째 조웅은 몸

이 약해 살아가기 어렵다. 오직 장남 조비만이 성품이 두텁고 공경하며 신중하니, 내 가업을 이을 만하다. 그대들은 마땅히 조비를 보필해야 한다."

조흥을 비롯한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들고 물러났다. 조조는 곁을 지키던 이들에게 평소 아껴두었던 이름난 향을 가져오게 하여 여러 첩에게 나누어 주며 당부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반드시 바느질과 같은 여인들의 기술을 부지런히 익혀라. 신발이나 옷을 많이 만들어 팔면 돈을 벌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첩에게는 동작대 안에서 머물며 매일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악공들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음식을 올리라고 명했다. 이어 장덕부 강무성 밖에 의문의 무덤인 의총 일흔두 개를 만들어 두어, 후세 사람들이 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했다. 혹여나 누군가 파헤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당부를 마친 조조는 길게 탄식하며 비오듯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숨이 끊어져 세상을 떠났다. 향년 예순여섯 살이었으니, 때는 건안 25년 봄 정월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업중가』라는 시를 지어 조조를 탄식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업성은 장덕의 물길이 흐르는 곳이니, 이곳에서 비범한 인물이 일어났도다. 웅대한 계략과 문학적 재능을 갖추었으니, 군신과 형제, 부자 사이의 정이 깊었네. 영웅은 속세의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그 출몰을 어찌 사람의 눈으로 다 알겠는가. 공의 시작과 죄의 근원이 둘이 아니니,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남긴 것은 오직 그 한 몸뿐이로다. 문장은 신묘하고 기상은 패권자 같으니, 어찌 이대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겠는

가. 태행산맥을 가로질러 대를 쌓아 올린 기세는, 천지의 이치와 맞서며 드높게 솟구쳤네. 어찌 이 사람이 역적이 되지 않았겠는가, 작게는 패자가 되고 크게는 왕이 되지 않았겠는가. 패왕의 기세가 이제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남았으니, 가슴 속 응어리진 한을 어찌하리오. 장막 앞에서 명을 내린 것이 이롭지 못함을 알았으나, 향을 나누어 준 정이 어찌 무정하다 하겠는가. 아아! 옛사람이 행한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적막함과 화려함 속에 모두 뜻이 담겨 있거늘. 글쟁이들은 무덤 속 사람을 함부로 논하나, 무덤 속 영웅은 너희 글쟁이들의 가벼움을 비웃노라!"

한편,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문무백관이 모두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동시에 사람을 보내 세자인 조비와 언릉후 조창, 임치후 조식, 소회후 조웅에게 부친의 부고를 알렸다. 관리들은 금관과 은곽을 사용하여 조조의 시신을 입관한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정을 모시고 업군으로 향했다. 소식을 들은 조비는 목놓아 통곡하며, 크고 작은 관리들을 이끌고 성 밖 십 리까지 나가 길목에 엎드려 영정을 맞이한 뒤 편전으로 모셨다. 관리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전각 위에 모여 통곡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세자께서는 슬픔을 거두시고 우선 큰일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 그는 바로 중서자인 사마부였다. 사마부가 말했다. "위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천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서둘러 후계 왕을 세워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하거늘, 어찌 울기만 하고 계십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세자가 자리를 이어받아야 마땅하나, 아직 천자의 조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병부상서 진교가 말했다. "왕께서 타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사로이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 나라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도포 소매를 베어버리며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즉시 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청합니다! 만약 이견이 있는 관리가 있다면 내 도포를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백관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갑자기 화흠이 허창에서 말을 달려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가 크게 놀랐다.

잠시 후 화흠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그가 온 이유를 물었다. 화흠이 말했다. "지금 위왕께서 돌아가셔서 천하가 어지러운데, 어찌하여 서둘러 세자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대답했다. "조서를 기다릴 겨를이 없어, 왕후 변씨의 자애로운 뜻을 빌려 세자를 왕으로 세우려 논의하던 참이었습니다." 화흠이 말했다. "내 이미 한나라 황제에게서 조서를 받아왔소."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축하했다.

화흠이 품속에서 조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화흠은 위나라에 아첨하기 위해 이 조서를 미리 초안하여 헌제를 위협해 받아낸 것이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에, 조비를 위왕, 승상, 기주목으로 봉한다는 조서를 내린 것이었다. 조비는 그날 즉시 자리에 올라 크고 작은 관리들의 배례를 받았다.

한창 잔치를 열어 축하하던 중, 갑자기 언릉후 조창이 장안에서 십만 대군을 이끌고 달려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조비는 크게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다.

"언릉후는 평소 성격이 강직하고 무예에도 매우 능한 자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멀리서 왔으니, 필시 나와 왕위를 다투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때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며 나타나 말했다.

"신이 직접 언릉후를 만나 짧은 말로 그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대부 같은 재주가 아니고서야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씨 가문의 조비와 조창이 다투는 모습은 마치 과거 원씨 가문의 형제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던 일과도 같았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태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9회 — 형이 동생을 압박하여 조식이 시를 짓고, 조카가 숙부를 함정에 빠뜨려 유봉이 법을 받다

兄逼弟曹植賦詩 姪陷叔劉封伏法

한편, 조비는 조창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관리들에게 물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직접 가서 그를 굴복시키겠다고 자원했다.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니 바로 간의대부 가규였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가규에게 길을 떠나라고 명했다. 가규는 명을 받들어 성 밖으로 나가 조창을 맞이했다. 조창이 물었다. '선왕의 옥새와 인장은 어디에 있소?' 가규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집안에는 장자가 있고 나라에는 후계자가 있는 법이니, 선왕의 옥새와 인장은 그대가 물을 일이 아니오.' 조창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가규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다. 궁궐 문 앞에 이르자 가규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이곳에 온 것은 상례를 치르기 위함ियो, 아니면 왕위를 다투기 위함ियो?' 조창이 말했다. '나는 상례를 치르러 온 것이지, 다른 뜻 마음은 없소.' 가규가 말했다. '다른 마음이 없다면 어찌 군사를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 했소?' 조창은 즉시 좌우의 장수와 병사들을 물려 나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조비를 알현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크게 울었다. 조창은 자신이 거느리던 군마를 모두 조비에게 바쳤다. 조비는 조창에게 연릉으로 돌아가 스스로 성을 지키라고 명했고, 조창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로써 조비는 왕위에 올라 평안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건안 25년을 연강 원년으로 고쳐 삼았다. 가후를 태위로, 화흠을 상국으로, 왕랑을 어사대부로 봉하였으며, 크고 작은 모든 관료에게 승진과 포상을 내렸다. 조조의 시호는 무왕이라 정하고 업군 고릉에 장례를 치렀다. 우금에게 명하여 능묘를 관리하게 하였다. 우금이 명을 받들어 그곳에 가보니, 능묘 안 흰 벽에 관우가 칠군을 물에 빠뜨리고 우금을 사로잡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관우는 위엄 있게 앉아 있고, 방덕은 분노하며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며, 우금은 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형상이었다. 본래 조비는 우금이 전쟁에서 패해 사로잡힌 뒤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됨을 경멸하였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시켜 능묘의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일부러 우금이 이를 보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 했던 것이다. 우금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가 치밀어 병이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훗날 어떤 이가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삼십 년 세월 흐른 뒤 옛 벗을 이야기 하니, 난관에 처해 조조에게 충성하지 못한 것이 가련하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니, 이제야 그림 속 호랑이가 뺏속까지 그려졌네.'

한편, 화흠이 조비에게 아뢰었다. '언릉후(조창)는 이미 군마를 넘겨 주고 자기 영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임치후 조식과 소회후 조용 두 사람은 끝내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비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두 곳에 사신을 보내 죄를 물으라 명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회후의 사신이 돌아와 보고했다. '소회후 조용이 죄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하였습니다.' 조비는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게 하고, 사후에 소회왕으로 추증하였다. 또 하루가 지나자 임치후의 사신이 돌아와 보고했다. '임치후 조식은 정의, 정익 형제와 함께 매일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며 예의를 저버리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신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도 조식은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의가 꾸짖기를, '옛날에 선왕께서 본래 우리 주군을 세자로 세우려 하셨으나 간신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혈육에게 죄를 묻느냐?'라고 했습니다. 정익 또한 '우리 주군께서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총명을 가지셨으니 마땅히 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도리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라는 자들이 어찌 이토록 인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조식이 화가 나서 무사들을 꾸짖어, 저들을 몽둥이로 때려 쫓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비는 크게 노하여 즉시 허저에게 호위군 삼천 명을 거느리고 신속히 임치로 가서 조식과 그 일행을 모두 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허저는 명령을 받들고 군사를 이끌고 임치성으로 달려갔다. 성을 지키던 장수가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하자, 허저는 그를 베어버리고 곧장 성 안으로 진격했다. 성 안에는 그 누구도 허저의 기세에 맞서지 못했고, 허저는 그대로 관저에 들이닥쳤다. 관저 안을 보니 조식과

정의, 정익 등이 모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허저는 그들을 모두 결박하여 수레에 실었으며, 관저 아래의 크고 작은 관리들까지 모조리 잡아 업군으로 압송하여 조비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조비는 명령을 내려 먼저 정의와 정익 등을 모두 처형했다. 정의의 자는 정례이고 정익의 자는 경례로, 두 사람 모두 패군 출신의 당대 문사들이었기에 그들이 죽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한편, 조비의 어머니 변씨는 조웅이 목을 매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던 차에, 조식마저 붙잡혔으며 그의 측근인 정의와 정익 등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고는 크게 놀랐다. 변씨는 급히 전각 밖으로 나가 조비를 불러 만났다. 조비는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예를 갖추었다. 변씨는 울면서 조비에게 말했다.

"네 동생 조식은 평소 술을 좋아하고 행실이 거칠었으나, 이는 제 재능을 믿고 방종하게 행동한 탓이다. 너는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조비가 대답했다.

"저 또한 동생의 재능을 깊이 아끼는데 어찌 그를 해치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그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뿐이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씨가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비는 편전 밖으로 나가 조식을 불러들였다. 화음이 물었다.

"방금 태후께서 전하께 조식의 죽음을 만류하신 것입니까?"

조비가 대답했다.

"그렇다."

화흠이 말했다.

"조식은 재주와 지혜를 품고 있어 결코 평범한 인물로 남을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일찍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조비가 말했다.

"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

화흠이 다시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조식이 말을 하면 곧장 문장이 된다고들 하지만, 신은 아직 깊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상께서 그를 불러 재능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재능이 없다면 즉시 처형하시고, 만약 정말로 재능이 있다면 그를 강등시켜 천하 문인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조비가 그 말에 따랐다. 잠시 후 조식이 들어와 황공해하며 엎드려 죄를 청했다. 조비가 말했다.

"너와 내가 비록 형제 사이라 하나, 의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다. 네가 어찌 재주를 믿고 예의를 저버릴 수 있느냐? 옛날 선왕께서 살아 계실 때 너는 늘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뽐내곤 했는데, 나는 네가 반드시 남을 시켜 글을 대신 쓰게 하는 것이라 깊이 의심해 왔다. 내가 지금

네게 일곱 걸음을 걸으며 시 한 수를 짓게 하겠다. 만약 정말로 해낸다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지만, 해내지 못한다면 엄히 다스릴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조식이 말했다.

"바라건대 시제를 주시옵소서."

마침 전각 위에는 먹으로 그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소 두 마리가 흙담 아래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조비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그림을 시제로 삼겠다. 다만 시 속에 '두 소가 담 아래서 싸우다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조식이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가 완성되었다. 조식의 시는 이러했다.

"두 마리 살덩이 나란히 길을 가다, 머리엔 움푹한 뼈를 엮었네. 산 기슭에서 서로 마주치니, 갑자기 달려들어 세차게 부딪히네. 두 적수가 모두 강하지 못하니, 한 마리 살덩이 흙 구덩이에 누웠구나. 힘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운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네."

조비와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조비가 다시 말했다.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글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나는 그것조차 느리고 생각한다. 너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겠

느냐?" 조식이 말했다. "원하신다면 즉시 주제를 내려 주십시오." 조비가 말했다. "나는 너와 형제 사이니, 이 사실을 주제로 삼겠다. 단, 시 안에 '형제'라는 글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조식이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곧바로 입으로 읊조리며 시 한 수를 지어냈다.

"콩을 삶으려 콩깍지를 태우니, 솥 안의 콩이 울고 있구나.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삶아대는가!"

조비가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러자 뒤편에서 어머니 변씨가 나타나 말했다. "형님, 어찌하여 동생을 이토록 몰아세우십니까?" 조비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비는 조식을 안향후로 강등시켰다. 조식은 조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말에 올라 떠나갔다.

조비는 즉위한 뒤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고 한나라 황제를 위협했는데, 그 기세가 아버지 조조보다 훨씬 더했다. 이 소식은 이미 첩자를 통해 성도에 전해졌다. 한중왕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문무백관과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즉위하더니, 천자를 위협하는 기세가 조조보다 더 심하구나. 동오의 손권마저 손을 들어 신하를 자처하고 있으니, 나는 먼저 동오를 쳐서 관우의 원수를 갚고, 그다음 중원을 토벌하여 저 난적들을 제거하려 한다."

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료화가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울며 절했다.

"관우 부자가 해를 입은 것은 사실 유봉과 맹달의 죄입니다. 부디 이 두 역적을 처단해 주십시오!"

유비가 즉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잡아 오려 하자, 제갈량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일단은 천천히 도모해야 합니다.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저 두 사람을 군수로 승진시켜 멀리 떨어뜨려 놓은 뒤에, 그때 잡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는 그 의견을 따르고, 곧바로 사신을 보내 유봉을 면죽의 수비 임무에 임명했다. 본래 팽양과 맹달은 사이가 매우 두터웠는데, 이 일을 전해 들은 팽양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쓴 뒤 심복을 보내 맹달에게 이 소식을 신속히 알렸다. 그런데 사신이 남문을 막 나서자마자 순찰 중이던 마초의 군사들에게 붙잡혔고, 마초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마초가 이 일을 자세히 심문한 뒤 곧장 팽양을 찾아갔다. 팽양은 마초를 맞이하며 술을 대접했다. 술이 몇 차례 돌자 마초가 말로 그를 떠보며 물었다. '예전에 한중왕께서 공을 매우 두텁게 대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이토록 소홀해지신 것입니까?' 팽양은 술에 취한 나머지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늙은이가 망령되게 행동하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마초가 다시 슬쩍 떠보았다. '저 또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자 팽양이 말했다. '공께서 본부의 군사를 일으켜 맹달과 결탁해 밖에서 호응하고, 제가 사천의 군사를 거느려 안에서 내응한다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초가 대답했다. '선생의 말씀이 매우 타당합니다.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마초는 팽양과 작별한 뒤, 곧바로 사람과 편지를 가지고 한중왕에게 가서 그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노하여 즉시 팽양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자세한 내막을 고문하게 했다. 팽양은 옥중에서 뒤늦게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팽양이 반역할 뜻을 품었으니, 어떻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팽양이 비록 미친 선비라 하나, 그를 살려두면 반드시 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에 유비는 옥중의 팽양에게 죽음을 내렸다.

팽양이 죽었다는 소식이 맹달에게 전해졌다. 맹달은 크게 놀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 그때 갑자기 사자가 도착하여, 유봉을 불러 면죽으로 돌아가 수비하게 했다. 맹달은 당황한 나머지 상용과 방릉의 도위인 신탐과 그의 동생 신의 형제를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나와 법효직(법정)은 함께 한중왕께 공을 세웠소. 그런데 이제 효직마저 죽고, 한중왕께서 나의 예전 공로를 잊으신 채 나를 해치려 하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신탐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한중왕께서 공을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맹달은 크게 기뻐하며 급히 어떤 계책인지 물었다. 신탐이 대답했다. '저희 형제도 위나라에 투항하고 싶었던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께서 상소문을 하나 작성하여 한중왕께 작별을 고하고 위나라 왕 조비에게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조비가 반드시 공을 중용할 것입니다. 저희 형제도 뒤따라 행복하겠습니다.' 맹달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즉시 상소문을 한 통 써서 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병 50여 명을 이끌고 위나라로 투항해 버렸다. 사자는 상소문을 가지고 성도로 돌아가 맹달이 위나라에 투항했다는 사실을 한중왕에게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노하며 맹달이 쓴 상소문을 읽고 말했다.

'신 맹달이 전하께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윤과 여상(강태공) 같은 위업을 세우시고 제 환공과 진 문공 같은 패업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라의 큰 기틀을 처음 세우실 때 오나라와 초나라의 세력을 빌려 쓰셨기에, 뜻있는 인재들이 그 기세를 보고 앞다투어 귀순해 왔습니다. 신이 전하를 섬긴 이래로 허물과 잘못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니, 신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전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정에는 영특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으나, 신은 안으로는 보좌할 능력이 없고 밖으로는 군사를 이끌 재주가 없어 공신들의 대열에 끼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신이 듣기로, 범려는 미세한 조짐을 알아차리고 오호(다섯 호수)에 배를 띄워 은둔하였고, 구범(狐偃)은 죄를 사죄하며 황하 가에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기회를 만났을 때 목숨을 청하거나 몸을 빼어 물러나려는 것은 어찌하여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아감과 물러남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신은 미천하여 나라를 세우는 큰 공도 없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얽매어 있으니, 옛 현인들을 흠모하여 일찍이 부끄러움을 멀리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옛날 신생은 효성이 지극했으나 부모에게 의심을 받았고, 오자서는 충성이 지극했으나 임금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몽염은 영토를 넓혔으나 큰 형벌을 받았고, 악의는 제나라를 격파했으나 간신들의 모함을 받았습시다. 신은 매번 그들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이 직접 그러한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슬프고 애통할 따름입니다!'

'요즘 형주가 무너지고 대신들이 절개를 지키지 못해 백 명 중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신만이 일을 찾아 스스로 방릉과 상용에 이르렀으나, 이제 다시 몸을 빼어 밖으로 물러나기를 청하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러운 은혜로 깨달으시어 신의 마음을 가없이 여기시고 신의 처사를 안타까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소인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리하였으니, 감히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신은 매번 '사궐이 끊어져도 험담이 없어야 하고, 떠나는 신하에게 원망의 말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은 일찍이 군자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부디 임금님께서도 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비는 이 글을 다 읽고 크게 노하여 외쳤다. '저런 필부가 나를 배신하고도 감히 문장으로 나를 희롱하려 드는구나!' 유비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우선 유봉을 보내 진군시켜, 두 호랑이가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십시오. 유봉이 공을 세우든 패하든 결국 성도로 돌아올 것이니, 그때 처치하면 두 가지 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따랐다. 곧바로 사자를 면죽으로 보내 유봉에게 명령을 전했다. 유봉은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맹달을 잡으러 나섰다.

한편, 조비가 문무백관과 모여 정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까운 신하가 달려와 보고했다. “촉나라 장수 맹달이 항복하러 왔습니다.” 조비가 그를 불러 묻기를, “네가 온 것이 혹시 거짓 항복은 아니냐?”라고 하자, 맹달이 대답했다. “제가 관우의 위기를 구하지 못한 일 때문에 한중왕 유비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 죄가 두려워 항복하러

온 것이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비가 아직 그 말을 다 믿지 못하고 있는데, 돌연 유봉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양양을 치러 왔으며, 맹달을 붙잡아 죽이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비가 말했다. “네가 정말 진심이라면, 양양으로 가서 유봉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맹달이 말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 설득하면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이 유봉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맹달을 산기상시, 건무장군, 평양정후로 승진시키고 신성태수로 삼아 양양과 번성을 지키게 했다. 원래 하후상과 서황이 이미 양양에 머물며 상용의 여러 부대를 수습하고 있었다. 맹달이 양양에 도착하여 두 장수와 인사를 나눈 뒤 살펴보니, 유봉이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맹달은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사람을 보내 유봉의 진영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유봉은 편지를 읽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이 도둑놈이 나의 숙질 간의 의리를 어지럽히고, 부자 간의 친밀함까지 이간질하여 나를 불충불효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유봉은 이어서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심부름꾼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맹달은 유봉이 서찰을 찢고 사신의 목을 베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하여,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다. 양쪽 진영이 마주 서자, 유봉은 깃발 아래 말에 올라타 칼로 가리키며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놈아, 감히 어디서 함부로 말을 내뱉느냐!' 맹달이 대답했다. '네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구나!' 유봉은 크게 화가 나 말에 올라타 칼을 휘두르며 맹달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이 맞붙은 지 세 합도 되지 않아 맹달은 패하여 달아났고, 유봉은 그 기세를 몰아 20여 리를 추적했다. 그때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왼쪽에서는 하
 후상이, 오른쪽에서는 서황이 들이닥쳤다. 맹달이 몸을 돌려 다시 싸
 워보려 했으나 이미 삼군이 협공하는 형세였다. 유봉은 대패하여 밤새
 상용으로 도망쳤으나, 뒤에서는 위나라 군사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
 다. 유봉이 성문 아래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외쳤으나, 성 위에서는 화
 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루에 있던 신탐이 외쳤다. '나는 이미 위나라
 에 항복했다!' 유봉은 분노하여 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뒤에서는 추격
 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붙일 곳이 없어진 유봉은 어쩔 수 없이 방랑
 쪽을 바라보며 달아났는데, 성 위에는 이미 위나라의 깃발이 가득 꽂혀
 있었다. 성루에 있던 신의가 깃발을 한 번 흔들자 성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는데, 깃발에는 '우장군 서황'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유봉은 적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급히 서천 방향으로 도망쳤고, 서황은
 그 기세를 몰아 추격했다. 유봉의 부하들은 겨우 백여 명의 기병만 남
 게 되었다. 유봉이 성도에 도착하여 한중왕 유비를 알현하고는 땅에 엎
 드려 울며 지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가 노하며 꾸짖었다. '네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를 보러 왔느냐!' 유봉이 말했다. '숙부님의 위기
 상황에서 제가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맹달이 간언하며 막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자 유비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사람의 밥
 을 먹고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이니,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
 다! 어찌 간사한 역적의 말을 듣고 일을 그르쳤단 말이나!' 유비는 즉시
 좌우에 명하여 유봉을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한중왕 유비는 유봉을
 처형한 뒤, 나중에 맹달이 유봉을 회유하려 했을 때 유봉이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사신을 베어버린 일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자못 후회했다.
 또한 관우를 잃은 슬픔이 더해져 병까지 얻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군사
 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한편, 위나라의 왕 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 문무 관료들을 모두 승진시키고 상을 내렸다. 이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 패국 초현으로 순행하여 선왕의 능묘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길에 먼지가 일 정도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술잔을 받들어 올렸으니, 마치 한나라 고조가 패현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같았다. 그때 대장군 하후돈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비는 즉시 업군으로 돌아갔다. 이미 하후돈은 세상을 떠난 뒤였으나, 조비는 상복을 입고 슬퍼하며 정중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해 8월경, 석읍현에는 봉황이 나타나 예법을 갖추어 날았고, 임치성에는 기린이 나타났으며, 업군에는 황룡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중랑장 이복과 태사승 허지가 상의하였다.

"이러한 상서로운 징조들은 모두 위나라가 천명을 받아 한나라를 대신할 징조입니다. 이제 선왕의 예법을 준비하여, 한나라 황제가 천하를 위왕에게 양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화흠, 왕랑, 신비, 가후, 유익, 유엽, 진교, 진군, 환계 등 문무 관료 40여 명과 함께 내전으로 곧장 들어가 한나라 헌제에게 조아리며, 천하를 위왕 조비에게 물려줄 것을 청하였다.

과연 이러하다.

"위나라의 사직이 이제 세워지려 하니, 한나라의 강산은 갑자기 옮겨가려 하는구나."

과연 헌제는 이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0회 — 조비가 황제를 폐하고 한나라 (염류)를 찬탈하며, 한왕이 정통을 이어 대통을 잇다

曹丕廢帝篡炎劉 漢王正位續大統

한편, 화흠을 비롯한 문무백관이 헌제를 알현했다. 화흠이 나아가 말했다.

"위왕께서는 왕위에 오른 이래로 그 덕망이 사방에 떨치고 인자함이 만물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의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에 비견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신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한나라의 운수는 이미 다하였으니 폐하께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를 본받아 산천과 사직을 위왕에게 선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 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폐하께서는 편안하고 한가로운 복을 누리실 것이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것이요 만백성 또한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저희 신하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바를 이제 폐하께 올리나이다."

현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백관들을 바라보며 울먹이며 말했다.

"짐이 생각하기에 고조께서 석 자 길이의 칼(삼척검) 한 자루를 들고 뱀을 베며 의병을 일으켜 진나라를 평정하고 초나라를 멸하며 기틀을 닦으신 이래, 대대로 이어져 온 지 벌써 사백 년이다. 짐이 비록 재능은 부족하나 처음부터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거늘, 어찌 조상님들이 일구신 대업을 이토록 허망하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다시 한번 공적인 차원에서 의논해 보아라."

화흠이 이복과 허지를 앞으로 불러 대고 말했다. "폐하께서 믿기 어려우시다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이복이 아뢰었다. "위왕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기린이 태어나고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며, 황룡이 나타나고 풍년이 드는 곡식이 무성해졌으며,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하늘이 상서로운 징조를 보여 주신 것이니, 위나라가 한나라를 대신할 징조입니다."

허지도 이어 아뢰었다. "저희는 천문을 관측하는 직책을 맡아 밤마다 하늘의 형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한나라의 기운은 이미 다 하였고, 폐하의 제왕의 별은 빛을 잃어 불분명합니다. 위나라의 천문은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예언된 도참과도 일치합니다. 그 도참에 이르기를, '귀신이 변방에 있고 위임으로 이어지니, 한나라를 대신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은 동쪽에 있고 오(午)는 서쪽에 있으니, 두 해가 나란히 빛나며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논해 볼 때, 폐하께서는 어서 선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귀신이 변방에 있고 위임으로 이어지니'라는 구절은 '위(魏)' 자를 뜻하고, '말은 동쪽에 있고 오(午)는 서쪽에 있다'는 '허(許)' 자를 뜻하며, '두 해가 나란히 빛나며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창(昌)' 자를 뜻합니다. 즉, 위나라가 허창에서 한나라의 선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소서."

헌제가 말했다. "상서로운 징조니 도참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허망한 일이다. 어찌 그런 허망한 일을 근거로 짐더러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기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왕랑이 아뢰었다. "예로부터 흥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있고, 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쇠하는 법입니다. 어찌 망하지 않는 나라와 패하지 않는 가문이 있겠습니까? 한나라 왕실이 400여 년을 이어오다 폐하 대에 이르러 기운이 다하였으니, 마땅히 일찍 물러나 피하셔야지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다가는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헌제가 크게 울며 후전으로 들어가 버리자, 백관들은 비웃으며 물러갔다.

다음 날, 관리들이 다시 대전으로 모여들자 환관을 보내 헌제에게 나오라고 청했다. 헌제는 두려움에 떨며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조후가 말했다. "백관이 폐하께 조회를 열 것을 청하는데, 어찌하여 계속 거절하십니까?" 헌제가 울며 말했다. "그대의 오라버니가 황제 자리를 찬탈하려 하여 백관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느냐." 조후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오라버니는 어찌하여 이런

반역을 저지르려 하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흥과 조휴가 칼을 찬 채 들어와 헌제에게 전각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조휴가 크게 꾸짖었다. "너희 모두 부귀영화만을 탐하여 역모를 꾸미는 반역자들이다! 내 아버지는 온 세상에 공적이 높고 위엄이 천하를 떨쳤으나, 감히 황제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 오라버니는 황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한나라를 찬탈할 궁리만 하니, 하늘이 결코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조휴는 통곡하며 궁 안으로 들어갔고, 곁에 있던 시종들도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다.

조흥과 조휴가 힘을 합쳐 헌제를 전각 밖으로 나오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헌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옷을 갈아입고 전각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화흠이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저희가 어제 논의한 대로 따르시어 큰 화를 면하십시오.” 헌제가 통곡하며 말했다. “경들은 모두 한나라의 녹봉을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경들의 사이에는 한나라 공신들의 자손도 많거늘, 어찌 차마 이런 불충한 짓을 한단 말인가?” 화흠이 대답했다. “폐하께서 만약 여러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머지않아 집안 내부에서 재앙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저희가 폐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헌제가 물었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나?” 화흠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외쳤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군주로서의 복이 없기에 사방이 이토록 어지러운 것입니다! 만약 위왕이 조정에 계시지 않았다면, 폐하를 시해하려는 자가 한둘뿐이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아직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도리를 모르시고, 도리어 천하 사람들이 힘을 합쳐 폐하를 치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헌제는 크게 놀라 소매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랑은 눈짓으로 화흠을 바라보았다. 화흠

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 현재의 용포를 붙잡고는,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현재는 몸을 떨며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조홍과 조휴가 칼을 뽑아 들고 크게 외쳤다. “부보랑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조필이 소리에 응하여 나타나며 말했다. “부보랑이 여기 있소!” 조홍이 옥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조필이 꾸짖었다. “옥새는 천자의 보물인데, 어찌 함부로 요구한단 말이오!” 조홍이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조필을 밀쳐내고 베어 죽이게 했다. 조필은 죽는 순간까지 옥설을 퍼부으며 기개를 잃지 않았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간사한 무리가 권력을 잡으니 한나라는 망하고, 거짓으로 선양을 청하며 옛 왕조를 흉내 내는구나. 조정의 관리들은 모두 위나라를 받는데, 오직 충신 부보랑만이 홀로 빛나도다.”

현재는 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니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수백 명의 군사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위나라 군사들이었다.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짐은 천하를 위왕에게 물려주고자 하노니, 부디 목숨만은 붙여두어 남은 수명을 다하게 해 주길 바랄 뿐이다."

그러자 가후가 말했다.

"위왕께서는 반드시 폐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조서를 내려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십시오."

헌제는 어쩔 수 없이 진군에게 선양 조서를 초안하게 하고, 화흠에게 조서와 옥새를 받들어 백관을 거느리고 위왕의 궁궐까지 가서 이를 바치도록 명령했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조서를 펼쳐 읽었다.

"짐이 보위에 오른 지 삼십이 년이 되었으나, 천하가 뒤집히는 난리를 겪었다. 다행히 조상님의 영험함 덕분에 위태로운 가운데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형상을 우러러보고 백성의 마음을 살펴 보니, 불의 기운은 이미 다하였고 천운은 조씨 가문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전임 왕께서 신무한 업적을 세우셨고, 지금의 왕 또한 밝은 덕을 빛내어 그 시기에 부응하고 있으니, 그 운수가 명백하여 믿고 알 수 있다. 대도의 이치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어야 하니, 옛 요임금께서도 아들에게 자리를 사사하지 않아 그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니 짐 또한 이를 흠모한다. 이제 그 요임금의 법도를 따라 승상인 위왕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하니, 왕은 부디 사양하지 말라."

조비가 말을 다 듣고 곧바로 조서를 받으려 하자, 사마의가 간언했다. "안 됩니다. 비록 조서와 옥새가 이미 도착했으나, 전하께서는 우선 겸손한 뜻을 담은 표문을 올려 천하 사람들의 비난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조비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왕랑에게 표문을 쓰게 했다. 표문에는 스스로 덕이 부족함을 탓하며, 하늘의 자리를 이을 큰 현자를 따로 구하겠다고 적었다. 헌제가 이 표문을 읽고는 마음속으로 몹시 놀라며 의심스러워하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위왕이 이토록 겸손하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화흠이 말했다. "옛날 위무왕께서 왕의 작위를 받으실 때도 세 번이나 사양하여 조서를 거절한 뒤에야 받으셨습

니다. 지금 폐하께서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신다면, 위왕도 마땅히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환계에게 조서를 초안하게 하고, 고묘에 보내는 사신 장음을 시켜 부절을 지니고 옥새를 받들어 위왕의 궁으로 가게 했다. 조비가 조서를 읽으며 말했다.

"위왕은 들으라. 그대가 글을 올려 겸양하였으나, 짐이 보기에 한나라의 운수가 다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다행히 무왕 조조가 덕을 쌓아 하늘의 운명을 받았고, 신성한 무력으로 흉폭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천하를 평정하였다. 이제 왕이 그 뒤를 이어 지극한 덕을 빛내고 있으니, 그 명망이 온 세상에 떨치고 인애로운 바람이 팔방에 퍼져 있다. 하늘이 정한 운수가 참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다. 옛날 우순(순임금)은 스무 가지 큰 공을 세웠고, 방훈(요임금)이 그에게 천하를 선양하였으며, 대우(우임금)는 치수의 공을 세웠고 중화(순임금)가 그에게 제위를 선양하였다. 한나라는 요임금의 운수를 이어받아 성스러운 자리를 전하는 도리를 지녀왔다. 이제 하늘의 신령에 순응하고 하늘의 밝은 명을 이어, 행어사대부 장음을 보내 부절을 지니고 황제의 옥새와 인수를 받들어 전하게 하니, 왕은 마땅히 이를 받으라!"

조비는 조서를 받고 기뻐하며 가후에게 말했다. "비록 두 번이나 조서가 내려왔으나, 결국 천하와 후세 사람들이 나를 찬탈자라 비난할까 두렵소." 가후가 대답했다. "그 일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장음을 보내 옥새와 인장을 가져오게 한 뒤, 화흠에게 명하여 한나라 황제가 '수선대'라는 이름의 높은 대를 쌓게 하십시오. 그리고 길일을 골라 크고 작은 대신들을 모두 대 아래로 모은 다음, 천자가 직접 옥새와 인장을 받

들어 위왕에게 천하를 물려주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면,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고 반대 의견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음을 보내 옥새와 인장을 가져오게 하고, 겸손함을 표하는 표문을 작성하게 했다. 장음이 돌아가 헌제에게 보고하자, 헌제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위왕이 또 사양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나?" 화흠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수선대'라는 이름의 대를 쌓으시고, 대신들과 백성들을 모아 천하를 물려주는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폐하의 자손들이 반드시 위나라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헌제가 그 말을 따랐다. 헌제는 곧 태상원 관리들을 보내 번양에 터를 잡게 하고 3층 높이의 대를 쌓게 했으며, 10월 경오일 인시에 선양하기로 정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헌제는 위왕 조비가 대대에 올라 선양을 받도록 청했다. 대 아래에는 수백 명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여들었고, 황제를 호위하는 금군 삼십여 만 명이 구름처럼 에워쌌다. 헌제가 직접 옥새를 받들어 조비에게 바치자, 조비가 이를 받았다. 대 아래에 엎드린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책문에 적힌 내용을 경청하니 다음과 같았다.

"그대 위왕은 들으라. 옛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을 때, 순임금 또한 우임금에게 명하기를, '천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한나라의 운수가 다하여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졌고, 마침 그 화가 나에게까지 미쳐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졌다. 흉악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날뛰니 천하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다행히 무왕의 신성한 위엄이 사방에서 이 난국을 구하여, 중원을 깨끗이 다스리고 우리 종묘를 보존하였다. 어찌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온 세상이 그 은

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제 왕이 선대부터 이어온 대업을 받들어 그 덕을 빛내고, 문무의 대업을 드높여 조상의 드높은 공적을 밝히고 있다. 하늘의 신령이 상서로운 징조를 내리고 사람과 신이 모두 이를 알리니, 하늘이 밝은 빛으로 그대에게 나의 명을 내렸다. 모두가 말하기를, 그대의 도량은 순임금과 같고 요임금의 법도를 따르며, 그 자리를 경건히 겸손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 아아! 하늘이 정한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부디 대례를 공경히 받들어 만국을 다스리고 엄숙히 천명을 받들라!"

책을 다 읽자마자 위왕 조비는 여덟 가지의 큰 예법을 받으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가후는 크고 작은 관리들을 대 아래로 불러 모았고, 연강 원년을 황초 원년으로 고쳤으며 국호를 대위로 정했다. 조비는 즉시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아버지 조조를 태조무황제로 추존했다.

이때 화흠이 나아가 아뢰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명의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 황제께서 이미 천하를 선양하셨으니, 마땅히 물러나 제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이치입니다. 부디 명확한 뜻을 내려 유씨 일가를 어디에 머물게 할지 정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화흠은 헌제를 부축하여 대 아래에 무릎 꿇리고 명을 기다리게 했다. 조비는 헌제를 산양공으로 봉한다는 교지를 내렸으며, 그날 바로 떠나라고 명했다.

화흠은 칼자루를 쥐고 헌제를 가리키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명의 황제를 세우면 다른 한 명의 황제는 폐하는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지금 황상께서 인자하시어 차마 해를 입히지 못하고 산양공으로 봉하셨으니, 오늘 바로 떠나십시오. 다시는 조정에 들

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눈물을 머금고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말을 타고 떠났다. 대 아래에 있던 군사와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슬픔을 금치 못했다.

조비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순임금과 우임금의 일은 짐도 잘 알고 있소!" 신하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 훗날 사람들이 이 선양대를 보고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두 한나라가 공들여 세운 일 참으로 어려웠건만, 하룻밤 사이에 옛 강산을 잃었구나. 황초의 시대는 성군들의 시대를 배우려 하나, 장차 사마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리라."

백관이 조비에게 천지에 감사하는 인사를 올리라고 청했다. 조비가 막 절을 하려는데, 갑자기 대 위로 괴상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모래와 돌이 소나기처럼 들이닥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대 위를 밝히던 촛불도 모조리 꺼져버렸다. 조비는 놀라 대 위로 쓰러졌고, 백관들이 급히 그를 대 아래로 옮겨 내려서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시종들이 조비를 관저로 부축해 들어간 뒤 며칠 동안 조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병세가 조금 나아지자 그제야 전각으로 나와 신하들의 조하를 받았다. 화흠을 사도로, 왕랑을 사공으로 봉하고 크고 작은 관리들에게 차례로 관직을 높여 상을 내렸다. 조비는 병이 다 낫지 않은 데다 허창의 궁궐에 묘사스러운 기운이 많다고 의심하여, 허창을 떠나 낙양으로 거처를 옮기고 궁궐을 크게 새로 지었다.

이미 성도에 누군가 도착하여, 조비가 스스로 대위(大魏)의 황제가 되어 낙양에 궁전을 짓고 있으며, 한나라 황제는 이미 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중왕 유비가 이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밤낮으로 슬퍼하다가, 백관에게 상복을 입게 하고 멀리서 제사를 지내게 하며, 황제의 시호를 '효민황제'라 높여 불렀다. 유비는 이 일로 인해 근심이 깊어져 병이 들었고, 정무를 돌볼 수 없게 되어 모든 정사를 제갈량에게 맡겼다. 제갈량은 태부 허정, 광록대부 초주와 상의하며, 천하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니 한중왕을 황제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초주가 말했다. "최근 상서로운 바람과 경사스러운 구름이 나타나는 등 길조가 가득합니다. 또한 성도 북서쪽 모퉁이에서는 황색 기운이 수십 길이나 솟구쳐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제왕의 별이 필, 위, 묘 자리에 나타나 달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왕이 즉위하여 한나라의 맥을 이어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더 이상 의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편, 제갈량은 허정과 함께 크고 작은 관리들을 이끌고 상소를 올려, 한중왕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청했다. 한중왕은 상소를 읽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불충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제갈량이 간청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비가 한나라를 찬탈하여 스스로 세웠으니, 왕상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서 마땅히 대통을 이어 한나라의 제사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한중왕은 얼굴색이 급변하며 외쳤다. "내가 어찌 저 역적의 짓을 본받겠는가!" 그러고는 소매를 뿌리치며 일어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관리들은 모두 흩어졌다.

사흘 뒤, 제갈량은 다시 관리들을 이끌고 조정에 들어가 한중왕이 나오기를 청했다. 모든 관리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허정이 아뢰었

다. "지금 한나라의 천자는 이미 조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상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지 않으신다면, 충의를 다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하에는 왕상께서 임금이 되어 효민황제(헌제)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만약 저희의 뜻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중왕이 말했다. "내가 비록 경제의 손손이라 하나, 백성에게 베푸는 덕이 없거늘, 이제 갑자기 스스로 황제가 된다면 찬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제갈량이 여러 차례 간곡히 권했으나, 한중왕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이 한 가지 계책을 세워 관리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일렀다.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는 제갈량이 병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중왕 유비는 제갈량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부중으로 가서 침상 곁에 앉아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디가 어떻게 편치 않으신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하여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군사께서 무엇을 그리 걱정하시는가?"

유비가 연거푸 몇 번을 물었으나, 제갈량은 그저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유비가 거듭해서 묻자, 제갈량이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신이 초가집을 나와 대왕을 만나 지금까지 모시는 동안, 대왕께서는 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신의 계책을 그대로 따라 주셨습니다. 이제

다행히 대왕께서 양천(익주와 한중)의 땅을 얻으셨으니, 신이 예전에 드렸던 말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비가 황제 자리를 찬탈하여 한나라의 제사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 문무백관은 모두 대왕을 황제로 받들어 위나라를 멸하고 유씨의 나라를 일으켜 함께 공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왕께서 완강히 거절하시니, 여러 관리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머지않아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문무백관이 모두 흩어진 상태에서 오나라와 위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양천을 지키기 어려울 터인데, 신이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울 뿐이오."

제갈량이 말했다. "성인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대왕께서는 명분이 뚜렷하고 순리에도 맞으니 무엇을 더 의논하겠습니까? '하늘이 주시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허물을 받게 된다'는 말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군사의 병이 나으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소."

제갈량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병풍을 한 차례 크게 쳤다. 그러자 밖에 대기하던 문무백관이 모두 안으로 들어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왕상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제 날을 택하여 큰 예식을 올리기를 청하나이다."

유비가 살펴보니, 그들은 태부 허정, 안한장군 미축, 청의후 상거, 양천후 유표, 별가 조조, 치중 양홍, 의조 두경, 종사 장상, 태상경 퇴공, 광록경 황권, 제주 하중, 학사 윤묵, 사업 초주, 대사마 은순, 편장군 장예, 소부 왕모, 소문박사 이적, 종사랑 진밀 등 여러 관리였다.

한중왕 유비가 놀라며 말했다. "나를 불의에 빠뜨린 것이 모두 너희들이로구나."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왕께서 이미 청을 허락하셨으니, 즉시 제단을 쌓고 길일을 택하여 정중히 대례를 거행하면 됩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유비를 궁으로 모셔 돌아가게 한 뒤, 박사 허자와 간 의랑 맹광에게 예법을 맡겨 성도 무담 남쪽에 제단을 쌓게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여러 관리가 정렬한 가운데 어가가 나아가 유비를 제단으로 모셔 제사를 올리게 했다. 초주가 제단 위에 올라 높은 목소리로 제문을 낭독했다.

"건안 26년 4월 병오삭, 12일 정사일에 황제 유비는 감히 하늘과 땅에 고하나이다. 한나라가 천하를 얻어 그 운수가 끝이 없었으나, 예전에 왕망이 찬탈을 꾀했을 때 광무제께서 노하시어 그를 처단함으로써 사직을 다시 보존하였나이다. 이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잔인하게 주군과 황후를 죽였으니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 아들 조비는 흉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황제의 신물을 훔쳤나이다. 신하와 장수들이 한나라의 제사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며, 유비가 마땅히 그 대를 이어 두 선조(고조와 광무제)의 무업을 잇고 하늘의 별을 몸소 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나이다. 유비는 스스로 덕이 없어 황제의 자리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 백성들에게 물었고, 멀리 떨어진 지방의 군장들에게까지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천명은 마땅히 응답해야 하며 조상의 업은 오래도록 쇠

되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온 세상에는 마땅히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오직 유비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유비는 하늘의 밝은 명을 두려워하며 또한 고조와 광무제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까 걱정되어, 삼가 길일을 택해 제단에 올라 하늘에 고하고 황제의 옥새와 인수를 받아 사방을 다스리고자 하나이다. 부디 신령께서 한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히 나라의 기틀을 평안하게 하소서!"

제문을 다 읽자, 제갈량이 관리들을 이끌고 나아가 옥새를 받들어 올렸다. 한중왕 유비는 옥새를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몇 번이나 사양하며 말했다. "나는 재능도 덕도 부족하니, 부디 재능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자리를 맡기시오." 그러자 제갈량이 간청했다. "왕께서는 이미 천하를 평정하셨고 그 공덕이 온 세상에 빛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 제국의 정통 후예이시니 마땅히 정식으로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이미 하늘과 신령께 제사까지 올렸는데, 어찌 더 사양하시옵니까?" 문무백관이 모두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절을 하고 춤을 추는 예식이 끝나자, 연호를 장무 원년으로 고쳤다. 오씨를 황후로 세우고, 장남 유선을 태자로 삼았다. 차남 유영은 노왕으로, 유리를 양왕으로 봉했다. 제갈량은 승상으로, 허정을 사도로 삼았다. 크고 작은 모든 관리에게 승진과 포상을 내리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니, 두 지역(익주와 한중)의 군민 중 기뻐하며 뛰놀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음 날 조례를 열고 문무백관이 절을 올린 뒤 좌우로 나뉘어 늘어섰다. 유비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짐은 예전에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두 동생 중 관우가 동오의 손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으니,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이는 맹세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짐은 이제 나라의 모든 군사를 일으켜 동오를 공격하고, 저 역적을 생포하여 이 한을 씻고자 한다!"

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관 중 한 사람이 계단 아래로 엎드려 간곡히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그를 바라보니, 바로 호위장군 조운이었다.

임금이 하늘을 향해 토벌을 떠나기도 전에 신하가 먼저 직언을 올렸으니, 조운이 과연 어떤 말을 올렸을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81회 — 형의 원수를 급히 갚으려다 장 비가 해를 입고, 동생의 한을 풀고자 선 주가 군사를 일으키다

急兄讎張飛遇害 雪弟恨先主興兵

한편, 유비가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정벌을 떠나려 하자 조운이 간언했다.

"나라를 해친 원수는 조조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지금 조비가 한나라를 찬탈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서둘러 관중을 도모하시고 위하 상류에 군사를 배치하여 흉악한 역적을 토벌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관동의 의로운 선비들이 반드시 군량을 메고 말을 달려 왕의 군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위나라를 제쳐두고 오나라를 먼저 치신다면, 양쪽 군대가 맞붙었을 때 어찌 쉽게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살피어 결정해 주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손권은 내 동생을 해쳤다. 또한 부사인, 미방, 반장, 마충 등도 모두 내 이를 갈 만큼 깊은 원한을 맺은 자들이다. 그들의 살을 씹어 먹고 그 일족을 멸해야만 내 한을 풀 수 있거늘, 경은 어찌하여 나를 막는가?"

조운이 다시 말했다.

"한나라를 해친 원수는 공적인 원한이지만, 형제의 원한은 사적인 원한입니다. 부디 천하를 더 무겁게 여기시옵소서."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설령 만 리의 강산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결국 유비는 조운의 간언을 듣지 않고 오나라를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사신을 오계로 보내 번병 5만 명을 빌려 함께 호응하게 하였고, 또 사신을 랑중으로 보내 장비를 차기장군, 사례교위, 서향후, 랑중목으로 승진시키며,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떠나게 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장비는 랑중에 머물고 있을 때,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밤낮으로 통곡하며 눈물과 피로 옷깃을 적셨다. 여러 장수가 술을 권하며 달래보았으나, 술에 취할수록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장막 안팎을 막론하고 군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즉시 채찍질을 가했는데, 매를 맞아 죽는 이도 여럿이었다. 그는 매일 남쪽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뜬 채 분노와 한을 품으며 목 놓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령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급히 맞이하여 조서를 펼쳐 읽었다. 장비는 작위를 받은 뒤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나서야, 전령에게 술을 대접하며 말했다.

"내 형님이 해를 입으셨으니 그 원한이 바다와 같이 깊다! 조정의 신하들은 어찌하여 진작 군사를 일으키자고 상소를 올리지 않았단 말인가?"

전령이 대답했다.

"먼저 위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오나라를 치자고 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장비가 노하여 외쳤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옛날 우리 세 사람이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거늘, 이제 불행히도 두 형제 중 한 분이 중도에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어찌 홀로 부귀를 누리겠는가! 나는 반드시 천자를 직접 뵈고,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 상복을 입고 오나라를 정벌하겠다. 저 역적들을 생포하여 두 형님께 제사를 올림으로써 예전의 맹세를 이행하리라!"

말을 마친 장비는 전령과 함께 성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한편, 유비는 매일 연무장에 내려가 군사들을 직접 훈련시키며 날을 잡아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했고, 몸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려 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승상의 집으로 모여 제갈량에게 말했다.

"오늘날 천자가 갓 즉위하셨는데,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승상께서 나라의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어찌하여 간언하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나도 여러 번 간절히 말해 보았으나 듣지 않으시더군요. 오늘 그대들도 나와 함께 연무장으로 가서 간언해 보세."

곧 제갈량이 백관을 이끌고 유비에게 나아가 말했다. "폐하께서 이제 막 보위에 오르셨으니, 만약 북쪽의 한나라 도적들을 토벌하여 천하에 대의를 펼치고자 하신다면 직접 군사를 거느리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오나라를 치려는 것이라면, 뛰어난 장수 한 명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게 해도 충분할 터인데 어찌하여 폐하께서 직접 수고를 자처하십니까?" 유비는 제갈량이 간곡히 만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조금 돌렸다.

그때 갑자기 장비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유비는 급히 그를 불러들였다. 장비는 연무장에 이르자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유비의 발을 붙잡고 통곡했다. 유비 역시 함께 울었다. 장비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오늘날 임금이 되시더니, 일찍이 북숭아밭에서 나누었던 맹세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둘째 형님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유비가 말했다. "여러 신하가 간곡히 말리기에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했다." 장비가 외쳤다. "다른 이들이 어찌 옛날의 맹세를 알겠습니까? 만약 폐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신이 이 몸을 바쳐 둘째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만약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신은 차라리 죽어서 폐하를 뵈지 않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짐이 그대와 함께 가겠노라. 그대는 그대의 부대를 이끌고 랑주를 통해 나가고, 짐은 정예병을 거느리고 강주에서 만나도록 하자. 함께 오나라를 정벌하여 이 한을 씻어내자꾸나." 장비가 떠나려 하자 유비가 당부했다. "짐이 평소 그대가 술을 마시면 성질을 부리며 부하들을 매질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이는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장비는 절을 하고 물러갔다.

다음 날, 유비가 군사를 정비하여 출정하려 하자 학사 진밀이 아뢰었다. “폐하, 만인의 존엄한 몸을 버리고 사사로운 의리에 매달리는 것은 옛 성현들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유비가 말했다. “관우는 나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 큰 대의가 살아있는데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진밀이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며 말했다.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진정 큰 실책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유비가 크게 노하여 외쳤다. “내가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네가 어찌 이토록 불길한 말을 내뱉느냐!” 그러고는 무사를 불러 진밀을 끌어내어 처형하라 명했다. 진밀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유비를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다. “신은 죽어도 한이 없으나, 이제 막 세운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질까 그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모든 관리가 진밀을 위해 애통해하며 용서를 빌었다. 유비가 말했다. “일단 가두어 두었다가, 내가 원수를 갚고 돌아오면 그때 처분하겠다.”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상소를 올려 진밀을 구하려 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다. “신 제갈량 등이 생각건대, 오나라 도적들이 간사하고 궤변스러운 계책을 부려 형주가 망하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용

맹한 장수를 잃고 나라의 기둥이 꺾였으니, 그 슬픔과 아픔은 참으로 잊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천하를 옮긴 것은 조조의 죄요, 유씨의 운명을 뒤흔든 것은 손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위나라의 도적들을 먼저 제거한다면 오나라는 저절로 손님이 되어 예우를 갓출 것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진밀의 금석 같은 충언을 받아들이시어 군사들의 힘을 기르고 다른 방책을 세우소서. 그리하신다면 사직이 다행이고, 천하가 다행일 것입니다!"

유비는 표문을 다 읽고는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는 간언하지 말라!"

이어 유비는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다. 승상 제갈량은 태자를 보필하며 양천(동천과 서천)을 지키게 하고, 표기장군 마초와 그의 동생 마대는 진북장군 위연을 도와 한중을 지키며 위나라 군대에 맞서게 했다. 호위장군 조운은 후방을 지원하며 군량 보급을 겸하게 했고, 황권과 정기는 참모로 삼았으며, 마량과 진진은 문서를 관리하게 했다. 황충을 전군 선봉으로 세웠고, 풍습과 장남을 부장으로 삼았으며, 부동과 장익은 중군 호위로 삼고, 조용과 요순은 후미를 맡겼다. 이와 함께 촉나라의 장수 수백 명과 오계 지역의 번장들을 합쳐 총 75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 유비는 장무 원년 7월 병인일을 출정일로 정하였다.

한편, 장비는 랑중으로 돌아와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준비하라. 삼군 모두 상복을 입고 오나라를 치러 나간다!" 다음 날, 장비의 휘하 장수인 범강과 장달이 장막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당장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기한을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장비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나는 하

루라도 빨리 원수를 갚고 싶어 당장이라도 역적의 땅에 닿고 싶은 심정이다. 네놈들이 어찌 감히 내 명령을 어기려 하느냐!" 장비는 무사들을 불러 두 사람을 나무에 묶어 놓고 각각 등에 채찍질을 쓴 대씩 하게 했다. 매질을 마친 뒤 장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까지 반드시 모두 갖추어 놓아라! 만약 기한을 어긴다면 너희 둘을 즉시 죽여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두 사람은 입에 피를 흘리며 매질을 당한 채 진영으로 돌아와 상의했다. 범강이 말했다. "오늘 형벌을 받았는데 내일 일을 어찌 감당하겠나? 저 사람의 성격은 불처럼 사나우니, 만약 내일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우리 둘 다 죽게 될 것이네!" 장달이 말했다. "차라리 그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죽이는 게 낫겠네." 범강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장달이 말했다. "우리 둘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그가 침상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를 노려야 할 것이고, 만약 죽지 않을 운명이라면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이네." 두 사람은 이렇게 의논을 마쳤다.

한편, 장비는 막사 안에서 정신이 온통 어지러워 몸가짐이 허둥지둥 불안했다. 그는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떨리고 몸이 불안하여 앉아 있기도, 누워 있기도 힘든데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이냐?" 부하 장수가 대답했다. "그것은 장군께서 관우를 너무나 그리워하신 나머지 이 지경에 이르신 것입니다." 장비는 부하들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여 함께 마시다 자신도 모르게 크게 취해 막사 안에 누워 버렸다.

이때 범강과 장달 두 도적이 소식을 알아내고는, 초경(밤 7시~9시 사이) 무렵에 각자 단도를 품고 몰래 막사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중요한 기밀을 보고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장비의 침상 앞까지 다가갔다. 사실 장비는 잠들어도 눈을 완전히 감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 밤 막사에서 잠든 장비를 본 두 도적은, 장비가 수염을 세운 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자 그제야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고, 단도로 장비의 배를 찔렀다. 장비는 크게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숨을 거두었다. 향년 신다섯이었다.

후세의 사람이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읊었다.

"안희에서 독우를 채찍질하던 기개를 들었고, 황건적을 쓸어버리며 유씨 황실을 도왔네. 호로관에서 그 호통소리 먼저 천지를 진동시켰고, 장판교에서는 그 기세에 강물이 거꾸로 흘렀다네. 의리로 엄안을 놓아주어 축 땅을 평안케 했고, 지략으로 장합을 속여 중원을 평정했지만, 오나라를 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니, 가을 풀만 무성한 랑지 땅에 슬픔만 남았구나!"

한편, 두 도둑은 그날 밤 장비의 머리를 베고는 곧장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밤을 도와 오나라로 도망쳤다. 다음 날 군대에 이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미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뒤쫓기에는 늦은 뒤였다. 마침 장비의 부하 장수인 오반이 형주에서 유비를 알현하러 왔었다. 오반은 본래 유비의 아문장으로서 장비를 도와 랑중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오반은 먼저 장비를 죽인 자들의 죄를 적은 상소를 올려 황제에게 보고한 뒤, 장비의 장남인 장포에게 관과 관을 준비하여 시신을

모시게 하고, 차남인 장소를 장비 대신 랑중을 지키게 했다. 장포가 유비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유비는 이미 오나라 정벌을 위한 출정 날짜를 잡은 뒤였다. 크고 작은 관리들은 모두 제갈량을 배웅하며 십 리 밖까지 따라 나갔다가 돌아왔다. 제갈량이 성도로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매우 무거워, 관리들을 향해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법정(법효직)이 살아 있었다면, 분명 주상께서 동쪽으로 무리하게 출정하시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한편, 유비는 그날 밤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사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니, 북서쪽 하늘에 국자만큼 커다란 별 하나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유비는 크게 의아하게 여겨 밤새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물었다. 제갈량이 답을 보내오기를, "장수 한 명이 목숨을 잃을 징조입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달려와 보고했다. "랑중에 계신 장 차기장군(장비)의 부장 오반이 사람을 보내 상소를 가져왔습니다." 유비가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했다. "아! 셋째 동생이 죽었구나!" 상소를 읽어보니 과연 장비가 죽었다는 비보였다. 유비는 목놓아 크게 울다가 그만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여러 관리들이 달려와 유비를 간신히 깨웠다.

다음 날, 한 무리의 군마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막사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한참 뒤에 은빛 갑옷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울

고 있었다. 그는 바로 장포였다. 장포가 울며 말했다. "범강과 장달이 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머리를 오나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비는 슬픔이 극에 달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 신하들이 간곡히 간언했다. "폐하, 이제 막 둘째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 하시는데, 어찌하여 먼저 옥체를 상하게 하십니까?"

유비가 겨우 식사를 마친 뒤 장포에게 물었다. "그대와 오반이 감히 본부 군사를 이끌고 선봉이 되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는가?" 장포가 대답했다.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만 번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유비가 막 장포에게 군사를 일으키라고 명령하려는데, 또 다른 군사 한 무리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신하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명했다. 잠시 후, 신하가 은빛 갑옷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장군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 땅에 엎드려 올게 했다. 유비가 살펴보니 바로 관흥이었다. 유비는 관흥을 보자 관우가 생각나 다시 목놓아 크게 울었다.

여러 관리가 간절히 만류하자 유비가 말했다. "내가 평민이었을 때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노라. 이제 내가 천자가 되어 두 동생과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려 했는데, 불행히도 둘 다 비참하게 죽었으니, 이 두 조카를 보고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느냐!"

말을 마친 유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신하들이 모두 나서서 말했다. "두 장군님께서서는 물러나 계십시오. 폐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곁에 있던 신하가 아뢰었다. "폐하, 이미 예순이 넘으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두 동생이

모두 죽었는데, 내가 어찌 홀로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유비는 머리를 땅에 짚으며 통곡했다. 여러 관리가 모여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천자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시니, 무엇으로 달래 드려야 하겠습니까?" 마량이 말했다. "주상께서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치러 가셨는데, 종일 울음만 터뜨리시니 군사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때 진진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성도 청성산 서쪽에 이의라는 은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인이 이미 삼백 살이 넘었으며, 사람의 생사와 길흉을 알아맞히는 당대의 신선이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천자께 아뢰어 그 노인을 불러 길흉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들의 말보다 나을 것입니다." 진진이 유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유비는 그의 말을 따랐고, 즉시 진진에게 조서를 들려 청성산으로 보내 이의를 불러오게 했다.

진진은 밤새 달려 청성산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을 시켜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안내하게 했다. 멀리 신선의 거처가 보이는데, 맑은 구름이 은은하게 감돌고 상서로운 기운이 비범하게 흘러나왔다. 그때 갑자기 한 어린 동자가 마중을 나오며 말했다.

"오시는 분이 혹시 진효기님이십니까?"

진진이 크게 놀라 물었다.

"어린 동자가 어찌 내 성과 이름을 아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우리 스승님께서 어젯밤 말씀하시기를, '오늘 반드시 황제의 조서가 당도할 것이며, 그 사자는 반드시 진효기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신선이로구나! 사람들이 말하던 것이 틀리지 않았어!"

진진은 곧 동자와 함께 신선의 거처로 들어가 이의를 배알하고 천자의 조서를 전했다. 이의는 늙음을 핑계로 가지 않으려 했다. 진진이 말했다.

"천자께서 선옹의 얼굴을 한 번 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 부디 학 타고 왕립하시기를 아끼지 마소서."

진진이 거듭 간곡히 청하자, 이의는 그제야 길을 나섰다. 어영(御營)에 이르러 들어가 유비를 알현했다. 유비가 이의를 보니, 학처럼 흰 머리에 동안이요, 푸른 눈에 네모난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며, 몸은 고목 측백나무 같은 모습이라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극진한 예로 대접했다. 이의가 말했다.

"노부는 거친 산골에 사는 미천한 노인이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토록 불러주시니, 무슨 가르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짐은 관우, 장비 두 동생과 삼십여 년간 생사를 함께한 형제 사이였소. 이제 두 동생이 해를 입었으니,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으려 하나 그 길흉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구려. 선왕께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계신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으니,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소."

이의가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운수이니, 이 노부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비가 거둬 간청하자, 이의는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여 병사와 무기, 기계 등을 마흔 장 넘게 그려냈다. 그림을 다 그린 뒤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다시 커다란 어른 한 명이 땅에 누워 있고, 그 곁에서 다른 한 사람이 땅을 파서 묻는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커다란 '흰 백(白)' 자를 써넣고는 머리를 조아린 채 떠나버렸다. 유비는 기분이 상하여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노인이로구나! 믿을 가치가 없다!"

유비는 즉시 그 그림들을 불태워버리고 군사를 재촉하여 전진했다.

장포가 나아가 보고했다. "오반의 군마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소신이 선봉을 맡게 해주십시오." 유비는 그의 기개를 높이 사서 즉시 선봉의 인장을 가져다가 장포에게 하사했다. 장포가 막 인장을 목에 걸려는데, 또 다른 한 젊은 장수가 씩씩하게 나서며 외쳤다. "그 인장을 내게 넘겨라!" 자세히 보니 바로 관흥이었다. 장포가 말했다. "나는 이미 명을 받았다." 관흥이 대꾸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감히 이런 임

무를 맡으려 하느냐?" 장포가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화살을 쏘면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마침 조카들의 무예를 살펴 누가 더 뛰어난지 결정하려던 참이다." 장포는 군사들에게 백 보 밖에 깃발 하나를 세우게 했는데, 깃발 위에는 붉은 과녁(홍심)이 그려져 있었다. 장포가 활을 잡고 화살을 집어 연달아 세 발을 쏘니 모두 붉은 과녁 한복판을 맞혔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관흥이 활을 손에 쥐고 말했다. "붉은 과녁을 맞히는 것쯤이야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머리 위로 기러기 한 떼가 줄지어 지나갔다. 관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날아가는 기러기 가운데 세 번째 놈을 맞히겠다." 관흥이 화살을 쏘자 그 기러기가 화살에 맞아 떨어졌다. 문무 관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장포는 크게 화가 나서 말에 올라타더니, 아버지가 쓰시던 장팔점강모를 치켜들고 크게 외쳤다. "네가 감히 나와 무예를 겨루겠느냐!" 관흥 역시 말에 올라타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큰 칼을 휘두르며 달려 나가며 말했다. "네가 창을 쓸 줄 안다고 해서 나까지 못 쓸 줄 아느냐!"

두 장수가 막 맞붙으려 할 때, 유비가 호통을 쳤다. "너희 둘은 무례하게 굴지 마라!" 관흥과 장포는 깜짝 놀라 급히 말에서 내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 죄를 빌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탁군에서 너희의 부친과 의형제의 결의를 맺어 친골육과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 너희 둘 또한 형제나 다름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합쳐 아버지의 원수를 함께 갚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서로 다투며 큰 의리를 저버린단 말이냐! 부친의 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찌하겠느냐?" 두 사람은 다시 절하며 죄를 빌었다. 유비가 물었다.

“너희 둘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장포가 대답했다. “신이 관흥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유비는 즉시 관흥에게 장포를 형으로 모시라고 명했다. 두 사람은 막사 앞에서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영원히 서로를 돕고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유비는 조서를 내려 오반을 선봉으로 삼고, 장포와 관흥에게 호위 임무를 맡겼다. 군대는 수로와 육로로 나뉘어 배와 기병이 나란히 행군하며, 거대한 기세로 오나라를 향해 진격했다.

한편,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머리를 가지고 오나라의 군주 손권에게 달려가 이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손권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두 사람을 거두어들인 뒤, 백관을 향해 말했다.

“지금 유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70여 만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으니, 그 기세가 매우 대단하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백관들은 모두 안색이 변하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제갈근이 나서서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군주님의 녹을 먹어 왔습니다. 보답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남은 목숨을 버리고 촉나라의 주군을 찾아가, 이 상황의 이해득실을 잘 설명하여 양국이 화친하고 함께 조비의 죄를 다스리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제갈근을 사신으로 삼아 유비에게 군사를 거두고 화친할 것을 권하도록 했다.

두 나라가 다투는 와중에 사신이 오가니, 말 한마디로 난국을 풀 수 있음은 오로지 사신의 역량에 달려 있다.

과연 제갈근이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2회 — 손권이 위나라에 항복하여 구석을 받고, 선주가 오나라를 정벌하여 육군에게 상을 내리다

孫權降魏受九錫 先主征吳賞六軍

한편, 유비가 황제로 즉위한 원년 가을 8월, 유비는 대군을 일으켜 기관까지 진격한 뒤 백제성에 진을 쳤다. 앞장선 부대는 이미 천구에 이르러 있었다. 이때 가까이 모시던 신하가 보고했다. "오나라에서 제갈瑾이 사절로 왔습니다." 유비가 명을 내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다.

그러자 황권이 아뢰었다. "제갈瑾의 동생은 촉나라에서 승상의 자리에 있으니, 분명 급한 일이 있어 찾아온 것일 터인데 폐하께서 어찌 그를 거절하십니까? 마땅히 불러들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말이 통한다면 협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그를 통해 손권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물을 명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유비가 황권의 말을 따라 제갈瑾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제갈瑾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 유비가 물었다. "자유가 멀리서 왔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제갈瑾이 대답했다. "제 동생이 오랫동안 폐하를 모셔왔기에,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형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지난날 관우가 형주에 있을 때, 손권이 여러 차례 혼인을 청했으나 관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관우가 양양을 차지하자, 조조가 여러 차례 손권에게 편지를 보내 형주를 습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손권은 본래 허락하려 하지 않았으나, 여몽이 관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멋대로 군사를 일으켰고, 결국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손권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는 여몽의 죄일 뿐, 손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여몽도 죽었으니 원한도 사라졌습니다. 손부인께서도 줄곧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에 손권은 저를 사절로 보내 부인을 돌려보내고, 항복한 장수들을 묶어 돌려보내며, 형주 또한 예전처럼 다시 돌려주어 영원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조비의 찬탈 행위를 함께 징벌함으로써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유비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너희 동오가 내 아우를 해쳐 놓고, 오늘 어찌 감히 교묘한 말로 나를 설득하려 드는가!"

제갈근이 대답했다. "신은 일의 경중과 크고 작음을 따져 폐하와 논하고자 합니다. 폐하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황숙이십니다. 지금 한나라의 황제가 이미 조비에게 찬탈당했는데, 이를 토벌해 없앨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씨가 다른 자(오나라)와의 친분을 위하여 만승(천

자)의 존엄한 지위를 굽히려 하시니, 이는 큰 의리를 버리고 작은 의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중원은 천하의 땅이며, 두 도읍(장안과 낙양)은 모두 대한(大漢)이 창업한 터전입니다. 폐하께서 이를 취하지 않고 오직 형주만을 다투려 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격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폐하께서 즉위하시면 반드시 한나라 황실을 일으켜 산하를 회복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위나라를 내버려 두고 도리어 오나라를 치려 하시니, 신은 폐하께서 이를 택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유비가 더욱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내 아우를 죽인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 나더러 군사를 거두라 하니, 죽어야만 그칠 일이다! 승상(제갈량)의 체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먼저 네 목을 베었을 것이다! 일단은 너를 돌려보낼 터이니, 가서 손권에게 전하라. 목을 찢고 죽음을 받을 준비나 하라고 말이다!"

제갈군은 유비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돌아갔다.

한편, 장소가 손권에게 말했다. "제갈자유는 촉나라 군대의 기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청한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오나라를 배신하고 촉나라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는 자유와 생사를 함께하며 번치 않는 맹약을 맺었소. 내가 자유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자유 역시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예전에 자유가 시상에 있을 때 공명(제갈량)이 오나라에 왔는데, 나는 자유에게 그를 붙잡아 머물게 하라 하고 싶었소. 그때 자유는 '아우(제갈량)는 이미 현덕을 섬기고

있어 의리상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아우가 오나라에 머물지 않는 것은, 곧 이 군이 촉나라로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소. 그 말은 참으로 신명을 꿰뚫을 만했지. 그러니 그가 오늘 어찌 촉나라에 행복하겠소? 나와 자유는 마음으로 사귀는 사이이니, 바깥의 말로는 결코 이간질할 수 없는 관계요." 장소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제갈자유가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권이 물었다. "내 말이 어떠하냐?" 장소는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띠며 물러났다. 제갈자유가 손권을 만나 선주가 화친을 맺을 뜻이 없음을 전하자, 손권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강남이 위험해지겠구나!" 그때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아와 말했다. "제게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살펴보니 그는 중대부 조자였다. 손권이 물었다. "덕도,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가?" 조자가 말했다. "주공께서 표문을 하나 작성해 주시면, 제가 사절이 되어 위나라 황제 조비에게 가서 이해득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나라가 한중을 습격하게 만든다면, 촉나라 군대는 저절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 계책이 가장 좋구나. 다만 그대가 가서 동오의 기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네." 조자가 대답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즉시 강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어찌 강남의 인물들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신하를 자처하는 표문을 작성하고, 조자를 사절로 삼았다. 조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허도에 도착하여, 먼저 태위 가후를 비롯한 크고 작은 관리들을 만났다.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가후가 나서서 아뢰었다. "동오에서 중대부 조자를 보내 표문을 올렸습니다." 조비가 웃으며 말했다. "이는 촉나라 군대를 물러나게 하려는 속셈이로구나." 그러고는 즉시 조자를 불러들였다. 조자가 불

은 뜰에 엎드려 절했다. 조비가 표문을 다 읽고 나서 조자에게 물었다. "오후는 어떤 군주인가?" 조자가 대답했다. "충명하고 어질며 지혜롭고 용맹하며 지략을 갖춘 군주입니다." 조비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칭찬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조자가 말했다. "신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가 평범한 무리 가운데서 노숙을 발탁한 것은 그의 충명함이고, 행군의 대오 속에서 여몽을 발탁한 것은 그의 밝은 안목이며, 우금을 사로잡고도 해치지 않은 것은 그의 어짚이고, 형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그의 지혜이며, 세 강을 근거지로 삼아 천하를 호랑이처럼 노려보는 것은 그의 웅대함이고, 폐하께 몸을 굽히는 것은 그의 지략입니다. 이로써 논하건대, 어찌 충명하고 어질며 지혜롭고 용맹하며 지략을 갖춘 군주가 아니겠습니까?" 조비가 다시 물었다. "오나라 주인이 학문을 좀 아는가?" 조자가 대답했다. "오나라의 주인은 강에 만 척의 배를 띄우고 백만의 갑병을 거느리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능한 자를 부려 천하 경영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여유가 있을 때면 책과 전적을 널리 읽고 사적을 두루 살피며 그 큰 뜻을 취하니, 글귀나 찾아 따지는 서생과는 다릅니다." 조비가 물었다. "짐이 오나라를 치려 하는데 되겠는가?" 조자가 말했다. "큰 나라에는 정벌할 군사가 있고, 작은 나라에는 방어할 계책이 있는 법입니다." 조비가 다시 물었다. "오나라가 위나라를 두려워하는가?" 조자가 말했다. "백만의 갑병을 거느리고 장강과 한수를 못으로 삼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조비가 물었다. "동오에 그대 같은 대부가 몇이나 되는가?" 조자가 대답했다. "충명하고 특히 뛰어난 자는 여든에서 아흔 명 정도이며, 저와 같은 무리는 수레에 싣고 말로 될 만큼 많아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조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욱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에 조비는 즉시 조서를 내려, 태상경 형정에게 명하여 책봉문을 가지고 가 손권을 오왕에 봉하고 구석을 더해 주게 했다. 조자는 은혜에 감사하며 성을 나섰다. 이때 대부 유엽이 간언했다. "지금 손권은 촉나라 군대의 기세가 두려워 항복을 청해 온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촉과 오가 서로 싸우는 것은 하늘이 그들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상장에게 수만의 군사를 주어 강을 건너 습격하게 한다면, 촉은 밖에서 치고 위는 안에서 치니, 오나라가 망하는 데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나라가 망하면 촉나라도 고립될 터인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미리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조비가 말했다. "손권이 이미 예를 갖추어 짐에게 복종하였는데, 짐이 만약 그를 공격한다면 천하에서 항복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받아들이는 편이 옳다." 유엽이 다시 말했다. "손권이 비록 영웅의 재능이 있으나, 지금은 쇠잔한 한나라의 표기장군 남창후라는 직위에 있을 뿐입니다. 관직이 가벼우면 세력도 미약하여 아직 중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만약 그에게 왕위를 더해 주면 폐하와는 단지 한 계단 차이가 날 뿐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그의 거짓 항복을 믿고 그 지위와 봉호를 높여 세력을 키워 준다면,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격입니다." 조비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짐은 오나라를 돕지도, 촉나라를 돕지도 않을 것이다. 오나라와 촉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한 나라만 남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남은 나라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

으니 경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결국 조비는 태상경 형정에게 명하여 조자와 함께 책봉문과 구석을 받들고 곧장 동오로 가게 했다.

한편, 손권은 백관을 모아 촉나라를 막아낼 방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위나라 황제가 손권을 왕으로 봉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는데, 예법에 따라 멀리까지 나가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옹이 간언했다. "주공께서는 마땅히 스스로 상장군이자 구주백(九州伯)이라 칭하셔야지, 위나라 황제의 작위를 받으셔서서는 안 됩니다." 손권이 대답했다. "옛날 패공(유방)이 항우의 봉작을 받은 것은 때가 그러했기 때문이니, 어찌 이를 거절하겠는가?" 말을 마친 손권은 곧 백관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맞이했다. 이때 위나라 사절 형정은 자신이 상국(上國)의 천자 사신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성문에 들어서면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를 본 장소가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예법에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법도에는 엄숙하지 않음이 없거늘, 그대가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여 거만하게 구는가? 강동에 너를 벨 칼 한 자루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형정은 그제야 황급히 수레에서 내려 손권을 알현했고, 손권은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 뒤에서 한 사람이 통곡하며 외쳤다. "우리가 몸을 떨쳐 목숨을 바쳐 주군을 위해 위나라를 아우르고 촉나라를 삼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주공께서 남의 작위를 받게 하니 이 어찌 욕된 일이 아닌가!"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서성이었다. 형정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강동의 장수와 재상이 이와 같으니, 끝내 오래도록 남의 아래에 있을 자들이 아니로구나!"

한편, 손권이 작위를 받자 문무백관이 모두 절하며 축하를 마쳤다. 손권은 아름다운 옥과 명주 등을 챙겨 사람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게 했다. 이때 미리 심어둔 첩자가 보고하기를, "촉나라 임금이 본국 대군과 만이인 사마가의 번병 수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또한 동계의 한 나라 장수 두로와 유녕의 병력까지 합세하여 수륙 양면에서 몰려오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수로 군대는 이미 무구(巫口)를 지났고, 육로 군대는 자귀(秭歸)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했다.

손권은 비록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위나라 황제가 응답하지 않는 형편이라, 문무 신하들에게 "촉나라 군대의 기세가 저토록 강한데,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모두 침묵할 뿐이었다. 손권이 탄식하며 말했다. "주유가 떠난 뒤에 노숙이 있었고, 노숙이 떠난 뒤에는 여몽이 있었거늘, 이제 여몽마저 죽으니 나를 도와 근심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의 장수들 사이에서 한 젊은 장수가 기세 좋게 나서서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이 비록 나이는 어리나 병법에는 제법 밝습니다. 부디 수만 명의 병력을 주신다면 촉나라 군대를 격파하겠습니다." 손권이 살펴보니 바로 손환이었다. 손환의 자는 숙무이며, 아버지는 손하이다. 본래 유씨였으나 손책이 그를 아껴 손씨성을 내렸기에 오나라 왕실의 종족이었다. 손하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손환이 장남으로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했다. 그는 늘 손권을 따라 정벌에 나섰고 여러 차례 공을 세워 무위도위라는 관직에 올랐으며,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손권이 물었다. "너는 어떤 계책으로 승리하겠느냐?" 손환이 대답했다. "신에게는 이이와 사정이라는 두 장수가 있는데, 둘 다 만 명을 상대할 만큼 용맹합니다. 부디 수만 명의 군사를 주시면 가서 유비를 사로잡겠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네가 비록 용맹하나 나이가 어려 그러하니,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 호위장군 주연이 나서서 말했다. "신이 소장군과 함께 유비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손권이 이를 허락하자, 곧 수륙 양면의 군사 5만 명을 선발하여 손환을 좌도독으로, 주연을 우도독으로 봉하고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촉나라 군대가 이미 의도(宜都)에 도착해 진을 쳤다고 했다. 이에 손환은 2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의도 경계에 진을 쳤으며, 전후로 세 개의 진영을 나누어 촉나라 군대에 맞설 준비를 했다.

한편, 촉나라 장수 오반은 선봉장의 인장을 받고 출전하였다. 그는 사천에서 나온 뒤로 가는 곳마다 적들이 겁을 먹고 투항하는 덕분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의도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오반이 손환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내어 유비에게 급히 보고했다.

그 무렵 유비는 이미 자귀에 도착해 있었는데, 보고를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저 어린놈이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 들다니!"

그러자 관흥이 나서서 말했다. "손권이 저 아이를 장수로 삼았으니, 폐하께서 직접 대장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신이 직접 가서 저놈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마침 네 기개를 보고 싶던 참이었다." 유비는 즉시 관흥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다.

관흥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자, 장포가 나서서 말했다. "관흥이 적을 치러 가는데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두 조카가 함께 가는 것이 아주 좋구나. 다만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유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봉 부대와 합류하여 함께 진격하며 진을 쳤다. 손환은 촉나라 군사가 대거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영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세웠다. 양쪽 진영이 서로 마주하자, 손환은 이이와 사정을 거느리고 깃발 아래 말에 올라탔다. 그때 촉나라 진영에서 장수 두 명이 나타났는데, 둘 다 은색 투구와 은색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탄 채 흰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다. 앞장선 장포는 길게 뻗은 점강모를 치켜들었고, 뒤따른 관흥은 커다란 칼을 가로로 쥐고 있었다. 장포가 크게 꾸짖었다.

"손환, 이놈!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감히 천벌을 내릴 하늘의 군대에 맞서려 하느냐!"

손환 역시 맞서 소리쳤다.

"네 아버지는 이미 머리 없는 귀신이 되었거늘, 이제 네놈까지 죽으러 오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장포가 크게 노하여 창을 휘두르며 손환을 향해 돌진했다. 손환의 뒤에 있던 사정이 급히 말을 몰아 맞서 나갔다. 두 장수가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사정이 패하여 달아나자, 장포가 승세를 타고 뒤쫓아갔다. 이이는 사정이 패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말을 달려 금도끼를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장포와 이이가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오나라의 비장 탄웅이 장포의 용맹함을 보고 이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몰래 화살 한 대를 쏘아 장포가 타고 있던 말을 정확히 맞혔다. 화살을 맞은 말이 고통에 겨워 본진으로 달아나다가 깃발 근처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땅에 고꾸라지며 장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급히 앞으로 달려 나가 큰 도끼를 들어 장포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붉은 빛이 번쩍더니 이이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졌다. 알고 보니 관흥이 장포의 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도우려다가, 말이 쓰러지고 이이가 달려드는 것을 본 것이다. 관흥이 크게 호통을 치며 말 아래에 있는 이이를 베어 장포를 구하고, 그 기세를 몰아 몰아붙여 적을 살육했다. 손환은 대패하였고, 양측은 각자 징을 울리며 군사를 물렸다.

다음 날, 손환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몰려왔다. 이에 장포와 관흥이 함께 출전했다. 관흥은 진영 앞에 말을 세우고 홀로 손환을 상대하며 맞붙었다. 손환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관흥과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기력이 다해 크게 패하고 진영으로 도망쳤다. 두 젊은 장수가 뒤쫓아 들어오자, 오반이 장남, 풍습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몰아 그들을 막아 세우며 몰아쳤다. 장포는 용맹하게 앞장서서 오나라 군대를 향해 돌격하다가 마침 사정을 만났는데, 장포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오나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촉나라 장수들은

승리를 거두고 군사를 거두었으나, 관흥만은 보이지 않았다. 장포가 크게 놀라 외쳤다. "관흥이 잘못된다면 나 또한 살 수 없다!" 말을 마친 장포는 창을 챙겨 들고 말에 올라탔다. 불과 몇 리 가지 않아 관흥을 발견했는데, 관흥은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장수 한 명을 산 채로 붙잡고 있었다. 장포가 "이 자는 누구냐?"라고 묻자, 관흥이 웃으며 대답했다.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에서 마침 원수를 만났기에 생포해왔다." 장포가 살펴보니, 바로 어제 차가운 화살을 쏘았던 탄웅이었다. 장포는 크게 기뻐하며 함께 본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적장의 머리를 베어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은 말에 제사를 지낸 뒤, 즉시 전령을 보내 유비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손환은 이이, 사정, 탄웅 등 수많은 장수와 병사를 잃고 힘이 다해 고립되자, 더 이상 적을 막아낼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오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한편, 촉나라 장수 장남과 풍습이 오반에게 말했다. "지금 오나라 군대의 기세가 꺾였으니, 이 기회에 빈틈을 노려 진영을 습격하기에 딱 좋다."

그러자 오반이 대답했다. "손환이 비록 많은 장수와 병사를 잃었다고는 하나, 주연의 수군이 강 위에 진을 치고 있어 아직 손상된 것이 없다. 만약 오늘 진영을 습격했다가 그 수군이 상륙하여 우리의 퇴로를 끊어버리면 어찌하겠는가?"

장남이 다시 말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다. 관흥과 장포 두 장군에게 각각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하게 하자. 만약

주연이 구하러 온다면 좌우 양쪽에서 군사를 동시에 내보내 협공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오반이 제안했다. "차라리 먼저 병사들을 보내 항복하는 척하면서, 주연에게 진영을 습격하겠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주연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다.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로 공격하면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풍습과 장남 등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이 계책을 따랐다.

한편, 주연은 손환이 군사를 잃고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원하러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목에 매복해 있던 군사 몇 명과 졸개들이 배를 타고 나타나 항복을 청했다. 주연이 그 이유를 묻자, 졸개들이 말했다. "저희는 풍습의 부하들입니다.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해 항복하러 왔으니, 곧바로 기밀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연이 "무슨 일인가?"라고 묻자, 졸개들이 대답했다. "오늘 밤 풍습이 허점을 틈타 손환 장군의 진영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연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사람을 보내 손환에게 알리게 했다. 그러나 보고하러 가던 이는 가는 도중에 관흥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주연은 한편으로는 군사를 이끌고 손환을 구하러 가려 했으나, 부장 최우가 만류했다. "그 졸개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수군과 육군이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그저 수채를 굳건히 지키시는 것이 좋겠으니,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주연은 최우의 말을 따랐고, 최우에게 만 명의 군사를 주어 앞장서게 했다. 그날 밤, 풍습과 장남, 오반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손환의 진영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자 오나라 군사들은 크게 혼란에 빠져 길을 잃고 도망치기 바빴다.

한편, 최우가 군사를 몰고 행군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급히 병사들을 재촉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막 산을 돌아 나오자마자 산골짜기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는데, 왼쪽에서는 관흥이, 오른쪽에서는 장포가 양쪽에서 협공해 들어왔다. 최우가 크게 놀라 도망치려던 찰나 마침 장포와 맞닥뜨렸고, 단 한 합을 겨루기도 전에 장포에게 생포되어 끌려가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위기를 느낀 주연은 배를 몰아 아래쪽으로 50~60리쯤 물러났다. 손환은 패배한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며 부하 장수에게 물었다. "앞으로 성이 튼튼하고 식량이 풍족한 곳이 어디냐?" 부하가 대답했다. "정북쪽으로 이릉 성까지 가면 군사를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손환은 패잔병을 이끌고 급히 이릉을 향해 달아났다.

손환이 겨우 성에 도착하자 오반 등이 뒤쫓아와 성 사방을 겹겹이 에워쌌다. 한편 관흥과 장포 등은 최우를 사로잡아 자귀로 압송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최우를 처형하고 삼군에 큰 상을 내렸다. 이때부터 유비의 위세가 드높아져 강남의 여러 장수 중 그 기세에 겁을 먹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손환이 오나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자, 손권은 크게 놀라 즉시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손환이 이릉에서 곤경에 처했고, 주연도 강 위에서 크게 패했다. 촉나라 군사의 기세가 저토록 강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장소가 아뢰었다. "지금 비록 많은 장수가 전사하거나 다쳤으나, 아직 열 명 남짓한 장수가 남아 있으니 어찌 유비를 걱정하십니까? 한당을 정장으로, 주태를 부장으로 삼고, 판장과 능통을 앞세워 선봉과 후방을 맡기며, 감녕을 구원병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일으켜 맞서게 하소서."

손권은 장소의 건의를 따라 즉시 장수들에게 군사를 일으키라고 명했다. 이때 감녕은 마침 이질을 앓고 있었으나, 병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섰다.

한편, 유비는 무협과 건평에서 군대를 일으켜 곧장 이릉 경계에 이르기까지 칠십여 리에 걸쳐 마흔 개가 넘는 진영을 잇달아 세웠다. 유비는 관흥과 장포가 연이어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예전에 나를 따르던 장수들은 이제 모두 늙어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다시 이토록 영웅다운 두 조카가 있으니, 내가 어찌 손권을 두려워하겠느냐!" 유비가 한창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당과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유비가 막 장수를 보내 적을 맞이하려 할 때, 가까운 신하가 아뢰었다. "노장 황충이 대 여섯 명을 데리고 동오로 가버렸습니다."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황한승(황충)은 반역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실언으로 늙은이는 쓸모없다고 말한 탓에, 그가 늙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기필코 힘을 다해 맞서 싸우려 간 것이다." 이어 유비가 관흥과 장포를 불러 말했다. "황한승이 이번에 가면 필시 실수가 있을 것이다. 어진 조카들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말고 가서 그를 도와라. 작은 공이라도 세우거든 곧 돌아오게 하고,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두 젊은 장수는 선주에게 절

을 올리고 자기 부대를 이끌어 황충을 도우리 떠났다. 이를 두고 이르기,

옛 신하는 평소 임금께 충성할 뜻을 맹세했고, 젊은 장수들은 나라에 보답하는 공을 능히 이루는구나.

황충이 이번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보기로 한다.

제83회 — 효정에서 선주가 원수를 갚고, 강구에서 서생이 대장군이 되다

戰獠亭先主得讎人 守江口書生拜大將

한편, 장무 2년 봄 정월, 무위후장군 황충이 유비를 따라 오나라를 정벌하러 나섰다. 그러던 중 유비가 노장들은 쓸모없다고 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황충은 즉시 칼을 들고 말에 올라타 친근한 수행원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곧장 이릉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오반과 장남, 풍습이 마중 나와 물었다. "노장군께서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황충이 말했다. "내가 장사에서 천자를 모시고 온 이래로 그동안 수많은 공을 세웠다. 지금 비록 일흔이 넘었으나, 고기 열 근을 먹고 두 섬 무게의 활을 당기며 천 리를 달리는 말을 탈 수 있으니 결코 늙었다고 할 수 없다. 어제 주상께서 우리 같은 노장들은 쓸모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직접 오나라 군대와 맞서 싸워 내가 장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면 내가 늙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장수가 묻고 대답을 듣던 중, 갑자기 오나라 군대의 선봉이 도착하여 초병들이 진영 근처까지 이르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황충은 용맹

하게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가 말에 올라탔다. 풍습 등이 "노장군께서는 부디 경솔하게 나아가지 마십시오"라며 만류했으나, 황충은 듣지 않고 말을 몰아 달려 나갔다. 오반은 풍습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투를 돕게 했다.

황충은 오나라 군대의 진영 앞에서 말을 멈추고 칼을 뽑아 든 채, 선봉장인 판장과 단독으로 맞서 싸웠다. 판장이 부하 장수인 사적을 불러내어 싸우게 했다. 사적은 황충이 나이가 많음을 알아보고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세 합을 채 붙기도 전에 황충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이에 크게 분노한 판장이 관우가 쓰던 청룡도를 휘두르며 황충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몇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황충이 힘을 다해 악전고투하자, 판장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말을 돌려 달아났다. 황충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여 베어 넘기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채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관흥과 장포를 만났다. 관흥이 "저희가 어른을 도우라는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이미 공을 세우셨으니 어서 진영으로 돌아가시지요"라고 말했으나, 황충은 끝내 듣지 않았다.

다음 날, 판장이 다시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다. 황충은 기운차게 말에 올라탔다. 관흥과 장포 두 사람이 돕겠다고 나섰으나 황충은 이를 물리쳤고, 오반이 돕고자 했을 때도 역시 거절하며 홀로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다. 싸움이 승패를 가리기 어려워지자 판장은 도를 끌며 달아났다. 황충은 말을 몰아 그를 뒤쫓으며 매섭게 외쳤다.

"적장을 멈춰라! 내가 오늘 관우의 원수를 갚으리라!"

삼십여 리를 추격할 때쯤,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오른쪽에는 주태, 왼쪽에는 한당이 나타났고, 앞에는 판장이, 뒤에는 릉통이 나타나 황충을 포위하여 퇴로를 끊어버렸다. 이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고, 황충이 급히 후퇴하려 할 때 산비탈에서 마충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황충의 어깨 관절에 명중했고, 그는 하마할 뻔할 정도로 크게 휘청거렸다. 오나라 군사들이 황충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일제히 공격해 왔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며 두 갈래의 군사가 달려들었다. 오나라 군사들이 흠어지는 사이 황충을 구해낸 이는 바로 관흥과 장포였다. 두 젊은 장수는 황충을 모시고 유비의 본영으로 곧장 달려갔다. 황충은 나이가 많은 데다 피를 많이 흘린 데다 화살을 맞은 상처까지 터져 병세가 매우 위중했다. 유비가 직접 황충을 살피러 와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노장군을 중상 입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나의 허물이다!"

황충이 말했다.

"신은 그저 무부일 뿐인데 다행히 폐하를 뵙게 되었습니다. 신은 올해 일흔다섯이니 수명은 충분히 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중원을 도모하십시오!"

말을 마친 황충은 정신을 잃었고, 그날 밤 황제의 진영에서 숨을 거두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시로 그를 기리며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았다.

"노장 황충은 촉나라를 평정해 큰 공을 세웠네. 금빛 갑옷 다시 입고 무거운 활을 두 손으로 당기니, 그 답력은 하북을 놀라게 하고 위엄은 촉 땅을 진압했도다. 죽음에 임하여 머리가 눈처럼 희어졌으나, 여전히 영웅의 기상을 떨쳤네."

유비는 황충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관을 준비하게 하여 황충을 성도에 장사 지냈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오호대장군 중 벌써 세 명이나 세상을 떠났구나. 나는 아직 원수를 갚지도 못했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도다!" 그러고는 친히 어림군을 이끌고 효정까지 나아가 여러 장수를 불러 모은 뒤, 군사를 여덟 갈래로 나누어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게 했다. 물길로는 황권에게 군사를 맡겼고,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육로로 나아갔다. 때는 장무 2년 2월 중순이었다.

한당과 주태는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정벌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다. 양측 진영이 서로 마주 선 가운데, 한당과 주태가 말을 타고 나섰다. 촉나라 진영의 문기 앞에서 유비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는데,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우산을 쓰고 좌우로는 흰 깃발과 황금 도끼, 금은으로 만든 깃발들이 그를 호위하며 둘러싸고 있었다.

한당이 크게 외쳤다. "폐하께서는 이제 축나라의 주인이 되셨거늘, 어찌 이토록 경솔하게 직접 나오십니까? 만약 부주의하여 실수를 범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멀리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네놈들 오나라 개들아! 내 형제들을 해쳤으니, 결코 너희와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한당이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감히 축나라 군사를 막아 서겠느냐?"

그러자 부장 하순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나갔다. 유비의 뒤에 있던 장포 역시 장팔모를 들고 말을 몰아 달려 나오며 크게 호통을 쳤고, 곧장 하순을 공격했다. 하순은 장포의 외침이 마치 거대한 천둥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순이 급히 도망치려 할 때, 주태의 동생 주평이 하순이 적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왔다. 이를 본 관흥도 말을 뛰어넘듯 몰아 칼을 들고 맞서 나갔다. 장포가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며 창을 내찌르자, 하순은 그 충격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주평이 크게 놀라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관흥의 칼에 베여 죽었다. 두 젊은 장수의 기세에 눌린 한당과 주태는 황급히 진영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유비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호랑이 아비에 개 자식은 없구나!"

유비가 채찍으로 그쪽을 가리키자, 축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돌격하여 몰아쳤고 오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여덟 갈래로 갈라져 밀려드는 축

나라 군대의 기세는 마치 샘물이 솟구치는 듯했고, 그 기세에 밀린 오나라 군사들은 시체가 들판을 뒤덮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한편, 감녕은 배 안에서 병을 치료하며 쉬고 있다가 촉나라 군대가 크게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말에 올라탔다. 마침 적군 한 무리를 만났는데, 병사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인 데다 활과 노, 긴 창, 방패, 칼, 도끼를 들고 있었다. 그 우두머리는 번왕 사마가였는데, 얼굴은 피를 뿌린 듯 붉고 눈은 파랗게 돌출되어 있었으며, 철지뢰가 박힌 철퇴를 휘두르고 허리에는 활 두 장을 차고 있어 위풍이 대단했다. 감녕은 그 기세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한 채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사마가가 쏜 화살에 머리를 맞고 말았다. 감녕은 화살을 맞은 채 도망쳐 부지구에 이르렀고,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나무 위에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몰려와 그의 시신 주위를 맴돌았다. 손권이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정중한 예로 장례를 치러주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오나라의 영웅 감녕은 장강의 화려한 배를 탔었네. 자신을 알아준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친구의 원수를 갚으려 했네. 진영을 습격하고 가벼운 기병을 몰아 큰 술잔에 술을 마셨으나, 신령한 까마귀가 그를 지키니 향불은 천 년토록 끊이지 않으리."

한편, 유비는 기세를 몰아 적을 추격하여 마침내 효정에 이르렀다. 오나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유비가 군사를 거두어 정비했으나, 관흥이 보이지 않았다. 유비는 황급히 장포 등에게 명령하여 사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사실 관흥은 오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갔

다가 마침 원수인 판장을 만나 말을 달려 추적하던 중이었다. 판장은 크게 놀라 산골짜기 안으로 도망쳤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관흥은 적이 산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어느덧 날은 저물고 길까지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별과 달빛이 밝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관흥이 산골짜기 외진 곳까지 쫓아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이경이었다. 관흥은 어느 마을 집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다. 관흥이 말했다. "나는 장수인데, 길을 잃고 이곳까지 왔소. 배를 채울 수 있게 밥 한 끼만 부탁하오." 노인이 안으로 안내하자, 관흥은 대청에 밝게 켜진 촛불 사이로 중앙에 그려진 관우의 신상을 보게 되었다. 관흥은 큰 소리로 울며 절을 올렸다. 노인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울며 절을 하십니까?" 관흥이 대답했다.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옆드려 절했다. 관흥이 물었다. "어찌하여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계십니까?" 노인이 답했다. "이곳은 모두 존엄한 신령님이 계신 곳이라오. 살아계실 때도 집집마다 모셨는데, 하물며 지금은 신령님이 아니겠소? 노부는 그저 촉나라 군사들이 하루빨리 원수를 갚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소. 이제 장군께서 오셨으니 이 마을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로다." 노인은 곧 술을 차려 관흥을 대접하고, 관흥은 말의 안장을 벗겨 말에게 먹이를 주었다.

삼경이 지난 뒤, 갑자기 문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나가서 물어보니 오나라 장수 판장이 숙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판장이 마침 초가집 안으로 들어서자, 관흥이 그를 보고 칼을 권채 크게 호통을 쳤다.

"반역자 놈, 거기 서라!"

판장이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문밖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은 붉은 대추 빛이고 눈은 봉황 같으며 눈썹은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하고, 수염은 세 가닥으로 아름답게 휘날렸다. 초록색 도포에 금빛 갑옷을 입고 칼을 권 채 당당히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판장은 그가 관우의 신령한 모습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판장이 몸을 돌려 피하려 했으나, 이미 관홍이 칼을 휘둘러 그를 베어 넘긴 뒤였다. 관홍은 판장의 심장을 꺼내어 관우의 신상 앞에 제를 올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관홍은 아버지의 청룡언월도를 챙긴 뒤 판장의 머리를 말 안장 아래에 매달고, 노인에게 작별을 고한 뒤 판장이 타고 온 말을 타고 본영을 향해 달려갔다. 노인은 판장의 시신을 끌어내어 불태워 없애버렸다.

한편, 관홍이 수없이 많은 길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판장의 부하인 마충이었다. 마충은 관홍이 자신의 주군인 판장을 죽이고 그 머리를 말 안장 아래 매달아 놓은 것을 보자, 청룡도까지 빼앗긴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을 몰아 관홍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관홍은 마충이 아버지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느끼며 청룡도를 높이 들어 마충을 향해 내리쳤다. 마충의 부하 삼백 명이 힘을 합쳐 달려들며 함성을 지르자, 관홍은 순식간에 포위되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그때 갑자기 북서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오는데, 바로 장포였다. 마충은 구원병이 왔음을 보고는 황급히 군사를 이끌고 퇴각했다. 관홍과 장포가 함께 뒤쫓아

갔으나 몇 리를 가지 못해, 앞서 마충을 찾아 나선 미방과 부사인이 이끄는 군사와 맞닥뜨려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관흥과 장포는 병력이 부족하여 황급히 후퇴하여 효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유비를 만나 판장의 머리를 바치며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이 놀라운 소식에 크게 놀라며 삼군 장병들에게 상을 내리고 격려했다.

한편, 마충은 한당과 주태를 찾아가 보고한 뒤, 패배한 군사들을 불러 모아 각지에서 수비하게 했다. 부상당한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마충은 부사인, 미방과 함께 강가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날 밤 삼경이 되자,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방이 몰래 엿들어 보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형주에서 온 병사들인데, 여몽의 계략에 속아 주군을 잃고 말았네. 이제 유비 황숙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셨으니, 오나라는 머지않아 끝장날 것이야. 한이 남는 것은 미방과 부사인 두 사람뿐이네. 우리가 차라리 저 두 역적을 죽이고 촉나라 진영으로 가서 항복한다면, 공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네." 그러자 또 다른 무리의 군사들이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말게.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손을 쓰는 것이지." 미방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부사인과 상의했다. "군심이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 둘의 목숨도 보장하기 어렵겠네. 지금 촉나라 황제가 원망하는 것은 마충뿐이니, 차라리 그를 죽여 머리를 촉나라 황제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하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나라에 항복했으나, 이제 황제께서 직접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죄를 청하러 달려왔나이다'라고 말이네." 부사인이 말했다. "안 되네. 가면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네." 미방이 대답했다. "촉나라 황제는 너그럽고 덕이 높은 분이 아니신가. 지금 태자인

아두가 내 외조카이니, 황제께서 나를 국친으로서 생각하신다면 분명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네."

두 사람이 계획을 세운 뒤 먼저 말들을 준비했다. 한밤중 삼경이 되자, 두 사람은 막사로 들어가 마총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는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효정으로 달려왔다. 길목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을 통해 먼저 장남과 풍습을 만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유비의 진영으로 가서 마총의 머리를 바치며 울며 고했다. "저희에게는 결코 배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몽의 간계에 속아 관우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성문을 열어주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폐하의 한을 풀고자 특별히 이 도적놈을 죽였습니다. 부디 폐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비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가 성도를 떠나온 지가 언제인데, 너희 둘은 어찌하여 죄를 청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제 형세가 위태로워지니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는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면, 저승에 가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관우를 보겠느냐!" 말을 마친 유비는 관흥에게 명하여 진영 안에 관우의 신위를 모시게 했다. 그리고 유비가 직접 마총의 머리를 받들어 관우의 신위 앞에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이어 관흥에게 명하여 미방과 부사인을 옷을 벗긴 채 신위 앞에 무릎 꿇게 한 뒤, 직접 칼로 살을 도려내어 관우의 제물로 삼았다. 이때 장포가 막사로 올라와 울며 절을 올렸다. "둘째 숙부님의 원수들은 모두 처단되었는데, 제 아버지의 원한은 언제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조카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강남을 평정하고 오나라 놈들을 모조리 죽여서, 저 두 역적을 반드시 사로잡아 너와 함께 직접 그들을 짓밟

가 네 아버지의 제사에 바치겠다." 장포는 울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이때 유비의 위세가 크게 떨치자 강남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밤낮으로 통곡하였다. 한당과 주태는 크게 놀라 오나라 왕에게 급히 보고하기를, "미방과 부사인이 마충을 죽이고 촉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촉나라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손권은 마음이 흔들려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보졸이 나아가 말했다. "촉나라 황제가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은 여몽, 판장, 마충, 미방, 부사인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 죽고 없고, 오직 범강과 장달 두 사람만이 우리 오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장비의 머리까지 함께 담아 사신을 보내 촉나라에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장비의 부인을 돌려보내 주고, 화친을 청하는 표문을 보내 지난날의 일을 잊고 다시 힘을 합쳐 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힘쓰자고 제안한다면, 촉나라 군사들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랐다. 이에 향나무 상자를 정성껏 준비하여 장비의 머리를 담고, 범강과 장달을 묶어 감옥 수레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 정병을 사신으로 삼아 화친 서신을 들려 효정을 향해 가게 하였다.

한편, 유비가 군사를 몰아 진격하려 할 때 갑자기 가까운 신하가 달려와 보고했다.

"오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장비의 머리와 죄인인 범강, 장달을 압송해 왔습니다."

유비는 양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탄식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자, 또한 내 둘째 동생의 영혼이 보낸 것이 로구나!"

유비는 즉시 장포에게 명하여 장비의 위패를 모시게 했다. 유비는 상자 안에 담긴 장비의 머리를 보고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목놓아 크게 울었다. 장포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범강과 장달을 잔인하게 처형하며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 드렸다. 제사를 마친 뒤에도 유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반드시 오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때 마량이 나서서 아뢰었다.

"원수를 모두 죽였으니 그 한을 조금이나마 씻으셨습니다. 지금 오나라의 대부 정병이 도착했는데, 그는 형주를 돌려주고 부인도 돌려보내어 영원히 동맹을 맺고 함께 위나라를 멸하자고 청하러 왔습니다. 성상께서는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유비가 분노하며 말했다.

"내가 이를 갈며 원수로 삼는 자는 바로 손권이다. 지금 그와 화친한다면 이는 둘째 동생과 맺었던 맹세를 저버리는 일이다. 나는 먼저 오나라를 멸하고, 그다음에 위나라를 멸할 것이다."

유비는 오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사신을 베어버리려 했다. 여러 관리들이 간곡히 만류한 끝에 겨우 멈추게 되었다. 정병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치듯 돌아가 오나라 군주에게 보고했다.

"축나라가 화친을 거부합니다. 반드시 먼저 오나라를 멸한 뒤에 위나라를 치겠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간곡히 말려도 듣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이때 감택이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다.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인물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쓰지 않으려 하십니까?" 손권이 급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감택이 대답했다. "예전에 동오의 대사를 결정할 때는 주유가 전권을 맡았고, 그 뒤에는 노숙이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노숙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여몽이 대사를 결정했지요. 지금 여몽은 비록 세상을 떠났으나, 형주에는 육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유학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웅대한 재능과 원대한 도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유에 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관우를 격파한 것도 모두 육손의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군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면 축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다면 신 또한 함께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손권이 탄식하며 말했다. "덕윤(감택)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큰일을 그르칠 뻔했구나." 그러자 장소가 말했다. "육손은 그저 글이나 읽는 선비일 뿐, 유비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쓰기에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고옹 역시 거들었다. "육손은 나이가 어려 사람들에게 경시당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장수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화와 난리가 생길 것이니, 반드시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보졸 또한 말했다. "육손의 재능은 고작 군을 다스릴 정도일 뿐입니다. 만약 나라의 대사를 맡긴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택이 크게 외치며 말했다. "만약 육손을 쓰지 않는다면 동오는 끝장날 것입니다! 신은 온 가족을 걸고 이 인물을 보증하겠습니다!" 손권이 말했

다. "나 또한 육손이 기이한 재능을 가진 인물임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에 손권은 육손을 불러들였다. 육손은 본래 이름이 육의였으나 나중에 육손으로 고쳤으며, 자는 백언이고 오군 오현 사람이다. 한나라 성문교위 육우의 손자이자 구강 도위 육준의 아들이다. 키는 여덟 자에 달하고 얼굴은 아름다운 옥과 같았다. 진서장군을 맡고 있다가, 손권의 부름을 받고 즉시 달려왔다. 육손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손권이 말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가 국경까지 들이닥쳤으니, 과인은 특별히 그대에게 군마를 총괄하여 유비를 격파할 책임을 맡기려 하오." 육손이 대답했다. "강동의 문무백관은 모두 대왕의 오래된 신하들입니다. 재주 없는 제가 어찌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다시 말했다. "감덕윤이 온 가족을 걸고 그대를 보증했듯이, 과인 또한 평소 그대의 재능을 잘 알고 있소. 이제 그대를 대도독으로 임명할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육손이 물었다. "만약 문무백관이 복종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손권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육손에게 건네며 말했다. "만약 호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먼저 베고 나중에 보고 하시오." 육손이 말했다. "이토록 중한 책임을 맡겨주시니 어찌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대왕께서 내일 모든 관리를 모아놓은 자리에서 정식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감택이 거들었다. "예로부터 장수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제단을 쌓아 무리를 모으고, 흰 깃발과 황색 도끼, 인장과 병부를 내려주어야 위엄이 서고 명령이 엄숙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이 예법을 따라 날을 잡아 제단을 쌓고 백언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시며 부절과 도끼를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랐다. 사람을 시켜 밤새

도록 제단을 쌓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백관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육손을 제단에 올려 대도독과 우호군진서장군으로 임명하고, 루후로 봉하며 보검과 인장을 하사했다. 또한 육손에게 6군 81주의 군사와 형초 지방의 모든 군마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 손권이 당부하기를, "궁궐 문 안의 일은 과인이 주관하겠으나, 궁궐 문 밖(전장)의 일은 장군이 통제하시오"라고 하였다.

육손은 명령을 받들어 제단에서 내려와,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삼아 그날 바로 출정했다. 한편으로는 여러 길로 군마를 움직여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게 했다. 육손의 서신이 효정에 도착하자 한당과 주태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주상께서 어찌하여 일개 선비에게 총병의 임무를 맡기신단 말인가?" 육손이 도착했을 때도 장수들은 모두 그를 따르지 않았다. 육손이 장막에 올라 일을 논하자, 장수들은 마지못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육손이 말했다. "주상께서 저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촉나라를 격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군대에는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여러분은 각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왕법 앞에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수들은 모두 침묵했다. 이때 주태가 말했다. "지금 안동장군 손환은 주상의 조카인데, 이릉 성안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군량이 떨어지고 밖으로는 구원병이 없으니, 도독께서는 어서 좋은 계책을 세워 손환을 구해내어 주상의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육손이 대답했다. "저는 평소 손환이 군사들의 신망을 깊이 얻고 있어 반드시 굳게 버텨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촉나라를 격파하고 나면 그는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장수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물러갔다. 한당이 주태에게 말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장수의 직분을 맡기

다니, 동오가 끝장나게 생겼군! 자네도 저자가 하는 짓을 보았는가?" 주태가 대답했다. "나도 그저 말로만 떠보았을 뿐이네. 아무런 계책도 내놓지 못하는데 어찌 촉나라를 격파할 수 있겠나?"

다음 날, 육손은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각자 관문을 지키고 험한 길목을 굳게 사수하며, 결코 적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일렀다. 그러나 장수들은 모두 육손이 겁쟁이라며 비웃었고,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튿날, 육손이 장막 위로 올라가 장수들을 불러 모아 꾸짖듯 말했다. "나는 왕의 명을 받들어 모든 군사를 총괄하고 있다. 어제 이미 여러 번 거듭하여 각자 위치에서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거늘, 어찌하여 모두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한당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는 손 장군께서 강남을 평정하실 때부터 수백 번의 전투를 치러왔소. 다른 장수들도 토역장군(손책)을 따랐거나 지금의 대왕을 모시면서 모두 무장을 갖추고 생사를 넘나들며 싸워온 용맹한 이들이오. 이제 주상께서 공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촉나라 군대를 물리치라 명하셨으니, 마땅히 조속히 계책을 세워 군마를 배치하고 각지로 진격하여 대업을 도모해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싸우지도 말고 그저 지키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오? 하늘이 스스로 도적을 죽여주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이오? 우리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거늘, 어찌하여 우리의 기세를 꺾으려 하시오?" 이 말이 끝나자 장막 아래의 장수들이 모두 목소리를 높여 맞장구를 쳤다. "한 장군의 말이 옳소!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소!" 육손은 그 말을 다 듣고는 칼을 뽑아 손에 쥔 채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선비이나, 주상께서 내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내게 조금이라도 쓰임이 있고 모욕을 견디며 무거운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이요. 너희는 각자 길목을 지키고 험한 요충지를 단단히 사수하며,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 참할 것이요!" 장수들은 모두 분한 기색을 내비치며 물러갔다.

한편, 유비는 효정에서부터 동천 입구에 이르기까지 700리에 걸쳐 군사를 배치했다. 앞뒤로 마흔 개의 영채를 세웠는데, 낮에는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밤에는 횃불이 하늘을 밝힐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했다. 이때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오나라에서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아 모든 군사를 통제하게 했습니다. 육손은 장수들에게 명하여 각자 험한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육손이라는 자는 어떤 인물이나?" 마량이 대답했다. "육손은 비록 오나라의 젊은 선비에 불과하나, 나이는 어려도 재능이 뛰어나고 계략이 매우 깊습니다. 예전에 형주를 침공했던 것도 모두 이 사람의 기묘한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유비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어린놈이 간사한 꾀를 부려 내 두 동생을 해치다니, 이제 반드시 그놈을 잡아 오리라!" 유비는 즉시 군사를 진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마량이 간언했다. "육손의 재능은 주유에 뒤지지 않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전쟁 경험이 풍부한 노장인데, 어찌 저 어린아이만도 못하겠느냐!" 말을 마친 유비는 직접 앞장서서 여러 길목의 요충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당은 유비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육손에게 알렸다. 육손은 한당이 경거망동할까 염려되어 급히 말을 달려 직접 상황을 살피러 갔다. 마침 한당은 산 위에 말을 세워두고 멀리서 촉군이 산

과 들을 가득 메우며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군대 사이사이로 황색 깃발과 화려한 산개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한당은 육손을 맞이하여 함께 말을 타고 전황을 살폈다. 한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군대에는 분명 유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들을 치고 싶습니다."

육손이 말했다. "유비가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내려오며 열 번 넘게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지금 그 기세가 매우 드높습니다. 지금은 그 저 높은 지형을 점하고 험한 곳을 지키며 버텨야지, 가볍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간다면 불리할 것입니다. 다만 장병들을 격려하고 방어책을 널리 펼치며 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들은 넓은 평원을 달리고 있으니 기세가 등등하겠지만, 우리가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싸움을 걸 곳이 없어 결국 산림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진영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기묘한 계책으로 저들을 이기겠습니다."

한당은 입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도무지 승복하지 않았다.

유비는 앞선 부대를 보내 전투를 벌이게 하며 온갖 육설을 퍼부어 도발했다. 하지만 육손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응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육손은 직접 여러 관문을 돌며 장병들을 위로하고 모두 견고히 지키도록 명령했다. 유비는 오나라 군대가 나오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졌다.

이때 마량이 말했다. "육손은 모락이 깊은 인물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봄부터 여름까지 먼 길을 오며 공격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의 변화를 기다리려는 속셈입니다. 부디 살피셔야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가 무슨 모락이 있겠느냐? 그저 적이 두려워 피하는 것뿐이다. 전에도 여러 번 패했는데, 이제 와서 어찌 감히 다시 나오겠느냐?"

선봉장 풍습이 보고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군사들이 불벌더위 속에 머물고 있으니, 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유비는 각 진영에 명하여 모두 나무가 무성한 산림 지대로 옮기고, 시냇가나 계곡 근처에 자리를 잡게 한 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힘을 합쳐 진격하기로 했다. 풍습은 명을 받들어 모든 진영을 나무가 울창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겼다.

마량이 다시 아뢰었다. "만약 우리 군이 움직일 때 오나라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찌합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오반에게 만여 명의 약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오나라 진영 근처 평지에 머물게 하라 명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여덟 천 명의 정예병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킬 것이다. 만약 육손이 내가 진영을 옮긴 것을 안다면 반드시 기세를 몰아 공격해 올 텐데, 그때 오반에게 거짓으로 패배하게 하라. 육손이 추격해 오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돌파하여 그 퇴로를 끊을 것이니, 육손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무백관이 모두 기뻐하며 말했다. "폐하의 신묘한 계책은 저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마량이 말했다. "최근 듣기로 제갈 승상이 동천에서 각지의 험한 길목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위나라 군대가 침입할까 우려되니, 폐하께서는 각 진영이 옮겨가 머물 곳을 지도로 그려 승상께 여쭙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나도 병법을 꽤 알고 있는데, 굳이 승상에게 다시 물어야겠느냐?"

마량이 말했다.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들으면 눈이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이 점을 살피소서."

유비가 말했다. "경은 직접 각 진영을 돌며 사방의 경계와 여덟 갈래 길을 지도로 그려, 동천에 있는 승상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라.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즉시 돌아와 보고하라."

마량이 명을 받들어 떠났다. 그사이 유비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군대를 숲이 우거진 그늘진 곳으로 옮겼다. 이 소식은 이미 첩자를 통해 한당과 주태에게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육손을 찾아가 말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 마흔여 개 진영이 모두 산림이 우거진 곳으로 옮겨가 계곡과 시냇가 옆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대도독께서는 이 허점을 틈타 공격하셔야 합니다."

말마따름없이, 축나라 임금은 계책을 세워 매복을 준비하고, 오나라 군사는 용맹을 떨치려다 도리어 사로잡힐 형국이었다.

과연 육손이 이들의 말을 들을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4회 — 육손이 칠백 리를 불태우고, 공명이 교묘하게 팔진도를 펼치다

陸遜營燒七百里 孔明巧布八陣圖

한편, 한당과 주태가 유비가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진영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급히 육손에게 보고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동태를 살폈다. 살펴보니 평지에 진을 친 군대는 만 명도 채 되지 않았고, 그중 대부분은 노약자들뿐이었으며, ‘선봉 오반’이라는 깃발을 크게 내걸고 있었다. 주태가 말했다. “이런 병사들은 제게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한 장군과 함께 두 갈래로 나누어 공격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군령을 달게 받겠습니다.” 육손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채찍으로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앞쪽 산골짜기에서 은근히 살기가 느껴집니다. 저 아래에는 분명 복병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평지에 약한 병사들을 배치해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출격해서는 안 됩니다.” 장수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육손이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축의 장수 오반이 군사를 이끌고 관문 앞까지 와서 싸움을
 결며 위세를 떨치고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옷을 벗고 갑
 옷을 풀어헤친 채 맨몸을 드러내어 잠을 자거나 앉아 있는 등 오만방자
 한 태도를 보였다. 서성과 정봉이 육손의 막사로 들어가 보고했다. “축
 나라 군사들이 우리를 너무도 업신여깁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들
 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그저
 혈기 넘치는 용기만 믿을 뿐, 손오의 병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려.
 이것은 적을 유인하려는 계책이니, 사흘 뒤면 반드시 저들의 속임수임
 을 알게 될 것이요.” 서성이 물었다. “사흘 뒤라면 저들이 이미 진영을
 옮겨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저들을 공격한단 말씀입니
 까?” 육손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저들이 진영을 옮기도록 만들려는
 것이요.” 장수들은 육손의 말을 비웃으며 물러갔다. 사흘이 지난 뒤,
 육손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관문 위에서 상황을 살펴보니 오반의 군사
 가 이미 물러가 있었다. 육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살기가
 일어나는구나. 유비는 반드시 산골짜기를 통해 나올 것이다.” 말이 끝
 나기가 무섭게 축나라 군사들이 무장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나타나
 유비를 호위하며 지나갔다. 이를 본 오나라 군사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
 해졌다. 육손이 말했다. “내가 여러분의 출격을 만류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요. 이제 북병이 이미 움직였으니, 열흘 안에 반드시 축나라 군을
 격파할 것이요.” 장수들이 말했다. “축나라를 깨뜨리는 것은 처음이 쉬
 웠겠지요. 지금은 진영이 오백여 리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고, 일곱여
 뿔 달 동안이나 지키고 있어 요충지마다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데 어
 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육손이 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병법을 잘
 모르시는구려. 유비는 세상에 드문 영웅이라 지략이 매우 뛰어나고,
 그 군사들은 이제 막 집결했을 때는 법도가 엄격했소. 하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수비만 하느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 병사들은 지쳤고 의욕도 꺾여 있소. 승기를 잡는 것은 바로 오늘이 될 것ियो.” 그제야 장수들은 육손의 말에 감탄하며 따랐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일을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호랑이 막사에서 병법을 논하며 육도(六韜)를 살피니, 향기로운 미끼로 거대한 고래를 낚는구나. 삼국시대에 영웅들이 참으로 많다지만, 강남의 육손이 이토록 높음을 다시금 보여주는구나.”

한편, 육손은 이미 촉나라를 격파할 계책을 세운 뒤, 곧 촉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사신을 보내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이 이를 읽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강동에 다시 이런 비범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장수들은 모두 그가 나약하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나만은 믿지 않았다. 이제 그의 말을 보니 과연 나약한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에 손권은 즉시 오나라의 군사를 일으켜 육손을 지원하러 나섰다.

한편, 유비는 효정에서 수군을 전부 몰아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강을 따라 수채를 세우며 오나라 영토 깊숙이 진격했다. 이때 황권이 간언했다. "수군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전진하기는 쉬우나 후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이 앞장서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폐하께서는 후방 진영에 머무르셔야 만에 하나 있을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오나라 적들은 이미 기세가 꺾였으니, 내가 거침없이 진격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여러 관리가 간곡히 만류했으나 유비는 듣지 않았다. 결국 유비는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었다. 황권에게는 위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북의 병사를 감독하게 했고, 유비는 직접 강

남의 여러 군사를 거느리며 강 양옆으로 진영을 세워 전진을 꾀했다. 이때 첩자가 위나라 군주에게 밤중에 보고하기를, "촉나라 군사가 오나라를 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진영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길이가 700여 리에 달하고 40여 곳의 진영이 모두 산과 숲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황권이 강북 기슭에서 병사를 감독하며 매일 100여 리씩 정찰을 나가고 있는데,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위나라 군주 조비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유비가 패배하겠구나.”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자 조비가 대답했다. “유비는 병법을 모른다. 어찌 칠백 리에 달하는 긴 진영을 늘어놓고 적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높지나 험한 지형에 병력을 길게 늘어뜨려 주둔하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다. 유비는 반드시 오나라 육손의 손에 패할 것이니, 열흘 안에 반드시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신하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며 모두 군사를 보내 대비하자고 청했다. 그러자 조비가 말했다. “만약 육손이 승리한다면, 반드시 오나라의 군사들을 모두 끌어모아 서천을 치러 갈 것이다. 그러면 오나라의 군사가 멀리 떠나니 나라 안이 텅 비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군사를 보내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 갈래로 일제히 진군한다면 손쉽게 오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모두가 조비의 말에 감탄하며 복종했다. 조비는 즉시 명령을 내려 조인이 한 군사를 거느리고 유수로 나가게 하고, 조휴가 한 군사를 거느리고 동구로 나가게 했으며, 조진이 한 군사를 거느리고 남군으로 나가게 했다. 이어 “세 갈래의 군마가 합류하는 날에 맞춰 오나라를 기습하라. 나는 뒤따라가며 지원하겠다”라고 명했다. 이로써 군사 파견이 결정되었다.

한편, 마량이 성도에 도착하여 제갈량을 알현하고 진영 배치도를 올리며 말했다.

"지금 진영을 강을 따라 700리에 걸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래로 40여 개의 군영이 모두 시냇가와 골짜기,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곳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상께서 이 배치도를 승상께 보여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제갈량이 지도를 다 보고는 탁자를 내리치며 탄식했다.

"대체 누가 주상께 이런 식으로 진을 치라고 가르쳤단 말입니까? 이런 계책을 낸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마량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의 계책이 아니라, 모두 주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한나라의 기운이 이제 다했구나!"

마량이 그 이유를 묻자 제갈량이 설명했다.

"습하고 험한 지형에 진영을 결합해 만드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피해야 할 큰 실수입니다. 만약 적이 화공을 펼친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700리에 걸쳐 진영을 늘어놓았으니 어떻게 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 머지않았습니다! 육손이 움직이지 않고

수비만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대는 어서 가서 천자를 뵙고, 모든 군영의 배치를 고치라고 전하십시오. 절대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량이 다시 물었다.

"만약 지금 오나라 군대가 이미 승기를 잡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육손은 감히 추격해오지 못할 것이니, 성도는 무사할 것입니다."

"육손이 왜 추격하지 못합니까?"

"위나라 군대가 뒤를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상께서 위태로워지거든 즉시 백제성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내가 성도로 들어 올 때, 이미 어북포에 10만 대군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는 어북포를 여러 번 오갔지만 병사 한 명 본 적이 없습니다. 승상, 어찌 그런 거짓 말씀을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나중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 더 묻지 마십시오."

마량은 서둘러 보고서를 받아 들고 주상의 진영으로 급히 달려갔다. 제갈량은 스스로 성도로 돌아가 군마를 불러 모으며 구원할 준비를 했다.

한편, 육손은 촉나라 군사들이 해이해져 방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는, 장막을 높이 올려 크고 작은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명령을 내렸다.

"내가 명을 받은 이래로 아직 직접 전투에 나선 적은 없소. 지금 촉나라 군사들의 움직임을 보니 그 형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먼저 강남 쪽의 진영 하나를 취하고자 하오. 누가 가서 점령하겠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당, 주태, 능통 등이 일제히 나서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육손은 그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하며 쓰지 않고, 오직 부하 장수인 순우단만을 따로 불렀다.

"내가 그대에게 군사 오천을 주겠소. 촉나라 장수 부동이 지키고 있는 강남의 네 번째 진영을 공격하시오. 오늘 밤 안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오.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원하겠소."

순우단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육손은 다시 서성과 정봉을 불렀다.

"그대들은 각각 군사 삼천씩을 거느리고 진영 밖 오 리 지점에 머무시오. 만약 순우단이 패하여 돌아오거나 적군이 몰려오면 즉시 나가서 구출하되, 적을 쫓아가서는 안 되오."

두 장수는 명령을 받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한편, 순우단은 해 질 녘에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촉나라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 지난 뒤였다. 순우단이 군사들에게 북을 크게 울리며 진입하라 명령하자, 촉나라 진영에서 부동이 군사를 이끌고 튀어나와 창을 겨누며 순우단을 직접 공격했다. 순우단은 상대가 버겁다고 느껴 말머리를 돌려 후퇴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함성이 울리며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는데, 그 선두에는 장수 조율이 있었다. 순우단은 길을 뚫고 도망치려 했으나 군사의 절반을 잃고 말았다. 도망치던 중에는 산 뒤에서 야만족 군사 한 무리가 앞길을 막아섰으니, 그 선두에는 번장 사마가가 있었다. 순우단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빠져나왔으나, 뒤에서는 세 갈래의 군사가 추격해 왔다. 진영에서 5리쯤 떨어졌을 때, 오나라 장수 서성과 정봉두 사람이 양쪽에서 달려드는 바람에 촉나라 군사가 몰려나면서 순우단은 겨우 목숨을 건져 진영으로 돌아왔다. 순우단은 화살을 맞은 채 육손을 찾아가 죄를 청했다. 육손이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적의 허실을 시험해 보고자 했을 뿐이오. 촉나라를 격파할 계책은 이미 세워두었소." 서성과 정봉이 말했다. "촉나라 군사의 기세가 워낙 강하여 쉽게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괜히 병력과 장수만 잃을 뿐입니다."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내 이 계책은 제갈량만 아니면 속일 수 있소. 다행히 그 사람이 여기 없으니 내 큰 공을 세울 수 있겠구려." 그러고는

즉시 크고 작은 장수들을 모아 명령을 내렸다. “주연은 수로로 진격하라. 내일 오후에 동남풍이 크게 불면, 배에 짚과 풀을 가득 싣고 계획대로 움직이라. 한당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북 기슭을 공격하고, 주태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남 기슭을 공격하라. 각자 손에는 짚 한 뭉치를 들되 그 안에 유황과 초석을 숨기고, 각자 불씨를 지닌 채 창과 칼을 들고 일제히 달려들라. 축나라 진영에 도착하면 바람을 등지고 불을 붙여라. 축나라 진영이 마흔 둔이니, 그중 스무 둔만 태워되 한 둔 건너 한 둔씩 태워라. 각 군은 미리 마른 식량을 준비하여 잠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밤낮으로 추격하여 유비를 잡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장수들이 군령을 듣고 각자 계책을 전해 들은 뒤 물러갔다.

한편, 유비는 진영에서 오나라를 물리칠 계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막 앞에 세워진 중군 깃발이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유비가 정기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냐?” 정기가 대답했다. “설마 오늘 밤 오나라 군사가 습격해 오려는 것입니까?” 유비가 말했다. “어젯밤에 다 죽었는데 어찌 감히 다시 오겠느냐?” 정기가 다시 말했다. “만약 육손이 적의 기세를 시험하려는 것이라면 어찌합니까?” 대화가 이어지던 중, 산 위에서 오나라 군사들이 모두 산을 따라 동쪽으로 멀리 가버리는 것이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말했다. “저것은 의심을 일으키려는 가짜 군사들이다.” 유비는 모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하고, 관흥과 장포에게 각각 오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정찰을 나가라고 일렀다. 황혼 무렵, 관흥이 돌아와 보고했다. “강북 진영에서 불이 났습니다.” 유비는 급히 관흥에게는 강북으로, 장포에게는 강남으로 가서 적의 실체를 살피라고 명령하며 덧붙였다. “만약 오나라 군사가 도착하면 즉시 보고하라.”

두 장수가 명을 받고 물러갔다. 초경 무렵, 갑자기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그러더니 어영의 왼쪽 진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막 불을 끄려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진영에서 또 불이 일어났다. 바람은 거세고 불길은 급격히 번져 나무들이 죄다 타올랐다. 비명과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두 진영의 군마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어영 중앙을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달렸으나, 어영의 군사들은 서로 짓밟히며 죽어 나갔는데 그 수가 셀 수도 없었다. 뒤이어 오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치니, 그 피해는 더욱 막심했다.

유비는 급히 말을 타고 풍습의 진영으로 돌아났으나, 풍습의 진영 역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었다. 강남과 강북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다. 풍습은 당황하여 말을 타고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도망치다 오나라 장수 서성과 맞닥뜨려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유비는 그 광경을 보고 말을 돌려 서쪽으로 급히 돌아났다. 서성은 풍습을 뒤로한 채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추격했다. 유비가 한창 당황하여 달아나는데, 앞길을 한 부대가 가로막으니 바로 오나라 장수 정봉이었다. 양쪽에서 협공해 들어오자 유비는 크게 놀라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그때 갑자기 함성이 크게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포위망을 뚫고 달려왔다. 바로 장포였다. 장포는 유비를 구해 어영 군사들을 이끌고 길을 열었다. 한참을 달아나는데 앞쪽에서 또 한 부대가 나타났으니, 촉나라 장수 부동이였다. 유비는 이들과 합세하여 길을 재촉했으나, 등 뒤에서는 오나라 군사들이 바짝 추격해 왔다. 유비가 마안산이라는 산에 다다랐을 때, 장포와 부동이 유비에게 산 위로 올라가라고

청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육손의 대군이 마안산을 포위한 것이었다. 장포와 부동은 산 입구를 사수하며 버텼다. 유비가 멀리 바라보니 들판에는 불길의 끊이지 않았고, 시체는 겹겹이 쌓여 강물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나라 군사들이 사방에 불을 질러 산을 태우기 시작하자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유비는 크게 당황했다. 그때 갑자기 불길 속에서 한 장수가 기병들을 이끌고 산 위로 달려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니 관흥이었다. 관흥은 땅에 엎드려 간청했다. "사방에서 불길이 몰려오고 있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백제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누가 뒤를 맡아 적을 막아줄 것인가?" 그러자 부동이 나섰다. "신이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그날 해 질 녘, 관흥이 앞장서고 장포가 중간에서 따르며, 부동을 뒤에 남겨 유비의 뒤를 지키게 한 채 산 아래로 내려갔다. 오나라 군사들은 유비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모두 공을 세우려 혈안이 되어, 각자 대군을 이끌고 하늘과 땅을 뒤덮을 듯 서쪽으로 추격해 왔다. 유비는 군사들에게 도포와 갑옷을 모두 벗어 길을 막고 불을 지르게 하여 추격해 오는 적을 끊어내려 했다. 한창 도망치던 중, 갑자기 엄청난 함성이 들려오더니 오나라 장수 주연이 군대를 이끌고 강가를 따라 습격해 와 길을 가로막았다. 유비가 외쳤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관흥과 장포가 말을 달려 돌파하려 했으나, 빗발치는 화살을 맞고 뒤로 밀려나며 모두 중상을 입어 길을 뚫지 못했다. 그때 뒤편에서 또다시 함성이 터져 나왔으니, 육손이 대군을 이끌고 산골짜기 사이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유비가 한창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마침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때 앞쪽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이 들리더니, 주연의 군사들이 앞다투어 골짜기로 떨어지고 바위 위로 굴러떨어졌다. 이어 한 무리의 군사들이 돌진하며 유비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유비가 크게 기뻐하며 살펴보니, 바로 상산 출신의 조운이었다.

당시 조운은 천 지역의 강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나라와 촉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동남쪽 일대에서 불길기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멀리 살펴보니, 뜻밖에도 유비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운은 용맹하게 적진을 뚫고 달려 나갔다. 육손은 상대가 조운이라는 것을 알고는 급히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령했다.

조운이 한창 싸우던 중 주연을 만나 맞붙게 되었는데, 채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창으로 주연을 말 아래로 찔러 떨어뜨렸다. 조운은 오나라 군사들을 흠어놓고 유비를 구해낸 뒤, 백제성을 향해 달아났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비록 탈출했으나, 남겨진 장수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조운이 대답했다. "적군이 뒤를 쫓고 있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우선 백제성으로 들어가 쉬십시오. 신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장수들을 구하겠습니다."

이때 유비의 곁에는 겨우 백여 명의 병사만이 남아 백제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후세의 어떤 이들은 육손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짚을 들고 불을 일으켜 연달아 이어진 진영을 격파하니, 유비는 궁지에 몰려 백제성으로 달아났구나. 그 위명은 촉과 위나라를 모두 놀라게 하니, 오나라 왕은 어찌 저 선비를 공경하지 않겠는가."

한편, 부동이 후방을 지키며 퇴각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나라 군사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되고 말았다. 정봉이 크게 외쳤다. "촉나라 군사들은 수없이 죽어 나가고 항복하는 자도 부지기수다! 너희 주군인 유비는 이미 사로잡혔다. 이제 힘도 다하고 고립되었으니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그러자 부동이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한나라의 장수다. 어찌 오나라 개들에게 항복하겠느냐!" 그는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촉나라 군사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백 합이 넘도록 치열하게 부딪치며 싸웠으나 도저히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부동이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말을 마치자마자 입에서 피를 토하며 오나라 군사들 한복판에서 전사했다. 후대의 시인이 부동을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리하다.

"이릉에서 오나라와 촉나라가 크게 맞붙으니, 육손이 계책을 써서 불로 태웠네. 죽는 순간까지 오나라 개들을 꾸짖었으니, 부동은 한나라 장수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다."

촉나라의 제주 정기는 말을 타고 강가로 급히 달려가 수군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뒤이어 오나라 군사들이 추격해 오자, 수군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정기의 부하 장수가 외쳤다. "오나라 군사가 왔습니다! 정기 제주님, 어서 피하십시오!" 정기가 노하여 말했다. "내가 주상을 따라 출군한 이래로, 적을 마주하고 도망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나라 군사가 들

이닥쳤고, 사방에 도망갈 길도 없게 되자 정기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었다. 후세에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찬양했다.

"의기 넘치는 촉나라의 정기 제주여, 한 자루 칼로 임금에게 답하였네. 위기 속에서도 평생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 그 이름 만고에 향기롭게 남으리라."

한편, 촉의 장수 오반과 장남이 오랫동안 이릉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풍습이 달려와 촉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두 장수는 유비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고, 그제야 손환은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남과 풍습 두 장수가 나아가던 중, 앞에서는 오나라 군사가 몰려오고 뒤에서는 손환이 이릉성에서 들이쳐 양쪽에서 협공을 가해왔다. 장남과 풍습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으나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고 난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후세 사람들이 이들을 기리며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다. "풍습은 충성심에 조금의 거짓도 없었고, 장남의 의리는 둘째가 없다네. 전장에서 기꺼이 싸우다 죽었으니, 역사 속에 그 이름 길이 남으리라."

오반이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가 다시 오나라 병사들에게 쫓기게 되었으나, 다행히 조운이 뒤를 받쳐 주어 오반을 구해 백제성으로 데려갔다. 마침 변왕 사마가가 말을 타고 도망치다 주태를 만났는데, 스무 합 넘게 싸우다 주태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촉나라 장수 두로와 유녕은 모두 오나라에 항복했다. 촉나라 진영의 식량과 무기, 병장기 등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촉나라의 천 지역 병사들 중에서도 항복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한편, 오나라에 있던 손부인은 효정에서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유비가 군중에서 전사했다는 헛소문까지 퍼지자, 그녀는 수레를 몰아 강가로 달려가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후세 사람들이 강가에 사당을 세우고 ‘효희사’라 불렀다. 이를 논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유비는 패하여 백제성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은 난리를 듣고 홀로 목숨을 버렸네. 지금도 강가에 비석이 남아 있으니, 천 년을 흐를 열녀의 이름이 여전히 빛나네.”

한편, 육손은 대승을 거둔 뒤 승전한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추격했다. 기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육손이 말 위에서 앞을 보니 산을 마주하고 강을 곁에 둔 곳에서 살벌한 기운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이에 육손은 말 고삐를 당겨 뒤를 돌아보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앞에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니, 삼군 모두 경거망동하지 마라.” 육손은 즉시 군사를 십여 리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지세가 넓고 평탄한 곳에 진을 쳐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정찰병을 앞세워 살피게 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이곳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으나, 육손은 믿지 않고 직접 말에서 내려 산에 올라 살펴보았다. 그러자 살벌한 기운이 다시금 솟구쳤다. 육손이 다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게 했으나, 정찰병은 앞쪽에 사람 하나, 말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육손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수록 살기가 더욱 거세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망설이다가, 심복을 보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보고에 따르면 강가에는 그저 어지러운 돌무더기가 팔구십(80~90) 무더기쯤 쌓여 있을 뿐, 사람이나 말은 전혀 없다고 했다. 육손은 크게 의심스러워 현지인을 불러 이곳의 내력을 물어보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몇 명 다가왔다. 육손이 물었다. “누가 이 돌들

을 쌓아 놓았느냐? 어찌하여 이 돌무더기 사이에서 살기가 솟구치는 것이냐?” 현지인이 대답했다. “이곳의 지명은 어복포입니다. 제갈량이 촉나라로 들어올 때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러, 모래사장 위에 돌을 가져다 진형을 짜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서는 늘 구름 같은 기운이 안에서부터 피어오르곤 합니다.”

육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을 타고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석진을 살피러 갔다. 산비탈 위에 말을 세우고 보니, 사방팔방이 온통 문과 집으로 가득했다.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사람을 홀리는 술수일 뿐인데,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고는 곧장 기병 몇 명을 데리고 산비탈을 내려가 석진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부하 장수가 말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도둑계서는 어서 돌아가시지요." 육손이 막 진영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다. 순식간에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가릴 듯했다. 기괴한 바위들은 험준하게 솟아 칼처럼 삐죽삐죽했고, 쌓인 모래와 흙은 산처럼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다. 강물 소리는 파도가 몰아치며 마치 북을 치는 듯한 굉음을 냈다. 육손이 크게 놀라 외쳤다. "내가 제갈량의 계략에 빠졌구나!" 급히 돌아가려 했으나 나갈 길이 없었다. 한창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노인이 말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장군, 이 진영에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육손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더니,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듯 석진을 가로질러 나와 육손을 산비탈 위까지 데려다주었다. 육손이 물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제갈량의 장인인 황승언이라고 하오. 예전에 사위가 촉나라로 들어갈 때 이곳에 석진을 설치했는데, 이름을 '팔진도'라 하였지. 여덟 개의 문이 번갈아 나타나며, 둔갑

술의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를 따르니, 매일 매 순간 변화가 끝이 없어 십만 정예병과 맞먹는다네. 떠나면서 내게 이렇게 당부했었지. '나중에 동오의 대장이 이 진영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인도해서 내보내지 마시오'라고 말이오. 그런데 내가 마침 바위 위에 있다가 장군이 사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진법을 몰라 길을 잃은 것을 알았소. 내가 평소 선한 마음을 좋아하여 장군이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특별히 생문을 통해 인도해 준 것이라오." 육손이 물었다. "어르신께서도 이 진법을 배우셨습니까?" 황승언이 말했다.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배울 수가 없다네." 육손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다. 훗날 두공부가 시를 지어 읊기를 다음과 같았다.

공은 삼국을 덮을 만큼 높고, 이름은 팔진도로 남았네. 강물이 흘러도 돌은 움직이지 않으니, 오나라를 삼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네.

육손은 진영으로 돌아와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량은 과연 '와룡'이로구나! 내가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군대를 물려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곁에 있던 장수들이 물었다. "유비는 이미 싸움에서 패해 형세가 궁핍해졌고, 성 하나에 갇혀 겨우 버티는 처지이니 지금 그 기세를 몰아 공격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석진을 보고 물러나려 하십니까?" 육손이 대답했다. "내가 석진이 두려워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위나라의 주인 조비는 그 간사함이 그의 부친과 다를 바 없으니, 내가 지금 촉나라 군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빈틈을 노려 습격해 올 것이다. 만약 내가 서천 깊숙이 들어갔다가 퇴로가

막히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육손은 즉시 장수 한 명에게 후방을 지키게 한 뒤, 대군을 이끌고 돌아갔다.

퇴각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세 곳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위나라 군사 조인이 유수에서 나왔고, 조휴는 동구에서 나왔으며, 조진은 남군에서 나왔습니다. 세 갈래의 군사 수십만 명이 밤낮없이 국경까지 들이닥쳤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육손이 웃으며 말했다. "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미 군사들에게 막으라고 명해 두었다."

과연 이러하다. 서촉을 삼키려는 웅대한 야심을 품었으나, 승기를 잡으려면 북쪽 나라를 막아내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도다.

육손이 어떻게 군대를 몰려 퇴각할지, 결국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